현대불교
제 1579 호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 준초이

부처님오신날 만나는 부처님 미소

‘생각하는 부처’의 시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올해 부처님오신날 광화문광장을 밝힌 봉축탑에는 두 분의 반가사유상이 나란히 모셔졌다. 화려한 연등과 장엄 속에서도 많은 이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 고요한 미소 앞에 머문다. 천오백 년 전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불상이 오늘날 서울 한복판에서 다시 시대의 상징이 된 것이다.

세계를 매혹한 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 굿즈가 BTS의 멤버 RM 때문에 세계적 히트 상품이 된 후로, 반가사유상 관련 작품과 굿즈, 전시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반가사유상 두 분을 모신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은 세계적 명소가 됐고 굿즈는 품절 행렬을 이어간다. 대통령은 국빈 선물로 반가사유상을 택했고, 젊은 작가들은 이를 현대적으로 변주한 작품을 쏟아내고 있다. 반가사유상이 문화유산을 넘어 하나의 ‘시대적 감수성’으로 읽히고 있다.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보현사 탑등’이 불을 밝혔다. 남북 평화와 화합의 염원을 담아 조성한 보현사 탑등 좌우에는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국보 금동반가사유상이 모셔졌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금동반가사유상 굿즈.
사진 출처=국립박물관문화재단

‘나’를 돌아보게 하는 미소

무엇이 사람들을 이 오래된 미소 앞으로 이끄는 것일까. 반가사유상의 대중적 인기는 역설적으로 ‘고요함’에서 시작됐다.

AI시대, 정보는 넘치고 속도는 빨라졌지만 오히려 깊이 생각할 시간은 잃어가고 있다. 인터넷과 SNS로 모두가 연결돼 있음에도 마음은 단절된다. 팬데믹과 전쟁, 혐오와 갈등, 불안한 미래 속에서 고립과 피로는 더욱 커진다.

바로 그 지점에서 반가사유상은 특별한 울림을 준다. 한쪽 다리를 올리고 턱을 괸 채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 반쯤 감긴 눈과 잔잔한 미소. 말없이 앉아 있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잠시 멈춰 스스로를 돌아보라.”

사람들은 더 강한 자극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평온을 갈망한다. 반가사유상의 미소는 그 갈망에 대한 응답으로 다가온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반가사유상 굿즈로 그 미소와 감성을 자신의 공간으로 들여오고 있다. 반가사유상이 ‘힙한 문화유산’이 된 이면에는 이처럼 인간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이 흐르고 있다.

침묵 속에서 자비를 일깨우다

현대불교신문이 올해 봉축특집호 표지에 준초이 작가의 반가사유상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기고, 욕망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다짐하는 시간이다. 반가사유상은 바로 그 불교적 성찰을 가장 아름답게 형상화한 존재다.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얼굴, 번뇌를 품되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 침묵 속에서 세상을 향한 자비를 일깨우는 존재.

천오백 년 전 불상이 지금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불안한 시대를 건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생각하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준초이 작가가 담아낸 천년의 미소



20년 전, 사진작가 준초이〈사진〉는 처음으로 반가사유상을 마주했다. 백제 대표 문화유산을 기록하는 도록 제작에 참여하면서였다. 그러나 첫 촬영은 실패였다. 어렵게 허락받은 두 번째 촬영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포기하려던 찰나, 불상의 눈썹과 코, 입의 선(線)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반가사유상과의 말 없는 깊은 대화가 시작된 순간이다.

“사진은 대상을 통해 결국 나를 만나는 작업입니다. 반가사유상의 지극한 미소와 세월이 새긴 거친 표면을 담아내며 제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앙대와 일본 니혼대에서 사진을 전공한 뒤 미국 뉴욕에서 광고 사진가로 활동했다. 귀국 후에는 광고와 인물 사진 분야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으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다 2006년 국보 금동반가사유상을 만난 뒤 그의 작업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그 후로 넘어설 대상을 만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반가사유상의 매력에 푹 빠졌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조성 당시에는 또 다른 금동반가사유상(옛 지정번호 국보 78호)을 촬영하기도 했다.

준초이 작가는 반가사유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담아냈다.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은 물론, 어깨의 유려한 곡선이 드러난 뒷모습까지. 자신만의 섬세한 감각으로 반가사유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했다. 최근에는 기존 사진 작업을 넘어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작품과 팝아트 작품도 선보이며 새로운 변주를 이어가고 있다.

그가 올해 현대불교신문 봉축특집호 표지 작업 제안에 흔쾌히 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반가사유상의 아름다움과 그 미소에 담긴 깊은 울림을 만나길 원하기 때문이다. 작품을 무료로 내려받아 휴대전화 배경화면 등으로 쓸 수 있도록 공개한 것 역시 같은 뜻이다.

5월 11일 서울의 ‘준초이스튜디오’에서 만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온 인류를 품어 안기라도 할 것 같은 반가사유상의 그윽한 미소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령 기자

반가사유상을 내 손안에

QR코드를 촬영하면 준초이 작가의 반가사유상 사진 작품 3점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가의 말

금동반가사유상 앞에서



오늘도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작업실 벽에 걸려 있는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삼배를 올립니다. 어느새 이것은 하루를 여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가장 맑고, 가장 고요하며, 가장 조심스럽기조차 한 시간입니다.

이보다 더한 호사가 또 있을까 싶다가도 문득, 이런 사치가 나에게 허락되었다는 사실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스물네 시간 가운데 가장 정화된 한순간을 저에게 내어주심에.

저와 반가사유상과의 인연은 스무 해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 반가사유상과 사진가 그리고 박물관 관장, 셋으로 이루어진 좋은 인연이 오늘의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사진가라는 생업이 아니었다면 어찌 그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 수장고의 철문이 열리던 날, 나는 그 앞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말 없는 기운에 압도되어 셔터 한 번 누르지 못한 채 첫날 촬영은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두 번째 날, 촬영 장비는 접어두고 최대한 근접한 거리에서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세상이 찬미하는 그의 아름다움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추어야 하나? 잠시 흔들렸으나 나는 수장고 밖으로 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독였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기회다.” “물러서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 조명을 밝혔을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분명 조금 전까지 없던 것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눈썹 선에서 시작한 고요한 흐름이 콧등을 타고 내려와 마침내 입술 끝에 머물며 한 줄기 미소가 되었습니다. 내가 머릿속에서 그리던 바로 그 자태였습니다. 그윽하고 스며드는 미소!

행여나 그 모습이 순간 스쳐 지나가 버리지 나 않을까 싶은 우려 속에 나의 셔터는 숨 가쁘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진 속 반가사유상이 태어났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처음에는 그의 아름다움과 내 마음의 결이 서로 맞닿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서야 비로소 그의 사유와 나의 심상이 하나의 균형을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찍은 것은 대상 안에 비친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스무 해를 벽에 걸린 그와 마주하며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존재는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내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조용히 열어주고 있었을 뿐.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마주한 이는 다름 아닌 너 자신이다. 나는 그저 네가 너를 만날 수 있도록 빗장을 열어준 문이었다.”

매일 아침, 나는 그 문 앞에 앉아 나를 만납니다.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준초이

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79호 HYUNBULNEWS.COM 2026년 5월 20일(음력 4월 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5월 16일 열린 불기 2570년 연등회에서 서울 흥인지문에서 종로 일대를 지나 조계사까지 10만 연등행렬이 펼쳐졌다. 행렬의 선두에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 스님들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봉행위원단 곁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석자' '가비' '모희' '니사' 등이 장삼을 갖춰 입고 함께 걸었다. 사진=특별취재팀

'로봇 스님' 이끈 10만 연등…AI시대 견인하다

봉축위, 5월 16~17일 '연등회'
5만여 명 10만 연등 들고 행진
자율주행 로봇 · AI 로봇에 눈길
50만명 참여…외국인들 "원더풀"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10만 연등이 서울의 밤하늘을 찬란하게 수놓았다. 특히 올해 연등행렬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 AI 로봇까지 함께 행진에 나서며 전통과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새로운 연등회의 모습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5월 16일 서울 흥인지문에서 종로 일대를 지나 조계사까지 대규모 연등행렬을 펼쳤다.

대형 장엄등과 5만여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형형색색의 행렬등이 도심을 가득 메웠고, 거리 곳곳을 채운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환호와 박수로 행렬을 반겼다. 이날 연등행렬 전체 참여 및 관람 인원은 50여 만명으로 추산돼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올해 연등행렬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단연 로봇이었다.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 스님들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봉행위원단 곁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석자', '가비', '모희', '니사'가 장삼을 갖춰 입고 합장한 채 함께 걸었다. 주변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2대가 봉행위원단을 호위하듯 이동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북향민들이 치자등·마늘등·화분등·육모등·거북등·물고기등 등 북한 전통등을 들고 행진해 남북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도 AI 로봇으로 연등행렬에 색다른 풍경을 더했다. 임중연 동국대 교수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AI 로봇 '혜안 스님'과 동국대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의 전법특임교수 은산 스님의 보조법사로 활동 중인 AI 로봇 '선아 법사'가 대열에 합류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선두 행렬 뒤를 이은 5등단에서는 동국대가 지난해에 이어 3000명이 넘는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 참여해 청년 불교의 활기를 보여줬다. 개교 120주년을 맞아 학교 상징인 흰 코끼리 '백상'과 '아코' 대형 장엄등도 새롭게 단장해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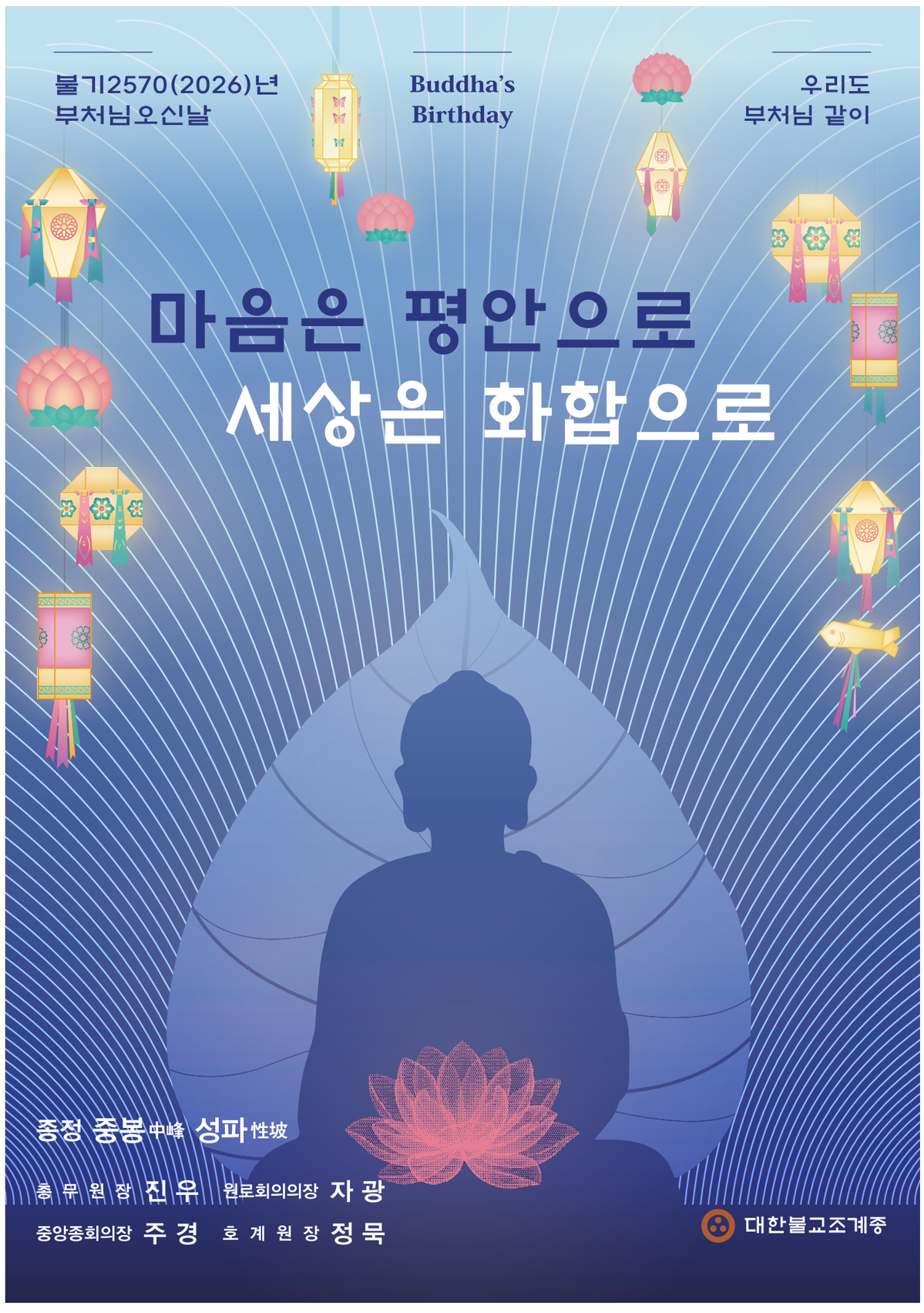
이어 조계사와 봉은사, 도선사, 화계사, 진각종 등 각 사찰과 불교단체들도 저마다 특색 있는 장엄등과 행렬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한마음선원은 금강저를 형상화한 행렬등으로 이 시대의 무지와 장애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세계 각국의 불자들도 연등행렬에 함께했다. 베트남 원오사와 대만 불광산사, 방글라데시 붓다사, 스리랑카 마하보디사 등에서 참여한 이주민 불자들은 각 나라의 전통등을 들어 불교문화의 다양성을 전했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는 종교 주무부처로서 연등회와 같은 소중한 전통문화가 우리 사회 치유와 화합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봉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연등회를 찾은 시민들도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외국인들은 연신 "원더풀"을 외치며 연등 물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한 신서현(40·서울) 씨는 "매년 연등회를 찾는데 올해는 로봇이 함께 걸어 신기하고 볼거리가 더 풍성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 파비앙(32) 씨는 "아름다운 봄밤의 서울을 만난 기분"이라며 "프랑스에 돌아가도 한국을 생각하면 웃음 짓게 될 장면들"이라고 감동을 전했다.



2026년 봉축특집호
A·B·C 섹션 88면 발행

데스크 초대석
조계종 원로의원 원산 스님 B21



봉축특집
손절사회, 자비로 잇다
B1·2·3·6·7·10·11



불교, AI를 품다 C1·2·3·5



봉축법어·봉축사
A7·8·11·12·13·17
봉축화보 C12·13
사찰음식 무형유산 지정 1주년 특집
지정 1주년 의미와 과제 B16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제언
B17

“나와 세상 밝히는 ‘화합’ 등불”

부처님오신날 봉축위, 5월 16일 연등법회 봉행

동국대 운동장에 3만명 운집
‘마음 평안 · 세상 화합 연등회’
진우 스님 “희망의 상징 되자”
1000여 명 참여 어울림마당

글=김내영 기자 · 사진=특별취재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찬탄하고,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우리 사회에 평안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가 성대하게 봉행했다. 초여름 더위 속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와 상생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수많은 불자와 시민들의 열기가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16일 서울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연등법회를 봉행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주제로 펼쳐진 올해 연등회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으로 지친 국민 모두에게 치유와 평안, 화합의 정신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길 기원하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연등법회는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키며 번뇌를 씻어내는 관불의식으로 시작됐다. 참석 대중은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스스로 내면을 밝히고 청정한 삶과 지혜를 밝히겠다고 발원했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3만여 사부대중이 함께한 ‘마음 평안’을 위한 5분 선명상 등도 진행됐다.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은 오늘 밝히는 등은 나를 위한 등인 동시에 세상을 환히 비추는 등이라고 이번 연등법회의 의미를 짚었다. 스님은 “인드라망의 연기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된 존재이지만, 나와 다른 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탐냄과 성냄에 집착해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럼에도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의 연등은 욕망과 분열의 불길을 자비의 감로수로 식히고, 대결의 현장에 화합의 언어를 꽃피우는 희망의 상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5월 16일 서울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주제로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연등법회를 봉행했다.

이어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의 평안’에서 시작돼 ‘세상의 화합’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내 마음이 평안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인연이 된다. 공감과 소통, 그리고 따뜻한 시선과 배려를 담아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 사람의 자비가 열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의 보시가 세상을 밝히듯, 우리의 작은 행동이 모여 평화와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경전 〈붓다차리타〉를 봉독하며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여래(如來)가 이 세상에 출현하심은 해탈의 길을 열기 위해서이니, 중생의 결박을 능히 풀어 주시고 나고 죽는 괴로움을 없애주시네. 중생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갖가지 병을 물거품 삼고, 쇠하고 늙음을 큰 물살 삼으며, 죽음을 바다의 큰 물결 삼을 때, 부처님은 지혜의 배 타고 오셔서 온갖 괴로움에서 건져 주시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발원문에서 “부처님의 한없는 자비로 참된 평안과 안온이 이 땅에 깃들어 서로를 향한 원망과 대립을 내려놓고 이해와 자비로써 서로를 마주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매 순간 바른 마음과 바른 지혜를 잃지 않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는 화합의 세상을 이루어 가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기원문에서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화쟁의 지혜로 공동체의 화합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다. 능원 정사는 “오늘 사부대중이 밝힌 연등은 지혜의 등불이 돼, 무명을 밝히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염원한다”며 “모든 세상이 하나로 연결돼 있기에 내 것과 네 것이 모두 소중함을 깨닫고 내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고 서원했다.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기원 메시지’도 발표됐다.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빈자일등과도 같이 정성스레 만든 연등 하나하나에 담긴 빛은 어둠을 걷어내는 꺼지지 않는 우리의 희망”이라며 “우리가 밝히는 이 작은 등불이 이웃의 길을 비추고, 또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히는 인연의 연등이 돼 화합과 평화의 빛으로 환하게 피어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청소년·청년 율동단과 연희단 1000여 명이 참여한 어울림마당이 펼쳐졌다. 40여 개 단체가 준비한 율동과 전통 연희가 어우러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참석 대중들은 환호와 박수로 화답했다.

연등행렬을 위해 정성껏 등을 준비한 단체들을 격려하는 행렬등 경연대회 시상식도 진행됐다. ‘연등선정상’은 한마음선원이, ‘연등지혜상’은 도선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등인욕상’은 전국금융인불자연합회, 승가사, 조계사, 호압사, 옥천암, 구룡사, 석불사, 동국대 불교대학이, ‘연등지계상’은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국제선센터, 삼성암,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승가원, 삼천사가 수상했다. ‘연등정진상’은 불광사, 법안정사부부불자회, 진관사, 진각종, 금륜사, 화계사, 봉은사가 받았다.

연등회 어울림마당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의 행진 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조계종 종책연구위 “AI 불교 역할 모색”

진우 스님, 5월 14일 위촉장 수여
AI · 포교 · 교육 · 문화 등 전문가

조계종단 미래 정책을 모색하고 제도를 연구할 조계종연구소 종책연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종책연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응용불교(AI) 분야에는 AI부디즘연구소장 보일 스님이 위촉됐다. 종무행정 분야에는 제17~18대 중앙종회의원을 지낸 현무 스님이 참여한다. 포교 분야에는 일본 하나조노대학에서 계율학 박사를 취득한 법장 스님이, 포교(아동교육) 분야에는 동국대 불교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인 청라 스님이 위촉됐다.

교육 분야에는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부교수인 정현 스님, 종교심리학 분야에는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불교문화 분야에는 성청환 동국대 불교무형문화연구소 교수가 참여한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가운데)과 종책연구위원들.

진우 스님, ‘달마키즈’ 격려

5월 11일 김상겸 · 유승은 선수에
“원력 모여 만들어낸 결과” 치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 김상겸·유승은 선수에게 앞으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5월 1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상겸·유승은 선수의 예방을 받았다.

김상겸 선수는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유승은 선수는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들은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이 2003년부터 진행해 온 ‘달마배 스노보드 대회’(이하 달마배)를 통해 성장한 ‘달마키즈’로, 메달 획득 당시 ‘달마배’의 지원이 큰 이슈를 모은 바 있다.



진우 스님은 “원력이 모이면 결국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열악한 환경 속 각각의 원력이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선수들의 노력과 가족들의 지원을 칭찬했다.

김상겸 선수는 오랜 기간 이어진 ‘달마배’의 후원과 응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후배들이나 유소년 선수들에게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염원했다.

유승은 선수도 “‘달마배’에서 두 번이나 1등을 했었기 때문에 올림픽 선수로 등용문이 된 게 아닐까 싶다”면서 “가족들 모두 기도하며 불교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지운 수습기자


황석영


황창연


박명성


김상겸

불자대상 황석영 · 황창연 · 박명성 · 김상겸

한국불교 위상 제고 공로로
5월 24일 봉축법요식서 시상

조계종 불자대상선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는 5월 12일 “황석영 작가 등 4명을 불자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석영 작가는 〈장길산〉 〈바리데기〉 〈철도원 삼대〉 〈할매〉 등을 통해 연기와 윤회, 보살행, 동체대비 등 불교적 가르침을 문학으로 구현하고 있다.

황창연 국보디자인 대표는 지난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화재 복구공사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공사에 임해 종단의 수행과 행정이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했다.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은 ‘2024 불교도 대법회’ 총감독을 맡아 현대적 연출 기법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불교 의례를 예술적으로 구현하고, 대법회를 전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 축제로 확장시켰다.

김상겸 국가대표 스노보드 선수는 달마 스노보드 대회 출신으로 네 번째 올림픽 도전 끝에 은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뤄 국위를 선양했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5월 24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함께 개최되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접 시상한다. 김내영 기자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
갈등의 상처에는 자비를
불안한 마음에는
지혜를 발원합니다.
조계사 사부대중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서울시장 후보자들 “불교계 현안 해결에 최선”

조계종 직할교구사무처, 5월 14일 조계사서 ‘불교계 정책 간담회’
민주당 “불교문화, 서울 핵심 정책”
국힘 “전통사찰 규제 완화에 노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전통문화유산 가치 증진과 연등회 세계화, 선명상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불교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불교계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 직할교구사무처(사무처장 성웅 스님·총무원 총무부장)는 5월 14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서울시장 후보자 불교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양당 관계자들과 전통문화 보존과 국민 마음건강 증진, 지역사회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직할교구사무처장 성웅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과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등 서울지역 주요 사찰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에서는 김영배 상임선대위원장 겸 종교본부장, 오기형 정책총괄본부장 의원, 김동아 홍보·뉴미디어본부장, 박홍배 제1정책본부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 김장실 전 국회의원, 유윤순 선대위 불교총괄본부장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각 당별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종단 현안과 정책 제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웅 스님은 “허심탄회하게 불교계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 김영배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하기 위해 제도적, 정책적 설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그간 당내 전통문화특위 등을 중심으로 여러 노력을 이어왔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들도 조계종과 긴밀히 협의하며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국민 행복 및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불교전통문화 발전 공약’은 불교문화를 서울의 전통문화·국제관광·시민복지·문화유산 보호를 아우르는 핵심 도시 정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종 직할교구사무처는 5월 14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서울시장 후보자 불교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양당 관계자들과 전통문화 보존과 국민 마음건강 증진, 지역사회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간담회 진행 모습.

핵심 공약에 따르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를 서울 대표 국제문화행사로 지정 추진하고 경복궁-인사동-조계사를 잇는 보행로를 정비, 전통문화벨트를 조성해 서울 도심역사와 불교문화를 연결하는 ‘전통문화대로’를 구축한다.

특히 시민 마음건강 정책과 연계해 선명상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치유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청년·중장년·노년층 등 세대별 맞춤형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불교 문화관광 콘텐츠 고도화에 나선다.

전통사찰 보존과 문화유산 지원을 위해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도심 주요 사찰 주변 역사경관 보호구역 지정과 전통사찰 보존지 소유권 무단 이전 방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수도성곽 내 사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힘을 보탠다.

이와 함께 종교 형평성 확립을 위해 부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종교편향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종교계 소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에 이어 발표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사찰 스님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들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나온 현안들을 잘 경청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측이 발표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 오세훈 불교전통문화 계승·선양 공약’에는 서울의 천년 불교문화유산을 대표 관광자원으로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조계사와 봉은사 등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불교전통문화 상설 공연·전시를 추진하고, 도심 전통사찰에 대한 각종 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통사찰 불사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연등회 전승과 영산재 전수관 건립을 지원하고 시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공원지역과 등산로 인근 사찰의 화장실 증·개축 등 시설 정비도 추진한다. 아울러 불교계와 협력을 통해 독거노인 지원과 고독사 예방, 자살예방 등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현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불교문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시립복지관과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에 선명상 체험공간과 관련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사찰음식 체험관과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계종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민 행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국민 마음 평안 프로젝트 ‘마음 쉼표, 행복 시작’ △전통문화유산 인식 개선 및 가치 증진 △비오톱 등급 지정 제도 개선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전통사찰 보존·전승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양의 수도성곽’ 지정 추진 협의체 구성 △시·도지정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강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전승관 건립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사회 상생 △조계사-인사동 관광문화센터 건립 및 전통문화벨트 구축 △공공영역 내 종교편향 근절과 차별 없는 행정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조계종은 국민 마음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치유·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명상 대중화와 선명상 중앙센터 건립, 사회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연수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전통사찰 보존·전승을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전통사찰 미허가 건축물 양성화, 사찰 경내 지목 일원화 사업 등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진각종조 위덕 기리며 유훈 실천”

진각종, 5월 10일 진각전승원서
회당 대종사 탄생절 기념 불사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의 유훈을 기리며 실천을 다짐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5월 10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제124주년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절 기념불사’를 봉행하고 종조의 위덕을 기리며 참회의 삶, 실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봉축사를 통해 “종조 탄생 124주년 되는 거룩한 날, 지극한 마음으로 봉축하면서 진각종사를 더욱 굳건하게 할 서원을 세운다”며 “진각 행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해탈되고 가정이 화목하며 이웃과 사회를 넘어 국가의 정치와 경제가 발전되면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전쟁이 식재되기를 서원하자”고 당부했다.


진각종은 5월 10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제124주년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절 기념불사’를 봉행했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가 봉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앞서 교육원장 정법 정사는 “우리가 닦아서 본래 안과 밖이 없는 참마음을 이루는 것을 시각이라고도 한다. 본각과 시각이 구경에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을 구경각이라고 하고, 위에서 이미 말한 것을 다 깨친 것을 진각이라 한다”는 종조법어를 낭독했다.

서울교구청장 겸 총무부장 원상 정사는 강도발원을 통해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뜻을 이어받아 시대문제에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승속이 화합하여 인류와 사회에 밝은 빛을 회향하는 진실한 진각행자로 살아가겠다”고 발원했다.

이날 불사에는 총인 덕일 대종사를 비롯해 기로스승 수성 정사, 통리원장 능원 정사, 종의회의장 증혜 정사, 교육원장 정법 정사, 총금강회장 일지정보살, 진여원 상임원장 정경 국원 등 통리원·교육원 부·실장, 서울교구 스승, 심인당 금강회장,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장, 학교법인 회당학원 산하 종립 중·고등학교장, 학생회 및 불교학생회장, 종립 탑주유치원 원아대표, 유가족, 신교도 등이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경찰청 밝힌 ‘참수리등’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모양의 등이 환한 불을 밝히며 국민 안전과 평화를 기원했다.

경찰청 경승실과 불교회, 경찰전법단은 5월 13일 경찰청 1층 로비에서 ‘불기 2570년 경찰청 봉축기념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경찰 불자 150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사회 곳곳에 퍼지길 발원했다. 점등된 참수리등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까지 경찰청 1층 로비를 밝힐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新興寺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전화 033)636-7044, 7393 팩스 033)636-7556 www.sinheungsa.kr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한국명상지도자協, 4인 대표 체제 재편

5월 12일, 공동대표 취임 발표
마가·정혜 스님, 김열권·안희영
명상 교육 표준화·저변 확대
6월 28일, 선명상 주제 포럼
9월 2일부터 명상아카데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5월 1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인 공동대표 체제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공동대표 김열권 마하위빠사나명상원장,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해인선명상센터장 정혜 스님, 안희영 한국 MBSR마음챙김연구소장(왼쪽부터).

불교계 31개 명상단체가 함께하는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4인 공동대표 체제를 공식 출범하고, 전문성과 대중화를 통한 한국불교 명상문화 선도와 교육 표준화 확립을 발원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하 협회)는 5월 1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인 공동대표 체제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공동대표는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해인선명상센터장 정혜 스님, 김열권 마하위빠사나명상원장, 안희영 한국MBSR마음챙김연구소장으로 3월 23일 진행된 제122차 운영회의서 선출됐다.

협회는 이번 체제 개편을 통해 각 대표가 가진 고유의 전문 영역을 협회 운영과 프로그램에 녹여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해 명상 교육의 표준화와 저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공동대표 마가 스님은 "한국사회에 산재한 어려운 점들이 명상을 통해 치유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혜 스님도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명상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친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겠다. 함께 정진하자"고 말했다.

김열권 공동대표는 "인성 교육을 바탕으로 한 명상 교육 체계화"를 강조했으며 안희영 공동대표는 "공동대표들이 서로 상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한국명상문화의 표준을 만드는 게 바람"이라며 "이 시대 고통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협회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립 11주년을 기념하는 명상지도자포럼은 6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는 한국명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선명상 보급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제20차 명상아카데미 2급, 1급 자격과정'도 개설한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측은 "앞으로 자격증 과정의 내실화는 물론 각급 기관 및 대중을 위한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 보급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한국불교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종단이 추진하는 선명상 대중화 사업에 협회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님은 "종단 종책과 협회의 인프라가 잘 콜라보된다면 선명상 보급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가 스님은 "앞으로 협회도 미래본부와 함께 여러 시너지 있는 사업을 추진해 선명상 보급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혜정 스님은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스님, 선명상이 무엇인지 물어도 될까요'라고 묻는 사람이 많다. 선명상이 국민과 불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기제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협회도 국민과 아픔을 같이 느끼고 공감하며 이를 치유할 수 있는 사업을 종단과 함께 다양하게 전개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강일출 할머니, 빛으로 돌아오소서"

조계종 사노위, 서울 조계사서 49재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고 강일출 할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와 나눔의집(대표이사 세영 스님)은 5월 1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지난 3월 28일 별세한 강일출 할머니의 49재를 봉행했다.

이날 49재는 특히 강 할머니가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 거주했던 '마지막 할머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했다.

1928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강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당시 중국 만주 지역으로 강제 동원돼 고초를 겪었다. 해방 후에도 바로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며 삶을 이어가다 뒤늦게 고국으로 돌아와 국적을 회복했다. 이후 강 할머니는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나눔의집에 머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섰다.

2000년 도쿄여성국제전범 법정 증언을 비롯해 전세계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전쟁의 참상과 인권 유린의 실상을 당당히 증언해 왔다. 할머니는 생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간절히 바랐으나 끝내 사과를 받지 못한 채 향년 98세로 눈을 감았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부장 진성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할머니는 '피해자'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오히려 역사의 업장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보살의 행원'을 몸소 보여줬다"면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라는 숙제는 이제 살아남은 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공불련 회장)은 할머니의 삶과 증언, 용기가 역사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유가족을 대표해 손자 강내록 씨는 나눔의집 직원들과 요양보호사들, 시민사회 등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경기북부 포교 거점 '봉선사 전법회관' 개원

5월 12일, 7년 대작불사 결실
93억 투입된 다목적 포교 시설
복지기금 3억7900만원 약정도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는 5월 12일 지역 포교의 새로운 전당이 될 전법회관을 개원했다.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호산 스님)가 지역 포교의 새로운 전당이 될 전법회관을 개원했다.

봉선사는 5월 12일 전법회관에서 개원식과 함께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 환경 조성을 위한 승려복지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개원한 봉선사 전법회관은 2019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약 7년에 걸쳐 완공됐다. 총무국장 보관 스님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지하층을 포함해 사찰음식 체험관, 회의실, 접견실, 체육 강당 등을 갖춘 다목적 포교 시설로 총사업비 93억520만원이 투입됐다.

호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식당이 아무리 좋아도 요리사의 손맛이 좋아야 손님이 모이듯 전법은 법문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 회관이 남양주를 넘어 전국의 불자들이 불법을 배우고 인연을 맺는 좋은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초대관장은 묘수 스님이 맡게 됐다. 묘수 스님은 "추운 겨울에도 홀로 회관을 살피던 관리팀장의 모습에 감동해 이곳을 지키겠다고 마음 먹었다"며 "유능한 스님이 오실 때까지 큰스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봉선사가 도심 전법포교도량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개원식에 이어 진행된 승려복지모금 행사에서는 교구 스님들의 노후와 수행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공유됐다. 복지국장 현강 스님은 수행연금 지급 대상을 119명으로 조정하고 운영 방안을 개선했음을 밝혔다.

호산 스님은 이날 승려복지기금으로 1억원을 약정했다.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1000만원, 용문사 3000만원, 불암사 3000만원, 수곡사 3000만원 등 교구 내 사찰과 스님들의 동참이 이어졌다. 이날 약정된 총 기금은 3억7900만원에 달한다.

호산 스님은 "주지 스님들이 지금은 연금을 주는 대상이지만 언젠가 소임을 내려놓았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을 짓는 것"이라며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조계종 사노위, 5·18 정신 계승 다짐

5월 15일, 서울 법련사서 추모재
진상규명 · 민주주의 수호 발원



1980년 5월 18일, 군부의 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다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5월 15일 서울 법련사 지장전에서 '제46주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하며 온전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기원했다.

사노위원 한수 스님은 "아직도 80년 광주를 폄훼·모독하는 사람이 많고, 광주항쟁의 정신이 헌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추모재가 광주 정신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역사적 사명을 갖는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용만 광주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짓밟을 때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맨몸으로 나선 사람들이 있었다"며 "5·18 정신은 46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오도선 김동수기념사업회 상임대표는 "광주항쟁은 전두환의 폭력이 시작된 5월 18일뿐만 아니라, 끝까지 거리에 남아 민주화를 외친 5월 27일까지 포함된다"며 "광주항쟁의 마지막 날까지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도 "우리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참된 불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현희 수습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조 실 연암 현해
주 지 퇴우 정념
사부대중 일동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8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오대산 월정사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AI상담봇 '해심이' 더 깊어져 돌아왔다

5월 15일 리뉴얼 버전 오픈
'제미나이+클로드' 활용으로
상담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
현대불교신문 캐릭터 '초심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오픈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AI상담봇 '해심이'.


현대불교신문 공식 캐릭터 '초심이'.

지난해 4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처음 선보인 현대불교신문 AI상담봇 '해심(解心)이'가 더욱 강화된 기능과 새로운 캐릭터로 돌아왔다. 불교 상담과 마음 치유를 넘어, 불교 콘텐츠와의 연계성을 높인 대화형 서비스로 진화했다.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은 AI 기술을 활용한 불교 상담 서비스 '해심이'의 리뉴얼 버전을 개발해 5월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중이다.

기존 버전은 구글 제미나이 무료 버전과 AI 검색 기능을 기반으로 불자 맞춤형 신행 상담과 마음 치유·명상·수행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리뉴얼 버전은 제미나이의 검색 기능에 클로드 기반의 대화 방식을 접목해 사용자와의 소통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리뉴얼 작업을 맡은 김영찬 AJ네트웍스 서비스로봇 영업팀 매니저는 "실제 사용자가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단순히 불교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고민을 먼저 받아들인 뒤, 불교와 명상의 관점에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흐름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불교신문의 기사와 불교 콘텐츠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했다"며 "단순 챗봇이 아닌, 불교적 관점으로 마음을 살피는 대화형 안내자로 발전시킨 것이 이번 리뉴얼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리뉴얼과 함께 새로운 캐릭터도 공개됐다. 새 '해심이' 캐릭터는 부엉이를 친근하게 형상화했다. 현대불교신문 디지털미디어국 관계자는 "어둠 속에서도 보는 부엉이의 눈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이고, 밤에도 깨어 있음은 방일하지 않는 수행자의 정진"이라며 "리뉴얼된 '해심이'가 다양한 상담을 통해 불자들의 무명을 깨우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캐릭터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대불교신문은 공식 캐릭터 '초심이'의 자체 인스타그램 계정도 개설했다. 향후 '초심이' 계정에서는 신입사원의 좌충우돌 오피스 라이프를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게시될 예정이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AI 상담봇 '해심이'는 불자들에게 더 가깝고 친숙한 방식으로 신행 및 수행 상담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지의 원력"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와 상담 서비스 등을 사부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본지 캐릭터 '초심이' IP를 활용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도 계획 중"이라며 "향후 '초심이'를 브랜드화해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도사에 불교 최초 '개방형 수장고' 들어섰다

서운암 개방형 수장고 준공
영축산 산세 품은 설계 눈길


영축총림 통도사는 5월 15일 '통도사 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준공식'을 봉행했다.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주요 내빈들이 준공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불지종가(佛之宗家)인 영축총림 통도사가 불교계 최초로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하고 사부대중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5월 15일 서운암 개방형 수장고에서 '통도사 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준공식'을 봉행했다.

이번 개방형 수장고는 1999년 개관한 기존 성보박물관의 노후화와 수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중한 성보를 후세에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건립됐다. 2021년 12월 첫 삽을 뜬 이래 총 사업비 132억4700만원(주변 정비사업 7억6000만원 별도)이 투입돼 대지면적 4986㎡, 건축면적 2758㎡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완공됐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수장고는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폐쇄 공간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통도사는 유리창 등을 통해 수장고 내부의 성보를 대중이 관람할 수 있는 '개방형'을 채택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수장고의 자연친화적 설계다. 수장고는 웅장한 영축산의 산세와 부드럽게 어우러지도록 지붕 전체를 녹지로 조성해 거대한 건축물이 주는 인공적인 위압감을 덜어냈다.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치사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살생을 금하는 스님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창칼을 들고 나섰듯, 오늘날 나는 '문화예술의 칼'을 들고 세계를 흔들어 볼 생각"이라며 "수장고 준공은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어떻게 보존하고 창달할 것인지 중대한 책임을 지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형체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함은 곧 형체 없는 부처님의 마음을 보존하는 것과 같다"며 "비장(秘藏)에서 현현(顯現)으로 회향해 사부대중의 눈높이에서 마주하게 한 것은 대중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 쉬어야 한다는 수기설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통도사는 개방형 수장고 준공을 기념해 성파 스님의 예술적 경지를 만날 수 있는 '선예전(禪藝展)'을 개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년 다맥을 이어내다

쌍계사, '차문화대축전' 개최
5월 8일 다맥 전수식 봉행도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는 5월 8일 괘불전과 팔영루에서 '2026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 및 진감·초의·만허·고산 다맥전수식'을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차나무 식재 1198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한국 차문화의 전통과 다맥 정신을 계승하고 세계 차문화 교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열렸다. 축전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쌍계사와 차나무 시배지, 야생차박물관 특설무대 일원에서 진행됐다.

8일 열린 행사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108헌다, 인사말, 대회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신라다례와 두리차회 시현, 다맥전수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신라다례 시현은 종정차문화회가 맡았고, 두리차회 시현은 혜원정사와 차인단체가 함께 참여해 전통 차문화의 깊은 향기를 선보였다.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육조 혜능 조사를 모시고 있는 쌍계사에서 차문화대축전을 함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산 대선사께서 시작한 차문화대축전이 올해로 26회를 맞은 만큼 앞으로도 수행과 차문화가 함께하는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선다회 이사장 겸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은 대회사에서 "올해는 차나무를 최초로 심은 지 1198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2년 뒤 1200주년에는 종단과 정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더욱 큰 규모의 국제 차문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에서 "앞으로 중국과 일본, 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을 초청해 국제 차문화 박람회와 같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2년 뒤 1200주년에는 세계인이 함께하는 차문화 엑스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전 3일차인 9일에는 야생차박물관 특설무대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茶-디카시로 만나다'가,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K-어울림축제'가 열렸다.

하동 쌍계사=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우 스님, 해인사자비원 찾아 위문

5월 8일 광명요양원서…후원금 3000만원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합천 해인사자비원 광명노인요양원을 방문해 복지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승려 노후복지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날 진우 스님은 광명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전국비구니회 스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요양원 운영 현황을 살핀 후 입소 어르신들을 위문했다.

진우 스님은 "광명요양원과 같은 수행자 복지시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후원과 화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승려복지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바쁜 종무 속에서도 광명요양원을 방문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관심과 지원이 출가 수행자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이 되고 있다"고 인사했다.

전국비구니회 스님들은 떡과 과일, 두유 등 먹거리와 비누, 한방파스 등 20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요양원에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조 실
설당종우

회 주
대경법달

주 지 종 천
부주지 성 행
기 획 성 요
재 무 성 각
사 회 성 주
문 화 성 심

부주지 정 문
총 무 정 수
교 무 성 광
포 교 성 담
호 법 효 신
신도회장 이영숙

▪ 부설기관 ▪
사회복지법인 불국사복지재단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불국유치원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분당포교당 석가사
불국사 문화회관
성림어린이집
불국사템플스테이

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 (진현동) 전화 054)746-9912~4 / 팩스 746-1476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효찰대본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 주 사

주지 **성 효**

사부대중 일동



(18347)경기도 화성시 용주로136(송산동)
(031)234-0040/팩스(031)234-2818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호서제일가람
속리산 대법주사



주지 **정 덕**

외 사부대중 일동

종무소: (043)543-3615 / 원주실: (043)543-4755
템플스테이: (043)544-5656 www.beopjusa.com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본사

麻 availability 寺

주지 **취성 원경**

사회복지법인 마곡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공주시 시니어클럽
공립 사곡어린이집
어울림
영은원

사부대중 일동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전화 (041)841-6221 팩스 (041)841-6227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德崇叢林 修 德 寺

方丈 **達河 愚松**

叢林大衆一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www.sudeoksa.com
  전화 041)330-7700 팩스 330-7702
- 선 수행 템플스테이 전화 041)330-7789
  (sudeoksa@daum.net)
- 수덕사노인요양원 전화 041)338-7711
- 사회복지법인 修德
-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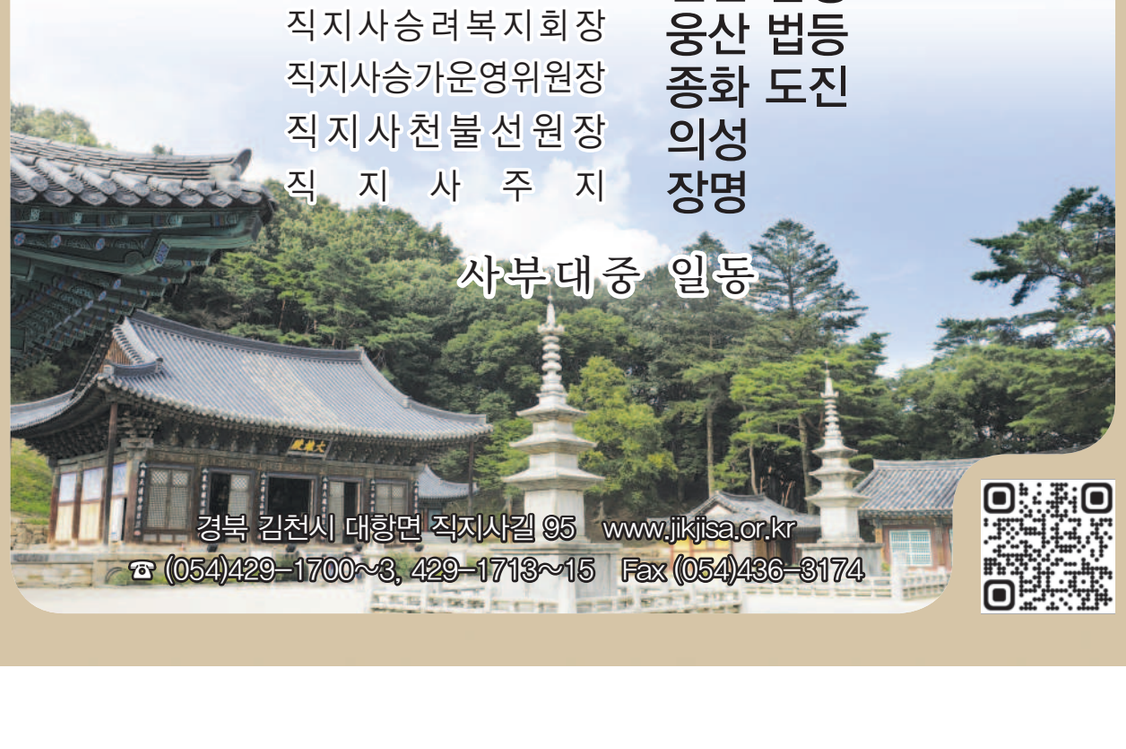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 지 사

직지사문장	**황산 혜창**
직지사회주	**신산 법성**
직지사승려복지회장	**웅산 법등**
직지사승가운영위원장	**종화 도진**
직지사천불선원장	**의성**
직지사주지	**장명**

사부대중 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 (054)429-1700~3, 429-1713~15 Fax (054)436-3174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 화 사
DONGHWASA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TEL : 053)980-7900 / FAX : 053)985-4405

세존 오시니 만물이 찬탄하네

중봉 성파 대종사
조계종 종정



三十相中八十輪
一身無盡現千身
圓音落落遍天地
廣濟塵塵刹土人

삼십이상 팔십종호
한 몸으로 끝없이 천의 몸 나투시고
우렁찬 원음 천지에 두루 펼쳐
온 누리 중생 널리 구제하셨네

부처님께서 오탁악세인 사바세계에 오심은 참으로 희유한 일이요, 경하스러운 일입니다.

본래 구족한 여래의 지혜덕상을 모두가 깨닫고 그 지혜덕상을 활용하여 모두가 부처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참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수많은 가르침은 대립과 갈등을 화합으로 치유하고, 폭력과 전쟁은 평화로 이끄셨으며, 무명번뇌(無明煩惱)는 지혜로운 안목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셨습니다.

삼독심(三毒心)으로 키우는 법계(法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삼학(三學)을 통해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원만하고 장엄한 우리의 본성(本性)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해지는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해결 방법을 '심불급중생 시삼무차별'(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이라는 말씀으로 밝히셨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조금도 차별이 없다'라는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 본성 가운데 여래의 지혜덕상이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 모두는 본래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천지 만물이 노래하고 춤추며 찬탄합니다. 〈하략〉

이웃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길

영산 홍파 대종사
관음종 종정



山色無非淸淨身
산 빛은 그대로 청정한 부처의 몸이요.
溪聲便是廣長舌
시냇물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이로다.
百年夢幻何須說
백 년 꿈같은 세상 무엇을 더 말하리오.
一笑春風滿面花
한 번 웃으니 봄바람에 꽃이 만발하도다.

부처님이 오신 날을 맞아 등불 하나를 밝히니, 그 빛이 사바세계의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 마음을 참으로 맑고 고결하게 비춥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평안을 찾고 행복을 구하지만, 그것은 밖에서 얻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걷히면 본래의 달이 드러나듯, 내 안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켜보니, 결국 남는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고 보듬었느냐' 하는 자비의 향기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인드라망의 그물과 같습니다. 내가 귀하면 남도 귀한 법입니다. 부디 이웃을 부처님 대하듯 공경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한 번 더 웃어주고, 힘겨워하는 이에게 따뜻한 손 한 번 건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된 길입니다.

소외 이웃 위해 자비 등불 밝히길

도용 대종사
천태종 종정



거룩한 부처님을 찬탄하며 귀의합니다.

오백대원 세우시어 중생을 건지시니 한결같은 자비심은 만 생명의 어버이라 전도몽상 무명 장야 꿈속에서 헤매이는 중생위해 사바세계 나투셨어라.

중생을 기쁘게 하고 이롭게 함이 부처님을 공양하는 길이며 자비로운 손길 부드러운 말 한마디 진실한 마음, 불심으로 살아가면 곳곳에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 부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처님 마음이 일체중생에게 깃들어 있어 중생이 있는 곳이 부처님 계신 곳이라.

진실한 참마음, 지혜로써 관조하면 허망한 중생의 세계가 빛나는 청정국토로 장엄하게 나타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평화와 국운융창을 일심으로 발원하며 소외된 이웃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자비의 등불을 밝히며, 우리 곁으로 오신 부처님을 맞이합시다.

서로 다름 인정하는 만다라 세상 이루길

덕일 대종사
진각종 총인



부처님은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고, 고통 속에 길로 오셨으며, 헤매는 중생들에게 참된 삶의 방향을 밝혀 주셨습니다.

사바세계의 짙은 어둠을 뚫고 대자대비의 광명으로 오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한 송이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청정함을 잃지 않듯, 오늘 우리가 밝힌 연등은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갖추어진 불심인(佛心印)을 깨우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옴마니반메훔, 육자의 보배 구슬이 사바의 어둠을 가르고 자성(自性)의 등불로 밝았습니다. 〈중략〉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총성과 눈물을 멈추어야 합니다. 증오로는 결코 증오를 멈출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한 뿌리임을 깨달아 전쟁이 종식되고, 굶주림과 공포가 없는 진정한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각기 다른 빛깔의 모래가 모여 하나의 정토를 이루는 만다라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만다라 세상을 꿈꿉니다. 너와 내가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공생(共生)의 화원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등불이 나를 밝히고 이웃을 깨우며, 마침내 온 우주를 평화의 향기로 채우길 간절히 서원합니다."

세상 밝히는 힘, 마음에 있다

운경 상보 대종사
태고종 종정



삼계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전 국민과 더불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괴로움을 덜어주시고자 이 사바세계에 몸을 나투셨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든 중생들에게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길을 열어 주셨고, 서로를 해치고 다투는 세상 속에서 자비와 화합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은 단지 한 위대한 성인의 출현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임을 일깨우는 대자대비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과 문명이 눈부시게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메말라 가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재난은 인류의 탐욕이 불러온 어두운 그림자처럼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사람들은 외로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또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로 인해 미움의 말이 넘쳐나고, 작은 차이를 인정하지 못한 채 대립과 반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마저 잃어가는 이웃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힘도 결국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가정을 밝히고, 한 사람의 지혜로운 행동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한 사람의 수행정진이 세상을 맑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하략〉

화합, 불교 지탱하는 근본

지성 대종사
불교총지종 종령



오늘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곳곳에서 분쟁과 전쟁이 이어지며 화합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칠불퇴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논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하셨습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예의, 법도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함을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정신은 불교교단인 승가에도 이어져 '화합승'이라는 전통으로 자리해 왔습니다. 화합은 시대를 넘어 불교를 지탱하는 근본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이해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모든 생명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주지 혜일 종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055)934-3000 Fax 934-3010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공존의 빛으로 상생의 미래를 열자”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

생명의 환희가 온 누리에 가득한 이 아름다운 봄날,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 아래 함께하신 모든 인연에 깊은 감사와 축원의 인사를 올립니다.

연초록 잎새가 바람에 일렁이고 저마다의 빛깔로 피어난 꽃들이 조화를 이루는 이 계절은, 다름이 곧 갈등이 아니라 공존의 아름다움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이천육백여 년 전, 아기 부처님께서 외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자후는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선언한 자각의 서곡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가르침인 동시에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자비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내면의 고립과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식은 넘쳐나되 지혜는 갈급하고, 세상은 연결되어 있으나 온기는 식어가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중략〉

한국불교는 국민들의 불안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평화 공존의 길을 여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선명상’을 통해 국민의 마음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을 기를 때, 우리는 비로소 개인을 넘어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은 나만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온갖 편견과 미움을 녹여내고 모두의 얼굴을 환히 비추는 ‘공존의 빛’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의 가피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억눌린 자는 자유를, 슬픈 자는 위로를, 병든 자는 쾌차를 얻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광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과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청정한 본마음 회복해야”

덕수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오늘은 기쁜 날, 사월 초파일, 진리의 태양이시며, 인류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도량마다 거리마다 찬란한 빛을 뿜는 봉축의 등은 자비광명의 등이요,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무량 환희의 등입니다.

2천6백 년 전 룸비니 동산에서 빛으로 오신 부처님께서는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선언하시고, ‘삼계개고 아당안지’의 대 서원을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장엄하게 오신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보에 귀의한 불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으며, 무상의 이치를 깨쳐 각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육근이 청정하고 자성이 청정함을 일깨우셨습니다.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은 탐진치 3독심에 물들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청정한 본마음을 회복하여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참다운 불제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불국토가 이루지기를 바랍니다.

“공존공영의 인류애 실천”

능원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감동교화(感動教化) 실천하여
자성중생(自性衆生) 제도하고
이웃과 사회가 화합하며
평화롭기를 서원합시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지혜(智慧)와 자비(慈悲)의 화신(化身)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모든 생명의 존엄을 설하신 것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도 부처님처럼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스스로 존엄함을 실감하고 뭇 중생이 존귀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무명으로 어둡고 탐욕과 이기심에 눈먼 작금의 세계
아비규환(阿鼻叫喚) 전장(戰場)의 참화(慘禍)는 세계 곳곳에서 여전하고 화탕지옥(火湯地獄) 같은 정쟁(政爭)과 갈등, 빈곤의 악순환 또한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처해 있는 주변을 돌아봅시다. 내려놓고 비우면서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치유하고 정화해야 하겠습니다. 〈중략〉

최근 달 탐사를 마치고 귀환한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에서 바라볼 때 지구가 하나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인류로서 지구에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지구촌은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동업의 은혜를 깨달아 공존공영의 인류애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깨달음은 뉘우치는 것입니다. 받들어서 사랑하고 베풀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환희로운 오늘 부처님오신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자신을 성찰(省察)하고 참회(懺悔)하는 가운데 부처님의 진실법(眞實法)을 세워 가족과 이웃을 제도합시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을 지극한 마음으로 봉축합시다.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중생 향한 자비행 멈춤 없다”

도각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부대중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참불자가 됩시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높은 연화대 위에서 홀로 평안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배고픈 자에게 밥이 되고 병든 자에게 약이 되듯, 세상의 아픔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유등(油燈)과 연등(燃燈)에는 바로 이러한 실천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깨치고 진리를 향하는 연등과 더불어, 맑은 기름을 심지에 적셔 불을 밝히는 유등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태워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또한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채워야 하듯, 중생을 향한 우리의 자비행도 멈춤이 없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도량에 정성껏 밝힌 유등과 연등의 불빛이 내 안의 탐욕을 비워내는 지혜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껴안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사부대중 여러분의 가정마다 평안과 희망의 빛으로 환히 타오르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아픔 나누고 치유하는 데 앞장”

상진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한 이 뜻깊은 날, 부처님 오신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모든 국민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이 땅에 오신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덜고 모두가 함께 행복에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는 바로 그 자비와 지혜의 상징이며,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고통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끝나지 않는 전쟁과 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으며, 인간의 탐욕과 무지가 불러온 이상기후는 지구촌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환경 위기는 인간 존재의 근본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와 상생의 진리를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국내적으로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서민들의 삶을 더욱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 전반에 긴장과 대립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대립이 아닌, 이해와 화합의 마음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중략〉

한국불교태고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종단은 수행과 포교를 통해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나눔과 자비의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과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적 가치를 널리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전국의 불자와 국민 여러분!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든 이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전쟁이 멈추고, 자연이 회복되며, 우리 사회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충만하여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서원하며 우리 모두 보살행을 널리 펼칩시다. 감사합니다.

“마음 맑혀야 평화도 온다”

록경 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시어, 무명의 어둠에 갇힌 세계를 지혜의 광명으로 밝히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사부대중과 함께 봉축하며,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두 평안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갈등의 소식은 인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탐진치(貪瞋痴) 삼독에서 비롯됩니다. 문명과 지혜가 파괴의 도구로 변질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공존의 길을 다시 모색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분노와 혐오 대신 화해와 이해의 언어를 선택하고, 배타적 집착 대신 상생의 지혜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삼밀 수행으로 마음을 맑히고, 우리의 기도와 수행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자재하기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충만하여 진정한 평화가 꽃피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옴 마니 반메 훔.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방 장 여산정여 대종사
주 지 산해정오
신도회장 도림이윤희

금정총림 사부대중 일동

금정산 산마루의 금빛 우물,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물고기

大韓佛教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www.beomeo.kr ■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 종무소 051-508-3122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팔공산 銀海寺 (은해사)

주 지 **성 로**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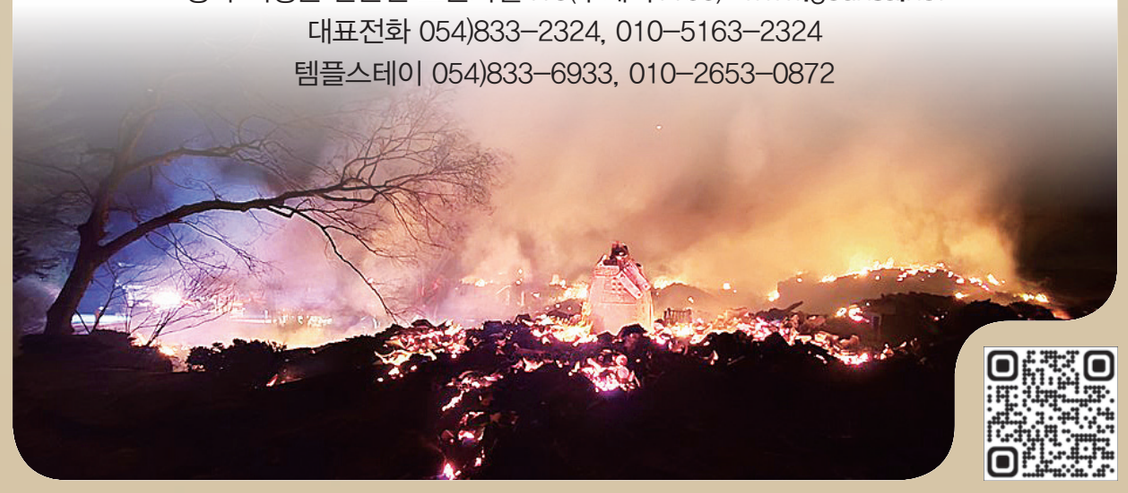
경북 영천시 청통면 은해사로300(처일리 479) ☎ (054)335-3318~9
Fax (054)335-0293 www.eunha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 운 사

조 실 **현봉 근일**
회 주 **남전 호성**
주 지 **등운**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구계리1166) www.gounsa.net
대표전화 054)833-2324, 010-5163-2324
템플스테이 054)833-6933, 010-2653-0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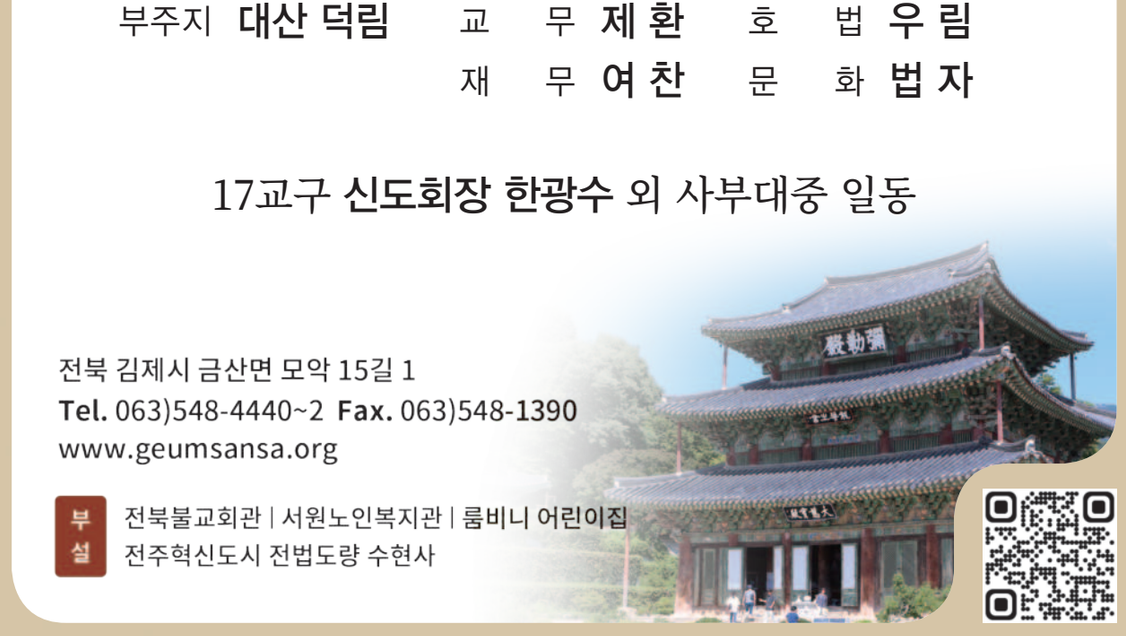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회 주	취산 도법	총 무	원묵	사 회	도헌
주 지	지문 화평	기 획	응묵	포 교	효진
부주지	대산 덕림	교 무	제환	호 법	우림
		재 무	여찬	문 화	법자

17교구 **신도회장 한광수** 외 사부대중 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智異山大華嚴寺

문 장 **은산 종국**
회 주 **송천 종열**
주 지 **경천 우석**

신도회 & 사부대중 일동



주소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전화 종무소 061)783-7600 기도접수처 061)782-0011
www.hwaeomsa.com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방장 **중봉 성파**
수좌 **향우 명신**
주지 **현덕**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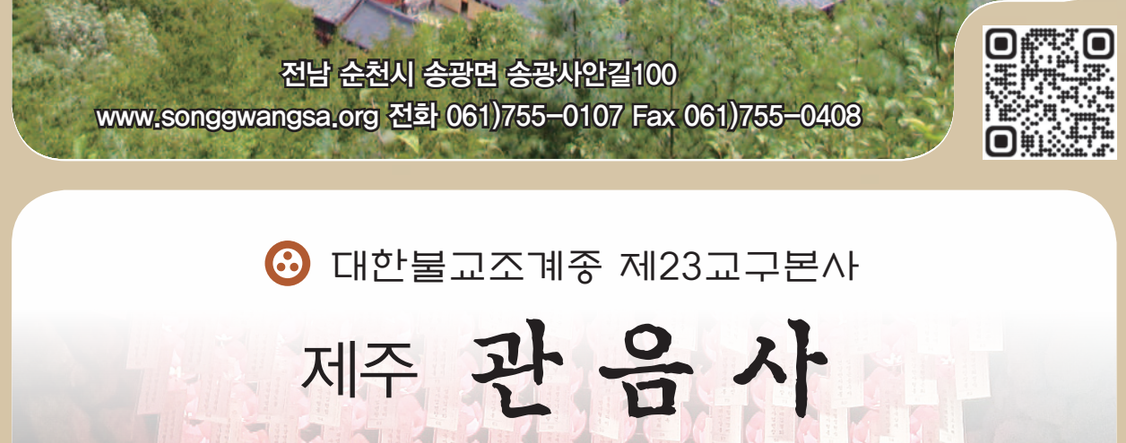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 광 사

방 장 편양 현묵

주 지 무지 무자

총림대중 일동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100
www.songgwangsa.org 전화 061)755-0107 Fax 061)755-0408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호국과 차의 성지, 다라니기도 도량

두륜산 대 흥 사

주 지 성해 법상

사부대중 일동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종무소 061) 534-5502~3 / 템플스테이 사무국 061)535-5775
www.daeheungsa.co.kr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제주 관 음 사

조 실 삼이 우경
회 주 탄해 혜민
주 지 무소 허운

교구·본사 신도회 김문자 회장 외 사부대중 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660
☎ (064)724-6830 Fax(064)756-2202 www.jejugwaneumsa.or.kr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 지 경 우

사부대중 일동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 승려노후수행마을
- 고창 푸드마켓
- 선운기초푸드뱅크
- 고창군 건강 ·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선운사 템플스테이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고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고창군 노인복지관
- 선운사 불교체험관
-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 선운교육문화회관
  - 고창 시니어클럽
  - 반야스터디 카페
  - 갤러리 리유 – 담마 북까페
  - 명상학교 '보리수 아래'
  - 공동육아나눔터
  - 고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참사람 수행도량

白巖山 白羊寺

주지 걸안 무공

사부대중 일동

주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http://baekyangsa.templestay.com 전화 061)392-7502 기도접수처 061)392-0100 팩스 061)392-2081

변화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

신뇨엔(眞如苑) 교무장
니시가와 세이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는 여전히 불안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큰 변화는 우리 곁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신뇨엔은 개조 이토 신조의 가르침에 따라 접심(接心) 수행과 이타행을 통해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해 왔습니다. 이웃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작은 나눔으로 마음을 모으는 일이야말로 '상락아정'의 삶입니다. 그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에서 피어납니다.

자비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멀리 퍼져 나갑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또 다른 이의 등불이 되고, 그 등불이 모여 어둠을 밝힙니다.

현 원주이신 이토 신소의 가르침처럼 모든 이가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서로 돌보는 융화 세계가 실현되기를 깊이 기원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기를, 그 길을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법화등불 온세상 밝혀라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암현 스님



靈山一會今猶在
久遠釋尊常說法
一念歸依法華海
娑婆卽是寂光土

영산의 한 법회는 지금도 이곳에 있고, 구원석존께서는 항상 법을 설하시네. 한 생각 법화의 바다에 돌아가면, 사바세계 그대로가 적광토이니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과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80주년을 맞아 사부대중과 함께 그 거룩한 뜻을 봉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탄생과 열반에 매인 것이 아니라, 법신의 광명으로 온 세상에 항상 머물러 계십니다. 부처님오신날은 과거 어느 날의 탄생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불지견이 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와 지혜가 다시 태어나는 날입니다. 내 마음속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모든 중생의 불성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넘치는 오늘날, 우리 종도들은 〈묘법연화경〉의 정법을 의지해 다툼 대신 화합을 앞세워야 합니다. 참회와 정진으로 이웃을 부처로 섬기며, 이 아름다운 영산정토로 장엄해 나갑시다.

공한 지혜 평화길 열리다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환희로운 부처님오신 날은 중생을 덮고 있던 무명 속에 밝은 지혜의 문이 열린 참으로 거룩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양극단에 치우친 집착이 모든 괴로움을 낳는 뿌리임을 꿰뚫어 보시고, 바른 관찰과 자비의 실천이 진정한 해탈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이셨습니다. 삼론의 가르침은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착각과 치우친 견해를 비우고, 텅 빈 공(空)한 지혜로 세상의 참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날 대립과 혐오, 갈등이 깊어지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흑백논리와 옳고 그름의 분별심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치우침 없는 중도의 눈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살펴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언제나 말과 행동을 바르고 청정하게 가꾸어 주십시오.

가정에는 화목을 도모하고, 사회에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며, 나아가 나라에는 평화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지혜로운 보살이 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부처님 세상 이루는 불제자

세계불교법왕청
대승정 목탁 스님



속이 비어 있는 나무로는 금당의 기둥이 될 수 없고,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듯, 허상과 자만, 과욕이 가득한 심성으로는 자애로운 부처님의 미소를 볼 수 없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미사여구를 버리고, 생활불교가 되어야 더불어사는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먼저 화합을 실천하는 선구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땀 흘리며 중생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구촌 모든 이들의 고통 없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협력, 화목, 평등, 포용, 그리고 자비심이 담긴 사랑이 있어야 이 땅에 평화가 존재합니다. 종교와 이념, 흑백 갈등을 초월해 인류를 위해 헌신하며 좋은 인연,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오신 불제자 모두에게 존경과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의 참뜻을 깊이 간직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루는 주역이 되시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선교일여 자비꽃 피우다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대륜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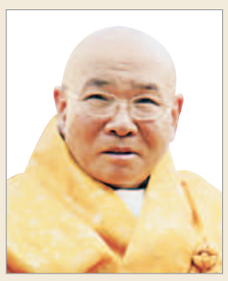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온 사부대중과 국민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왕궁의 화려한 안락을 과감히 떠나 생로병사라는 근원적인 고통을 마주하셨고, 마침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고해를 건널 수 있는 깨달음의 진리를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종단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선과 교가 결코 둘이 아니듯, 마음을 닦는 수행과 치열한 일상생활 또한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면을 밝히는 참선은 반드시 이웃의 아픔을 살피는 이타적인 자비행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아울러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숭고한 말씀은 머리가 아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을 얻습니다. 불자 여러분, 각자 머무시는 삶의 터전에서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연등을 환하게 켜고 세상을 따뜻하게 덥혀 주십시오. 차별 없는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가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발원합니다.

큰 깨달음 새 희망을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환희작약하며 봉축합니다. 모든 불자님과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무량한 평안과 복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것은 단순한 한 인간의 탄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짙은 무명과 고통 속에 머물던 뭇 중생들에게, 스스로 내면의 참된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알리는 위대한 우주적 소식입니다.

대각의 진정한 정신은 밖을 향해 헛된 복과 요행을 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의 묵은 어둠과 어리석음을 통쾌하게 깨뜨려 지혜롭고 주체적인 삶을 굳건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맹목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 다투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함께 나누고 공생하려는 대각의 원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일상에서 나누는 작은 친절과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곧 부처님께 올리는 가장 훌륭한 공양입니다. 사부대중 모두 다 함께 정진합시다.

자비심이 평화의꽃 되리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혜각 스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이 내마음의 물결에서 일어나니,성내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비의 미소를 지을 때 비로소 평화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연등은 단순한 불빛이 아닙니다.하심(下心)의 등불이며,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발원하는 서원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처한 갈등과 대립의 파도를 잠재우는 것은 오직 '무아(無我)와 상생(相生)'의 가르침뿐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비로소 이 땅이 곧 정토(淨土)요,오늘이 곧 부처님께서 오신 참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등불이 세상의 그늘진 곳을 고루 비추어,질병과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모든 생명이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기를 간절히 발원하며,우리 마음속에 자비의 씨앗을 심고 지혜의 물을 주어,향기로운 해탈의 꽃을 피웁시다.부처님의 가냘픈 미소가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청정승가 자비길 되다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진리의 빛으로 오신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법승 삼보의 크나큰 공덕과 가피가 온 세상에 두루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끝없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중생들의 마음속에 번뇌를 여의는 청정한 해탈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승가의 진정한 참모습은 단순히 세속을 떠나 산중에 머무는 형식적인 은둔에만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정법을 올곧게 받들어 고통과 절망에 빠진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세상을 바른길로 이끄는 데 승가의 참된 사명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불신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로움이 짙어지는 시대일수록, 불교는 중생이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그늘이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어야만 합니다. 불자 여러분, 스스로 계행을 맑고 투명하게 지키며, 그 청정함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참된 수행자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眞如苑 신뇨엔

이타행 90년,
새로운 100년을 향한 발걸음
6대주에 꽃을 피워 세계로 미래로

Shinnyo


신뇨엔 서울정사


신뇨엔 부산정사

▷ 신뇨엔 서울정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97길 46 / 전화 (02)719-6998
▷ 신뇨엔 부산정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7 / 전화 (051)892-6998
▷ 해외정사 및 포교소 : 24개국 48개 ▷ 집회소 : 51개국 930여개
▷ 한국정사 : 서울 · 부산 · 제주 · 창원 ▷ www.shinnyo-enkorea.or.kr

개시오입 법화길 나아가자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대한불교법화종 종도 여러분과 전국의 불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창종 80주년을 맞이하는 본종은 지나온 팔십 년의 공덕을 되새기며, 새로운 팔십 년을 향한 전법의 원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우리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창종 80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 모두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입시다. 한 사람의 마음에 법화의 씨앗을 심고, 한 가정에 평안을 전하며, 한 사회에 화합의 등불을 밝히는 일이 곧 봉축입니다.

수행등불 민생 비추다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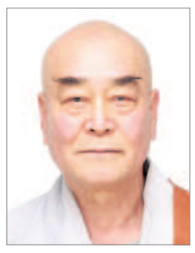


환희로운 부처님오신날, 세상을 환히 밝히는 오색 연등 아래 모든 국민과 사부대중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안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닿을 수 없는 먼 곳의 추상적인 이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현실 속의 뼈저린 고통을 덜어주고,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천의 길입니다.

저희 일붕선교종은 선과 교의 원융한 조화를 바탕으로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 전법, 그리고 이웃을 향한 자비와 나눔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껏 밝힌 봉축의 등불이 사찰을 넘어 어두운 세상 곳곳으로 널리 퍼져나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도 정견 화합을 이루다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불기 2570년 거룩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와 대자대비가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과 맹목적인 집착이 곧 모든 괴로움을 잉태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삼론의 위대한 정신은 굳게 닫힌 고정관념과 아집을 과감히 내려놓고, 치우침 없는 중도의 맑은 지혜로써 사물과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꿰뚫어 보는 데 있습니다.

이념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갈라지고 대립하는 오늘날, 불자들은 다름을 배척하기보다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깊이 살펴야 합니다. 참된 화합의 길을 활짝 열어가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화엄법계 평화꽃 피길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살아가는 존재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특히 화엄의 가르침은 우주 만유 가 서로 의지하고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는 연기(緣起)의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있고, 전체속에 하나가 있다는 화엄의 세계관은 오늘날 인류가 나아가야 할 평화와 공존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밝히는 연등은 지혜의 등불로서 공존과 평화의 빛으로 퍼져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은 희망으로, 대립은 화합으로, 미움은 사랑으로 바뀌어 가기를 간절히 발원 합나다.

원융자비 한마음 되다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환희작약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어느 곳 하나 막힘없이 통하는 원융무애한 부처님의 자비가 일체 생명에게 두루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와 너를 나누는 분별과 대립의 장벽을 넘어, 세상 모든 존재가 그물코처럼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연의 세계를 밝혀 주셨습니다.

원융의 진정한 가르침은 곧 나와 남이 결코 둘이 아니며, 한 사람의 눈물과 고통이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거룩한 과제임을 일깨워 줍니다. 물질적 편리함은 커졌으나 마음의 거리는 삭막하게 멀어진 현대 사회입니다. 하심하는 자세와 일상 속 따뜻한 실천합시다.

묵조선심 세상을 맑히다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지원 스님



거룩한 부처님오신날을 환희 봉축하며, 사부대중 모두의 내면에 고요한 지혜와 따뜻한 자비의 향기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밖을 향해 치달리는 마음을 거두어들이고, 스스로의 참모습을 맑게 비추어 보는 깨달음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희 조동의 고고한 선풍은 번잡함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밝히는 묵조의 수행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참된 고요함이란 세상의 아픔을 차갑게 외면하는 도피적 침묵이 결코 아닙니다. 맑은 묵조의 지혜를 품고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갑시다.

여래 자비 새날 열다

대한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중생을 구제하러 오신 여래의 크나큰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뭇 생명의 뼈저린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그 괴로움의 뿌리를 낱낱이 밝혀 완전한 해탈에 이르는 진리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참된 여래의 길은 세속과 동떨어진 높고 먼 산중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배려하며, 삶의 어려움 앞에서 서로의 손을 굳게 붙들어 주는 자비로운 마음이 곧 부처님의 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찰이 포근한 자비의 터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언광명 마음 깨우세

대한불교진언종
총무원장 혜천 스님



희망 가득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진언의 맑고 청정한 공덕과 부처님의 가피가 모든 불자와 국민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상에서 짓는 바른 말과 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행동이야말로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깨달음의 초석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향한 거친 언어와 섣부르고 빠른 판단이 깊은 상처가 되는 삭막한 시대입니다. 불자 여러분, 일상에서 무심코 뱉는 한마디 말 속에도 따뜻한 자비를 담아 세상을 환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모든 생명에게 두루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비 온누리 퍼지길

대한불교보문종
총무원장 인구 스님



환희로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관세음보살님의 무량한 대자대비가 일체 생명에게 두루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보문의 참뜻은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차별 없이 널리 듣고 그에 맞게 널리 응답하는 거룩한 자비의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짙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기꺼이 귀 기울이시고,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이, 육신의 병고를 겪는 이, 그리고 생활의 무거운 짐으로 지친 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맙시다. 그들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마음 씀씀이야말로 부처님 전에 올리는 참된 공양입니다.

대승원력 중생을 품다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투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대승의 굳은 원력이 온 세상에 널리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대승불교의 위대한 보살 정신은 나 혼자만의 해방과 안락에 머무는 소승적 한계를 벗어나, 뭇 생명과 더불어 깨달음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사윤회의 거친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튼튼한 자비와 지혜의 반야용선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불자의 길은 나의 얄팍한 평안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거룩한 보살행입니다.

자비 등불 밝히는 세상 되길

대한불교해인종
종정 만허 스님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생명이 존귀하며 서로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등과 대립, 욕심과 분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모든 불자와 국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과 수행으로 행복한 세상을 이루어 가기를 발원합니다.

일심으로 지혜등불 달자

대한불교금강종
종정대행 법산 스님



爲欲令衆生 除疑捨耶執
起大乘正信 佛種不斷故

위의 뜻은,중생들로 하여금 의심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리어 대승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불종자(佛種)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까닭이다.

친애하는 불자여러분,우리는 한마음(一心)으로 분별망상심을 갖지 말고 오로지 청정한 계행으로 수행정진할 때에 대각도 성불도 이룰 것입니다. 마음에서 부처님도 중생도 다 나왔습니다. 금년 부처님 오신 날은 지혜의 등불을 모두 달아서 복덕을 만인에게 베풀고 행복을 추구합시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조 실 밀운부림
교구장 호산
어산어장 인묵 학장 정원

총무국장 보관
기획국장 향성
교무국장 혜교
재무국장 성우
포교국장 해도
사서국장 무일
연수국장 청효

문화원장 성일
종책실장 덕산
문화국장 혜복
사회국장 법륜
호법국장 현묵
복지국장 현각

문화특보 혜공
정무특보 혜성
전법특보 묘수

사회특보 도심
복지특보 무일/최종환



부처님 법 전합시다

천년고찰, 부처님 법 전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부평리) /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사무실 : 031-527-1951~2 / 팩스 : 031-527-8568 / 종무실 : 031-527-1956

봉선사 산하기관 학교법인 광동학원(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 의정부 광동고등학교) / 연꽃유치원 / 사회복지법인 봉선복지재단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 복지관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 / 남양주 시 일시청소년 쉼터 / 남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구리 실버인력뱅크 / 구리 인창경로 식당/구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 구리시주간보호센터 좋은누리터 / 구리시주간보호센터 밝은누리터 / 구리시공동생활가정 아람터·한누리터/ 구리시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한 일터 / 구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해냄일터 / 구리시재활치료센터 아이누리발달지원센터

부처님 법 전합시다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바른 법음 새세상 열리다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종정 권한대행 혜운 스님



환희로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진리의 바른 법음이 시방세계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덧없는 삶의 괴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직시하게 하셨으며, 그 고통의 바다를 지혜롭게 넘어서는 정법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법불교가 걸어갈 길은 부처님의 금구명언을 깊이 존중하고, 이를 일상의 치열한 삶 속에서 오롯이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탐진치를 여의어 마음을 맑히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화합의 넉넉한 길을 열어갑시다.

큰 원력으로 세상을 밝히다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사부대중과 지역사회 곳곳에 부처님의 크나큰 자비광명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없이 넓은 대원력으로 고해에 빠진 중생의 고통을 굽어살피시고, 해탈을 향한 수행과 실천의 참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대원의 깊은 뜻은 개인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뭇 생명을 구제하겠다는 거룩한 큰 서원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으로 우리 경남 곳곳에 밝고 따뜻한 희망의 연등이 번져나가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청정 본성을 지켜야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



하나의 종교가 일어나 종지(宗旨)를 세운 후 그들은 여지없이 탐욕에 물들어 분파, 파종 되는 등 수없이 파벌이 번져나갑니다. 종권을 유지하려는 이른바 종교 전쟁을 일으켜 전 인류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나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께서 이것을 크게 염려하여 한마디로 주신 가르침이 身動心不動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라도 자신의 정신세계와 마음만은 청정한 자신의 본성(本性)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요 올바른 불자의 자세 일 것입니다.

스님한마음등불 세상을 잇다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환희작약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사부대중과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한마음으로 자비와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본래 티 없이 청정하며, 그 마음의 실상을 똑바로 직시하면 모든 괴로움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한마음은 삿된 분별심을 훌훌 내려놓고, 만물이 서로 얽혀 있는 인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미움을 녹이는 화해의 말과 아낌없는 선행으로 단절된 세상을 따뜻하게 잇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사회 만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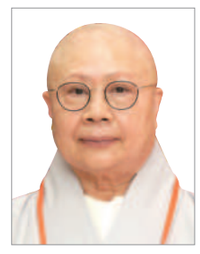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투신지 2570년이 되는 성스러운 날입니다. 인류의 스승이시며 뭇중생의 구원자이신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오며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간의 갈등으로 신음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금의 이러한 시기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따를 때 이 사회는 불국정토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에 희망을

불교정중연등종 이사장 도심 스님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 속을 헤매는 중생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의 참된 불성을 일깨우고자 이 땅에 나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숱한 갈등과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정성껏 밝히는 연등이 나와 가족을 넘어,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화합과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불교정중연등종은 늘 대중과 함께하며 자비행을 실천하겠습니다.

자비로 지구촌 평화를

대승불교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스님



화엄경에는 우리의 마음이 맑으면 온 세계가 맑아진다 실법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등과 분열, 불안과 혼란 속에 살고 있지만, 모든 해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면, 이 세상은 어둠을 열고 밝은 희망의 길로 나갈 것입니다.

전통법맥 오늘에 빛나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 혜봉 스님



부처님의 지엄한 가르침은 수천년의 오랜 세월을 지났으나, 그 진리의 뜻은 언제나 낡지 않고 새롭습니다. 불교의 전통은 박제된 과거에만 머무는 이름이 아니라, 어지러운 오늘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생생하고 튼튼한 뿌리입니다. 묵묵히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가원력 새 희망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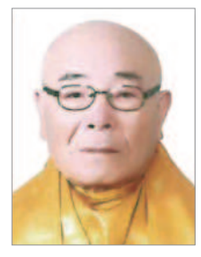
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성보 스님



출가 수행자인 승가의 굳은 원력은 산사에서 조용히 법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진리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는 이웃들의 곁에 든든히 서고, 번뇌에 지친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동체대비의 길에 매진합시다.

성불 진리는 가장 큰 행복

금강조계종
종정 법두 수암 스님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부처와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고 살아 갑시다. 이서로 화합하고 서로

청정계율로 청정세상을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닦는 여정이, 탐욕을 여읜 바른 생활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계율은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타락으로부터 자신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자비의 울타리입니다. 함청백한 삶으로 세상에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지혜로운 불자가 됩시다.

응공자비 고통을씻다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부처님은 지극한 존경과 공양을 받으실 응공이시자, 동시에 고통받는 뭇 중생을 향해 한없는 대자대비를 베푸신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봉축의 참뜻은 단순히 부처님을 찬탄하는 데 머물지 않고,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 내몫을 내어주는 실천에 있습니다. 메마른 세상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어 생명의 등불을 환히 밝힙시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화합의 정토를 열어갑시다.

보살행원 평화로 피다

대한불교대승조계종
총무원장 자운 스님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얻은 깨달음이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자비행으로 회향될 때 비로소 완벽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혐오와 갈등이 난무하는 각박한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화합과 용서를 선택하고,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희망의 등불을 묵묵히 나누어주는 실천하는 불자가 됩시다. 크나큰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밝히며 나아갑시다.

대승보살 세상을 품어라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관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중생구제를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생명이 윤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행복의 피안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일상의 작고 소박한 선행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배려로 삭막한 세상을 넉넉히 품어 안는 참된 보살이 됩시다. 넓은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韓國佛教太古宗

宗正 雲耕

宗正禮敬室長 東虛

僧正院長 錦龍
首席副議長 靑峰
次席副議長 慧雲
僧正 智山,雲岩,知足,智巖,修庵,雪雲,普經,南坡,三學,法蓮,圓峰,守敏,守悅,宗演,知足,慧雲,大隱

元老會議 議長 虎溟
首席副議長 智玄
次席副議長 性悟
議員 法京,能華,東佑,祥明,雲山,錦明,道光,觀正,會梵,慧周,雪峯,雪山,碧山,月峰,一雲,瑞峰

中央宗會 議長 法輪
首席副議長 圓日
次席副議長 慧祐

護法院長 九山
副院長 幻明
委員 晩愚,智行,月照,海雲,一住,圓悟,滿虛

初審院長 六和
副院長 杲峰
委員 哲悟,曉門,晩松,峻凡,眞空

中央選擧管理委員長 正雲
副委員長 智滿
委員 法一,智勤

總務院長 常眞
行政副院長 道惺
財經副院長 永範
總務部長 正眼
教務部長
財經部長 曉能
司書室長 道輝
文化部長 月陀
社會部長
弘報部長 法眞
糾正部長 眞華
比丘尼部長 現潭
校任·傳法師部長

教育院長 才弘
副院長 智觀
布教院長 能解
考試委員長 休完
法規委員長 智空
社會福祉院長
佛教文藝院長 松月
太古文化遺産傳乘事業團長 智虛

東邦佛教大學學長 法潭
教學處長 哲悟
韓國佛教新聞社長

全國比丘尼會長 玄仲
全國校任傳法師會長
全國信徒會長 圓覺
靑年會長 李正勳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예비 군승 요원 모집 안내

포교의 원력을 가지고 육 · 해 · 공군 각 부대에서
장병 포교에 진력할 예비 군승 요원을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조계종 승적을 소지한 스님 (예비 승적 포함)
– 4년제 대학 재학 중이거나 졸업, 혹은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스님
– 임관 당해 연도 연령이 만 35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스님
※ 단, 제대군인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세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함.

" 군종특별교구에서는 역량을 갖춘 군승 요원을 국방부에 파송하기 위해 예비 군승 요원을 선발하여 양성하고 있습니다.. "

■ **지원 및 구비 서류 :** 군종특별교구 홈페이지(www.gunindra.com)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군종특별교구 교육팀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안내 : 02-797-7266 (군종특별교구 종무실/교육팀장)**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호국불교총본산 국방부 원광사



참여와 도약으로 불교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화 02)3411-8103~4 www.kbhiksuni.org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장 산**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0길 87
목동 사무국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전화 (02) 765-2701 팩스 (02) 741-1385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며
모두의 염원을 담아 **평안**과 **화합**의 등불을 밝힙니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자지도자 네크워크
불교 리더스 포럼

상 임 고 문	김동건
고 문	김의정 김희옥 이인정 이윤희 이태영
상임지도위원	김진태
지 도 위 원	고유환 김기유 김춘순 박영기 부석종 양희구 윤현우 윤성이 이광재 장인화 전충렬 정병국 조용철 조현재 최 윤 최현국
자 문 역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종단·청불회 소통자문)
상 임 대 표	이기흥 제40,41대 대한체육회장, 전IOC위원
상임부대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청와대불자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불자회 부회장
법 조 대 표	이귀남 제61대 법무부장관
경제2 대표	김성섭 전 중소벤쳐기업부 차관
공 공 대 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장관
언 론 대 표	이용식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보건의료대표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체 육 대 표	정강선 전라북도체육회장
남 북 대 표	김형석 전 통일부차관
교 육 대 표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직능단체대표	이연화 (주)천마관광 대표
총 재 특 보	신상국 (주)아가방컴퍼니 부회장
감 사	이정하 하나손해보험 상임감사
국회정각회	이헌승 국회의원, 국회정각회장
경제1 대표	육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경제3 대표	이혁렬 에스폴리텍 대표이사
사회안전인권 대표	김창룡 주 캄보디아대한민국 대사
문화예술대표	김정배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금 융 대 표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군 대 표	구홍모 전 육군참모차장
환 경 대 표	정연만 전 환경부차관
대외협력 대표	선상신 아시아투데이 부회장
총 재 특 보	윤재연 블루원 대표
총 재 특 보	김종필 내일신문 편집국장이사
감 사	김정만 법무법인 지행인 대표변호사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나로부터 우리로
회향하겠습니다

회 장	김의정
고 문	김성림 성낙윤 왕선자 이경자 이연수 임완숙
지 도 위 원	고은숙 박남수 석진숙 이간난 최선리 함정은
수석부회장	이연화
부 회 장	강선자 고은숙 김규리 김문자 김영복 김영옥 김지윤 박숙자 박효신 백영선 유경숙 윤현순 이경연 이금석 이영미 이영숙 이옥분 이은임 이화성 임소영 조성애 조수자
감 사	연경희 유은순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8, 4층 | 전화 02)723-3330
팩스 0505)300-7277 | www.womanbuddhist.com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세상은 화합으로 마음은 평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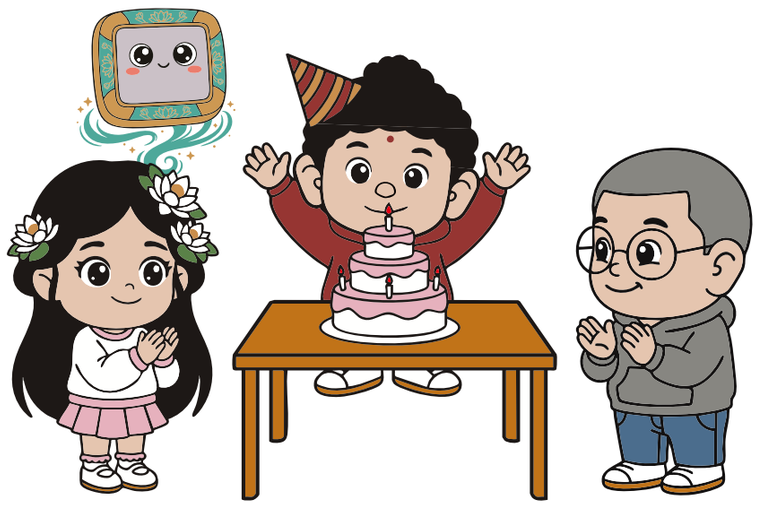


대한불교 천태종이
부처님오신 기쁜날을
함께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온 누리를 비추어
세상이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 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한국 정통밀교 종단입니다.

종령 지성 대종사 통리원장 록경 정사 종의회의장 인선 정사 사감원장 법일 정사 교육원장 원당 정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 전화 02)552-1080~3 | www.chongji.or.kr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 청 스님

사부대중 일동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미암길128
전화 041)832-1188 www.miamsa.com

불기2570(2026)년·진기80년 부처님오신날

"공감으로 하나되어 상생의 세상을 밝힙시다"



총 인 덕 일
통리원장 능 원
종의회의장 증 혜
현정원장 대 원
교육원장 정 법
총금강회장 일지정

대한불교진각종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17 전화 02) 913 - 0751 | 팩스 02) 913 - 0755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사)대한불교 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우리종도는 원융무애한 일원상의 진리를 스스로 체득한다.

圓滿融通 人格完成
우리종도는 원만 융통한 대인상의 인격을 수련 성취한다.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우리종도는 원통융화한 이상 사회의 실현에 적극 헌신한다.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우리종도는 원융회통의 참된 평화 세계건설에 이바지한다.

원융종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80-6 (구로동)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팩스 02)857-5094

※원융종 종도 여러분 사.암 등록증과 임명장,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 임명장, 승려증은 필히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삼론종

종 정 **혜승**

전계화상 **혜공** 승정원장 **진봉**
승정위원 **인봉 은곡 지운 지심 해불 지민**

총무원장 **남륜**	종회의장 **지경**	수선원장 **혜관**	교리연구원장 **보명**
총무부장 **도광**	종회부의장 **지화**	수선부원장 **자원**	삼론법보이사장 **지화**
교무부장 **성화**	사정원장 **지운**	포교원장 **해인**	
사회부장 **도일**	사정부원장 **성덕**	포교부원장 **지연**	
재무부장 **성혜**	교육원장 **법지**	문화원장 **응진**	
	교육부원장 **묘현**	문화부원장 **정연**	

각 교구 종무원장

서울·경기 교무원장	**묘현**
충북	**성각**
충남	**성현**
대구·경북	**지화**
경남·울산	**해산**
전라남북	**도암**
강원	**도광**

중앙종회의원
보명 묘현 혜안 지학 도암 묘법 성각 도광 성현 성화 지화 자원 지연 정연 혜암 해산 해인 성덕 법수

종도일동

총무원 주소 :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고길203번길 103 천용사 전화 043)878-0109

재단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 응 중앙종회의장 대 휴
교육원장 일 초 종무처장 양위찬(원당)
대본산 약사사(약사사추모관운영) 희망다문화 협동조합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이사장 화 응
공익법인 화엄종약사사장학회 이사장 화 응



(총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032)429-4441 FAX (032)429-4445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02)730-0798 FAX (02)730-0799

(財)韓國佛教 如來宗

총무원장 명안(총본산 회주)

원로원장 석산 종회의장 일연
행정부원장 혜안(성남 약사사 주지)
포교부원장 무극(용인 구만사 주지)
교육부원장 혜광(제천 도원사 주지)
호법부원장 도혜(횡성 여래사 주지)

전국 인왕 문도회장 묘선(영월 천운사 주지)

총무원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로1길 28-1 전화 043)731-2261



봉 불기2570년 부처님 오신날 축

지혜의 등불로 어둠을 밝히고 자비의 손길로 평화를 이룹시다

- 총무원장 혜 각
- 종회의장 법 만
- 종도스님 일동
- 총화인권위원회
- 불교전통문화계승단
- 총화종 비구니회
- 총화종 전법회
- 총화종 포교사단
- 총화종 신도회·사부대중 일동

(사)대한불교총화종

총본산(총무원)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죽촌로454-86 실상사
☎ 전화 (043)745-4508, 팩스(043)745-4506 ☎ 010-5436-2740

“자비 연기로 서로 살피길”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여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두루 비추어 모든 생명이 평화와 안락을 이루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갈등과 단절, 고통이 깊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비와 연기’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를 살피고 함께 나아가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로터스월드는 이웃불교 국가에서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비의 등불 하나씩을 밝히고 그 등불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큰 빛이 되길 기원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명상으로 세상 밝힙시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우리는 봉축의 등을 밝히며 서원을 세웁니다. 세계는 평화롭고, 대한민국은 더욱 부강하며, 국민은 안락하고, 사회는 화합과 따뜻한 인심이 흐르는 우순풍조 속에서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발원합니다. 등불 하나하나에 담긴 청정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듯, 부처님의 자비 광명은 이 시대의 불안과 갈등을 정화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대에는 선명상이 절실합니다. 선명상은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심을 굳건히 하며, 자기 중심을 회복하게 합니다.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가 각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동체대비의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 선명상은 가장 깊은 치유의 길이자 실천의 묘약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선명상의 실천이 함께할 때, 전쟁은 멈추고 평화는 실현되며,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조화롭게 발전하여 온 누리에 평화와 안락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원력 하나로 모아 조직화”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고 설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의 평화와 화합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맑고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올해 봉축표어처럼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이어질 때, 우리 사회는 다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의 부처님오신날만큼은 현재 마주하고 있는 모든 번뇌와 고통들로부터 벗어나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평안과 행복을 되찾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앙신도회는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 위에 새로운 천년의 문을 여는 주역으로서, 흩어진 불자들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조직화하고 그 힘을 결집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와 네팔에 이어 중국 선종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되새기며 올바른 정신과 수행문화를 바탕으로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정진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역량 집중”

윤재웅 동국대 총장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류는 불안과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화쟁의 정신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는 건학 120주년을 맞이하여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 온 동국의 120년은 한국불교 교육의 산실로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며 시대적 소명을 다해 온 뜻깊은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불자 양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더욱 매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불교중흥이 곧 동국발전’이라는 신념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밝히는 도량이자 세계 속에서 빛나는 명문사학의 위상을 굳건히 세워가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동국대가 삼보의 이름으로 더욱 빛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자비등불로 평화 정토를”

강의수 조계종 포교사단장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생명의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한 오늘, 우리는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나투신 뜻깊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거리마다 내걸린 연등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우리 마음속에 잠재된 불성을 깨우는 자비의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을 화려한 불상이나 경전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 그 땀방울과 미소 속에 부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부처님오신날, 이 거룩한 날에 서원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진이 모여 남북이 하나 되고, 세계가 평화로우며,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 포교사들은 사자후를 멈추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의 눈부신 연등이 되어 세상을 밝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행 실천합시다”

정구창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성평등가족부 차관이자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으로서, 부처님오신날의 뜻깊은 봉축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대 간 갈등, 경제적 불안, 그리고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가 한데 얽혀 많은 분들이 불안과 피로를 느끼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와 연기의 지혜가 더욱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불자 공무원은 부처님 자비와 지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보살행의 실천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헌신이 곧 부처님 가르침의 현현이라 믿습니다. 사회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이 시대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우리 사회 곳곳을 따뜻하게 밝혀 주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약자를 보듬으며, 함께 나아갑시다.

“국민 먼저 생각하는 정치”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된 인연의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공존이 가능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국회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대립과 정쟁을 넘어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치,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혜를 모으는 정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국회 정각회장으로서 부처님의 자비와 중도의 정신을 늘 마음에 새기며, 국민의 삶을 보듬고 사회 통합과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등불은 단지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니라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라는 깨달음의 빛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세계 평화 향한 기도 필요”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세대와 지역, 종교와 정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안정한 세계 정세까지 더해져 개인의 삶과 경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아, 기후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수많은 과제를 우리는 한마음으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문화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그 위상을 높여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 불교 전통문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불자들에게 큰 자긍심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우리의 발원과 기도가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작은 연등 하나하나에 우리의 서원을 담아 세상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사는 세상 만들자”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장



오늘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크고 작은 갈등과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여성 불자들은 부처님 탄신 이후 지금까지 가정과 사찰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헌신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 따뜻한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구현하는 실천적 모습입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 작은 배려와 아낌없는 나눔의 정신, 그리고 상대의 아픔을 함께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지금 꼭 필요한 세상을 밝히는 참된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간절함에 조금씩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차별과 갈등을 넘어 공존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 우리 모두 함께합시다.

“세상 밝히는 정론 서원”

윤호섭 한국불교기자협회장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사부대중과 함께 진심으로 봉축합니다. 부처님께선 2600여 년 전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는 중생들에게 스스로가 존엄한 지혜의 등불임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갈등과 분별심이 깊어지는 오늘날, 우리 불교 기자들의 소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현장의 치열함 속에서도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고 진실을 기록하는 일은 그 자체로 거룩한 수행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공양입니다. 우리는 정론(正論)의 펜 끝으로 세상을 맑히고,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화합의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 언론인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지혜의 목격자’로서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모든 불자님과 동료 기자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사)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

종정 벽산 암현 대종사

원로회의
의장 보명
(원로의원 일동)

총무원
원장 관효
(총무원임원 일동)

중앙종의회
의장직무대행 성림
(중앙종회 의원 일동)

전국교구종무원장
부산교구종무원장 용암
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경북교구종무원장 해월
전라교구종무원장 정각
김창교구종무원장 송열
강원교구종무원장 승일
마산교구종무원장 현진
제주교구종무원장 관행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92번길 17(성남동) 전화 02)762-2678 팩스 042)627-5044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진언종

총무원장 혜천
부 원 장 현초
원로의장 본자
종회의장 갑태

교육원장 도언
포교원장 도림
호법부장 마전
총무부장 송미숙
사서실장 임윤미

내부지역원장 효문
경기지역원장 광원
중부지역원장 현초

- 중앙신도회 -
중앙신도회장 김가령
여성신도회장 김미선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67번길 6 (전포동 204-19) 전화 051)809-5789 팩스 807-5780

대한불교대승종

종 정 동건 법경
부 종 정 법천 덕일
총무원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종회의장 진 각

연수원장 **법진** 포교원장 **법현** 교육원장 **진산** 고시원장 **진공**
강원종무원장 **영명** 서울종무원장 **감우** 경기동부종무원장 **진응** 경기서부종무원장 **보성**
경남서부종무원장 **진성** 충청종무원장 **진산** 전라종무원장 **덕운**
군산종무원장 **덕일**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진성**
사회부장 **제봉** 재무부장 **공민** 연화부장 **정혜**
총무부장 **지안** 호법부장 휴정 규정부장 **진성**

총본산 : 서울시 중구 다산로24길 85 흥도사
총무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796번길 62-12 천지암

(사)대한불교조동종

전종도 일동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264번길 39-59 우리정사
전화 031)575-9938

대한불교보문종

총무원장 인 구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성북구 보문사길20 (보문동 3가 168번지)
입문과정 02-928-3797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중앙종무기관 조직구성표

재단이사회

이 사 장 일 명
부 이 사 장 경 담
상 임 이 사 오 원
이 사 혜 천
법도화
현 소
선 우

종정 / 총무원

종정예하 대 륜
총무원장 혜 일

종정비서실장 지 명

원로회의

원로의원 혜천 현암
법성 법선
승원

중앙종회

종회의장 도정
종회의원 재단이사회
고봉석경
무착정암
서현보은
동철성운
혜성백운심
여래자
교구종무원장

종무위원

호계원장	동청	감사원장	법광
교육원장	지언	포교부원장	덕산
포교원장	지명	문화부원장	해동
문화원장	제법	총무부장	동심
기획추진위원장	지광	총무국장	보륜
선거관리위원장	붕원		

교구종무원장

경기남부교구 지 안
경기북부교구 지 흘
경 남 교 구 덕 운
대 구 교 구 무상심
울 산 교 구 현 산
전북·전남교구 지 명
제 주 교 구 제 법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고
평화와 행복이 연꽃처럼 피어나길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합장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 Tel : 02-991-8175, 8904 / Fax : 02-991-8176 / www.ilbung.org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그득하길 두손 모읍니다.

大韓護國佛教少林禪宗

● 종 도 모 집 ●

본 宗은 중국불교 1700여년 만에 중국숭산 소림사에서 처음으로 수계 득도한 외국 제자일 뿐 아니라 한국불교로서는 최초로 중국 선종의 법맥을 받은 유일한 전법 전수 제자인 석연화 종정이 소림사로부터 종명을 받은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에서 선불교 중흥에 동행하실 종도를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 033)761-3200

● 한국달마연구회 회원모집 ●

중국 숭산 소림사 한국 본찰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에서는 선종(禪宗)의 초조(初祖) 달마(達磨)대사의 선(禪) 수행의 심법(心法)을 연구 보존하기 위한 중국 달마연구회와 공동으로 연구 활동을 함께 할 한국달마연구회(학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 010-4813-6800

中國 嵩山 少林寺 韓國 本刹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찰 미륵산 용화사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지차골길 27 033)761-7008, 2556

(사)대한불교 금강종

총무원장 겸 종정대행 **법산당 영 봉**

총무원장 사서실장 **정 효**

승정원장 **월서** 원로원장 **원명**
교육원장 **해안** 포교원장 **덕산**
사정원장 **혜광** 문화원장 **혜일**
고시원장 **혜신** 수선원장 **능현**
복지원장 **법영** 비구니원장 **법신**
비구니부원장 **능현**
중앙종회의장 **법화**
중앙종회사무총장 **현우**

[각 지역 교구원장]
서울특별시 교구원장 **정심(서원암)**
부산광역시 교구원장 **해안(법정사)**
대전광역시 교구원장 **법신(내원암)**
대구광역시 교구원장 **정본(대각사)**
울산광역시 교구원장 **능현(옥련암)**
창원시 교구원장 **하연(만월정사)**
당진시 교구원장 **법성(유향사)**
충청남도 교구원장 **혜진(천본사)**
충청북도 교구원장 **자오(덕성암)**
경상북도 교구원장 **정암(정암사)**
전라북도 교구원장 **월서(삼불사)**
전라남도 교구원장 **혜신(남해사)**

(사) 대한불교 금강종 입종 안내문

◇ 구비서류:법복(가사+장삼) 착용한 사진 3매(여권사진),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수행이력서 1통, 소정의 입종비
◇ 교부서류:사찰 운영자는 주지 임명장,사찰 등록증,승려증, 사단법인 등록 허가증, 신도 년말정산 기부증서

총무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99-74(일성사) 전화 (042)935-2279 fax (042)935-2279
HP 010-3550-5153(총무원장 직통), 010-7547-2149(총무원 사무국장)

우리 중생이 웃고 행복해야 부처님이 웃으시고 행복하십니다

(사) 현대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성주, 혜원, 해인 대종사**
종 정 **동화 대종사**(보광사 주지)
총무원장 **화림**(월정사 주지)

각지역 종무원, 종회의원 및 종도 일동

◈ 입종서류 ◈

• 주민등록등본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신행 이력서

현대불교조계종 종단입종 환영합니다.

입종시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발행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청년불교, 새중불교, 한글불교

새한불교 해인종

www.haiinjong.org

종 정 만허 혜지
종정사서실장 법인 종정사서부실장 정오, 송담

원로위원 : 금광 금강 덕산 공덕 보리 청담 승공 담원

원로원장 : 혜 담 종회의장 : 도 원 총무원장 : 대 호
사정원장 : **법 인** 포교원장 : 정 오 유천도원장 : 지 완
교육원장 : 대 륜 비구니회장 : 보 원 불무도원장 : 보 각
법사단장 : 대 공 학술원장 : 운 곡 사무총장 : 자 륜

총무부장 : 송 담 총무국장 : **정 현** 교무부장 : 동 진 교무국장 : 덕 일
재무부장 : 도 경 재무국장 : 도 현 교육부장 : 인 봉 교육국장 : 도 운
기획부장 : 청 봉 기획국장 : 법 봉 사회부장 : 송 인 사회국장 : 혜 안
규정부장 : 해 원 규정국장 : 중 광 포교부장 : 보 광 포교국장 : 용 성
홍보부장 : 송 하 홍보국장 : 대 향 문화부장 : 지 홍 문화국장 : 서 진
의전부장 : 은 산 의전국장 : 선 재 봉사부장 : **성 원** 봉사국장 : **대 승**

총무원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443번 가길 88-4(주례동 낙은사)
전화 051)322-5918, 312-3777
이메일 jalun2545@daum.net 홈페이지 한글도메인 대한불교 해인종, 해인종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5대 임원진

제1세 대승주 **화산 월인(습득)** 대종사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 대승주 비서실장 **삼하 무착 명사** • 예경실장 **선타 혜인**

• 제15대 회장 **정산 청봉** 대종사
(사단법인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 회장 사서실장 **법궁**(불광사)

최고 원로의원
· **혜원 대종사** 한국불교선조계종 종정
· **해곡 대종사** (재)대한불교열반종 종정

법계고시 위원장
· **월성 대종사** (사)대한불교교종 종정

법계고시 위원
· **영월 대종사** 대한불교법사조계종 종정
· **무각 대종사** 대한불교통일조계종 종정
· **혜능 대종사** 대한불교법황종 종정
· **법흥 대종사** (재)세계불교미륵대종 종정

· **문화수석부회장** : **정림 대종사** 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정종 종정
· **행정상임수석 부회장** : **도우 대종사** 대한반야불교조계종 종정
· **운영수석부회장** : **정일 대종사**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종정
· **재무이사** : **혜승 대종사**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 **기획이사** : **도연 대종사** 대한불교성덕종 종정
· **해외협력이사** : **보검 대종사** 세계불교미륵이안종 종정
· **대외협력이사** : **영각 대종사** 대한불교유가종 종정
· **비구니원장** : **옥당 명사** 국제불교상좌부조계종 종정
· **상좌부이사** : **담마다나 대종사** 세계불교정법보시종 종정
· **홍보이사** : **청운 대종사**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종정

· **사무총장** : **이붕 서병열 대법사** · **사무국장** : 상광 **배영희**
· **대전회관 관장** : **선운 무공**

외 회원 일동

· **이사** : **법휴 대종사** 대한불교보리달마종 종정
월단 명사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지환 대종사 국제불교금륜종 종정
박청운 대종사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일웅 대종사 국제불교조계종 종정
법혜 대종사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동봉 대종사 세계불교육조조계종 종정
도원 대종사 (사)한국불교법사종 종정
혜원 대종사 한국불교법화종 종정
법하 대종사 대한불교신계종 종정
동해 대종사 세계불교일붕종 종정
능인 대종사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종정
현도 대종사 대한불교자비종 종정
선혜 명사 대한불교관법조계종 종정대행
도안 종사 한국불교일광조계종 종정대행

법인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748번길 45, 216호 전화 (042)285-1227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6안길 27 미근빌딩 4층 전화 (02)756-1227 **부경사무소** 불광사(경남 양산시 주진로 205) 전화 (055)364-4747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화계사

사부대중 일동

화계사 불교대학 6월 수강생 모집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 기본반(3개월) 6월 7일 개강
- 교양과정(천수경/3개월) 6월 6일 개강
- 선 · 명상 입문(10회) 6월 6일 개강

문의) 02-997-6469

온라인 접수 : 화계사 홈페이지, 불교대학 카페 공지사항 참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 02)997-6469 Fax 02)990-1885 www.hw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주 지 동민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35
Tel. 02)413-6060 www.bulkwangsa.org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사부대중 일동

현성정사 | 동도선사 | 사회복지법인 혜명 | 학교법인 청담학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선사길 278 ☎ (02)993-3161 Fax (02)993-3164 www.doseo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 주 계 호
주 지 법 해

사부대중 일동



부설기관
- (사)진관사수륙재보존회
- (사)진관사 지화장엄보존회
- (사)백초월스님 선양회
- 사.복)진관무위원
-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 진관지역아동센터
- 구파발어린이집
- 코끼리유치원
-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 진관사 템플스테이
- 진관사 불교대학·대학원
- 한문화체험관
- 전통문화교육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illegible]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달마사

회 주 진 화
주 지 일 행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50-26(흑석동) 전화 02)813-7425

법련사

수보종찰 송광사 서울분원

법 련 사

주 지 진 경
사부대중일동

법 련 사

주 지 진 경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10 bubryun5322@hanmail.net
☎ (02)733-5322 Fax (02)733-5379



부산연등회, 도심 밝힌 '상생의 연등'

부산불교연, 봉축연합대회 봉행
정오 스님 "자비로 아픔 치유"
하정선 염불공양회장에 공로패
시민과 함께 걷는 제등행렬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부산불교연합회는 5월 16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특설무대에서 '불기 2570년 부산연등회 봉축연합대회'를 봉행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 시민의 안녕과 세계 평화를 발원하는 지혜와 자비의 연등이 부산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는 5월 16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 특설무대에서 '불기 2570년 부산연등회 봉축연합대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석에는 연합회장 정오 스님,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삼광사 주지), 상임부회장 해진 정사(진각종) 등 대덕 스님들과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운집해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다.

회장 정오 스님은 대회사에서 "천지동근(天地同根)이요 만물일체(萬物一體)라, 세계는 일화(一花)"라며 참된 화합의 의미를 강조했다. 스님은 "최근 전 세계는 전쟁으로 인해 불안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죄 없는 이들의 목숨이 이유 없이 사라지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간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그 자비로움이 인류의 역사를 이어온 진리"라고 설했다.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대립과 갈등, 세계 곳곳의 전쟁은 인류 모두에게 큰 아픔"이라며 "연등의 불을 밝히는 것은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문을 열기 위함이며,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곧 화합과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당부했다.

이윤희 신도회장은 봉행사에서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는 부산연등회가 전통과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부산을 찾는 내외국인 모두가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대표 문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부산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는 연등 행사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기쁨을 시민 모두와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오늘 도심을 수놓을 연등 행렬이 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잠든 부처님을 깨우는 고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특히 행사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지역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펴 온 하정선 불교TV 염불공양회장에게 그간의 헌신적인 활동을 인정하고 원만한 회향을 치하하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하 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30년이 넘도록 불자 가정이나 무연고 영가의 장례식장을 찾아 염불 공양을 올리고 장례 일체를 지원하며 전국을 다녔다"고 회고하며 "새벽 일찍 출상하기 위해 가족을 뒤로하고 불철주야 함께 해 준 회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지켜주신 대덕 스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법요식 이후에는 부산영산재보존회의 탄생불 이운을 선두로, 사부대중이 다솜광장 주변을 행진하는 장엄한 제등행렬이 이어졌다. 행렬의 선두와 중간에는 거대한 용, 하얀 코끼리, 장엄한 석탑 모양으로 전통 한지를 발라 만든 대형 '장엄등'이 주위를 환하게 밝히며 장관을 연출했다.

부산여성불자회, 불자 청소년에 장학금

중 · 고등학생 20명에 800만원
인도 분황사 지원금 1000만원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정분남)가 지역 불자 청소년들의 학업을 격려하고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5월 12일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회의실에서 '2026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이날 금정중 3학년 안동현 학생을 비롯해 중학생 10명에게 각 30만원, 고등학생 10명에게 각 50만원 등 총 20명의 파라미타 청소년 장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부산여성불자회 총재 혜총 스님은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를 기원하며 "장학금의 참된 목적은 훌륭하게 성장하여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라는 데 있다"고 격려했다.

정분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늘 꿈과 희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훗날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수여식에서는 인도 부다가야에 위치한 한국 사찰 분황사에서 수행 중인 스님들을 위해 1000만원의 지원금도 전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일불교교류協 여성부, 봉축 만발공양

송상현 광장서 3000인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 도심 한복판에 차별 없이 누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무차만발공양'의 장이 펼쳐졌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는 5월 10일 송상현 광장에서 부산 시민과 불자들을 위한 무차만발공양을 개최했다.

백 회장은 "비가 오면 시민들이 불편할까 싶어 열흘 전부터 매일 일기예보를 확인하며 날씨에 맞춰 3000인분을 준비했다"며 "전문 인력과 회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준 덕분에 오랜 노하우로 원활하게 대중 공양을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이 따뜻한 행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물들인 '태화가람대축제' 성료

5월 8~10일, 시민과 함께한 축제



울산 시민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태화가람대축제가 성황리에 마쳤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는 5월 8일부터 10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에서 '불기2570년 울산 태화가람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기존 봉축 연등축제를 확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불교문화축제로 마련돼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봉축위원장 혜원 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의 광명이 울산과 대한민국, 세계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마하사 토지수용 또 '승소'

부산지방법원, 5월 14일 판결

부산 마하사(주지 대방 스님)가 황령산 전망대 조성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천종호 판사)는 5월 14일 마하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24년 12월 5일 수용재결한 마하사 사찰림 2개 토지가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동의 없이 수용된 것은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앞선 2월 12일 마하사 사찰림 5개 토지 4900여㎡에 대한 수용재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화엄회 "의료진 응원이 곧 환우 치유"

5월 14일, 부산대학병원서
24년째 이어진 자비나눔
병원 직원 1650명 위문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부산비구니 화엄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병원에 따뜻한 자비 손길을 전했다.

부산지역 비구니 스님들의 자비 봉사 모임 화엄회(회장 묘선 스님·전국비구니회 부산지회장)는 5월 14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자비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화엄회는 수건과 떡, 음료 등 정성껏 구성한 위문품 1650인분을 병원 측에 전달했다. 행사에는 회장 묘선 스님을 비롯해 총무 성안 스님, 재무 선초 스님, 교무 휴담 스님, 부산대병원 불교법당 담당 성봉 스님 등 임원진이 참석해 자비행에 동참했다.

그간 화엄회는 조를 짜서 직접 병실을 돌며 환우들을 위로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 예방과 환자 보호 차원에서 병실 라운딩이 전면 제한됐다. 이에 화엄회는 봉사의 방향을 전환했다.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과 관리부서 직원들을 위문키로 한 것. 환자의 치유 환경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이들을 격려해 환자들에게 따뜻하고 질 높은 보살핌이 돌아가게 하는 이른바 '간접적' 자비 실천이다.

화엄회 회장 묘선 스님이 부산대병원 관계자에게 떡과 수건, 음료 등이 담긴 위문품 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회장 묘선 스님은 "예전에는 스님들이 조를 짜서 두 번씩 병실을 돌며 직접 환우분들을 뵙고 위로를 건넸지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불교법당을 찾아오시는 분들과 애쓰는 의료진들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직접 뵙고 전달하는 방식은 바뀌었지만 작게나마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며 "환우분들 모두 부처님 같이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루빨리 속득쾌차(速得快差)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사)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종정대행)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원로원장 혜윤 조허(금강사)
종회의장 백봉 성관(대성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교육원장 설산 능인(보광사)
규정원장 일초(상주 연화사)
고시원장 자혜 수봉(대광사)
호법원장 덕현(성현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문 화 원 장 일락(중산정사)
총무부원장 선행
포교부원장 혜원
교육부원장 법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전화 02)762-2459 팩스 02)742-2344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묘 장**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3길 56(회기동 109-1)
☎ (02)962-6186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누리에 가득하길

대한불교조계종

개화산 약사사

주 지 **범해 스님**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7길 261 약사사
(02)2662-2551, 7551

108평화기도도량

수락산 도안사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회 주 **선묵 혜자**

사부대중 일동



주소 서울시 덕릉로129길 전화 02)936-5936

대한불교조계종

장 안 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나길 21-2 ☎ (02)832-7165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정혜사

사부대중 합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269-22 ☎ (02)903-8019





신축 템플스테이체험관 투시도(안)

벽 암 지 홍

법회 및 기도 안내

일요법회	매주(일)10:30
호법법회	매월 첫째주(수) 10:30
초하루신중기도	매월 음력 초하루 10:30
지장재일기도	매월 음력 18일 10:30
다라니기도	매월 넷째주(금) 19:00

유관기관 안내

행원 사회적협동조합
보리수 지역아동센터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시립 하안누리어린이집
시립 새론어린이집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YouTube 금강정사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 주소 경기도 광명시 설월로58(소하동) | www.sejon.org 전화 02)898-8200 | 팩스 02)898-1844

전국 연등 물결…“화합·상생 발원”

지역 불교단체들 연등문화축제 개최 잇달아

홍승도 · 양행선 · 조동제 · 김선행 · 이동격 지사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연등문화축제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빛고을 관등회, 수원 연등회 현장.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부처님오신날 연등문화축제가 열렸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5월 9일 5·18민주광장에서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주제로 ‘2026 빛고을 관등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오후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관등법회, 연등행진, 대동한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밝히는 연등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며, 중생의 고통을 비추는 자비의 등불”이라며 “작은 발원과 실천이 모여 화합과 상생의 길을 밝히는 큰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등법회와 점등의식 이후 진행된 연등행진에는 운전불자회를 선두로 광산농악과 취타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의 여래공심불, 각 사찰 장엄등, 정광중·고등학교 학생과 불교단체 회원 등 30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형형색색의 전통등을 들고 가족과 지역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며 도심을 행진했다.

구례불교연합회(회장 우석 스님)는 5월 10일 화엄사 입구 냉천삼거리 광장에서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주제로 봉축점등식을 봉행했다.

점등식은 명종 5타를 시작으로 불교의례, 화엄사연합합창단 축가, 후원금품 전달, 인사말과 축사, 발원문 낭독, 점등, 탑돌이,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연합회장 우석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와 이웃을 비롯한 세상의 만생명이 하나 되는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연 스님)는 5월 9일 군산 수송체육공원에서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문화축제’를 봉행했다.

연합회장 도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상생과 평화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등을 밝히는 이유는 인류 평화와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군산 시민과 함께 진리와 희망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라며 “천지동근 일체만물, 즉 하늘과 땅의 뿌리가 같고 세상 만물은 하나라는 불가의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생명체가 서로 상생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경산 연등문화축제가 5월 9일 경산실내체육관 온마루광장에서 성황리에 봉행됐다.

경산불교총연합회(회장 선웅 스님)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라는 봉축 표어 아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전국 곳곳에 퍼지기를 발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합회장 선웅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세상을 밝히는 연등문화 축제를 열고 점등식을 하는 이유는 어둠을 밝힌 연등 공덕이 온 세상에 회향돼 모든 중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은해사 주지 성로 스님은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자비의 실천, 그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연기의 통찰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가치”라고 설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점등식에서는 참석자들이 함께 ‘불·법·승’을 외치며 대형 장엄등에 불을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발원했다.

수원시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수진 스님)는 5월 9일 수원행궁 일원에서 열린 ‘수원 연등회’를 열고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이날 연등회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수원사암연합회 고문 월장 스님은 봉축사에서 “연등의 불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자비와 화합의 빛”이라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시민들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깃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축사를 통해 “연등의 빛은 시민 모두의 희망과 공동체 정신을 상징한다”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원주불교봉축위원회(회장 해공 스님)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원주댄싱공연장 일원에서 ‘제56회 전통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하고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10일 봉행된 봉축법요식에서 원주불교사암연합회 고문 현각 스님은 법어를 통해 “어려운 시기일수록 타인의 아픔과 괴로움을 함께하는 것이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이라며 “본래의 자신을 돌아보며 탐욕과 분노를 없애고 하나가 되자”고 당부했다.

봉축위원장 해공 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 깨달음과 동체대비 행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춘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월중 스님)는 5월 9일 춘천 소양로 칠층석탑 역사문화공원에서 ‘불기 2570년 봉축점등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불교계와 기관단체장, 시민 등 사부대중이 대거 동참해 봉축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청평사 회주 도후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우리가 밝히는 등불은 지혜와 자비의 등불이어야 한다”며 “이 등불로 세상은 더욱 평화로워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오실 것”이라고 설했다.

연합회장 월중 스님은 봉축사에서 “오늘 우리가 밝히는 등불은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겠다는 간절한 서원”이라며 “이 서원으로 갈등과 반목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강경봉찬기도회, ‘오대천 살리기’ 나섰다

5월 9일 금강연서 방생법회



월정사 신행 결사체인 금강경봉찬기도회가 한강 발원지인 금강연에서 생명 살림과 생태 복원을 위한 대규모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금강경봉찬기도회는 5월 9일 한강 시원지 금강연에서 ‘금강연 수륙방생 대법회’를 열고 오대천 생태 복원을 발원했다. 이날 금강연 방생에서는 금강모치와 꺽지, 돌고기, 미유기, 새코미꾸리, 참갈겨니, 퉁가리, 가는돌고기, 대륙종개, 쉬리 등 2만여 마리의 토종 어류가 방류됐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온 세상의 자비심을 본래의 자리로 돌리는 것, 모든 생명이 하나의 빛으로 연결돼 함께 빛나는 것이 곧 방생”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석 강원대 교수는 ‘오대천 열목어 개체수 증가에 대한 경과보고’를 통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월정사 스님들의 노력과 금강경봉찬기도회의 지속적인 오대천 살리기 활동이 현재의 복원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동화사 ‘성불놀이터’로 어린이법회 170명 입회

5월 3~5일,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 진행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가 5월 3일부터 5일까지 경내에서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체험형 프로그램 ‘성불놀이터’가 큰 호응 속에 성료했다.

동화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익힐 수 있도록 ‘성불놀이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2박 3일 동안 3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70명이 동화사 어린이법회 입회 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동화사 관계자는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마음수행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형 포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선운사, 35보병사단 장병 수계·점등법회

5월 9일 호국 충경사서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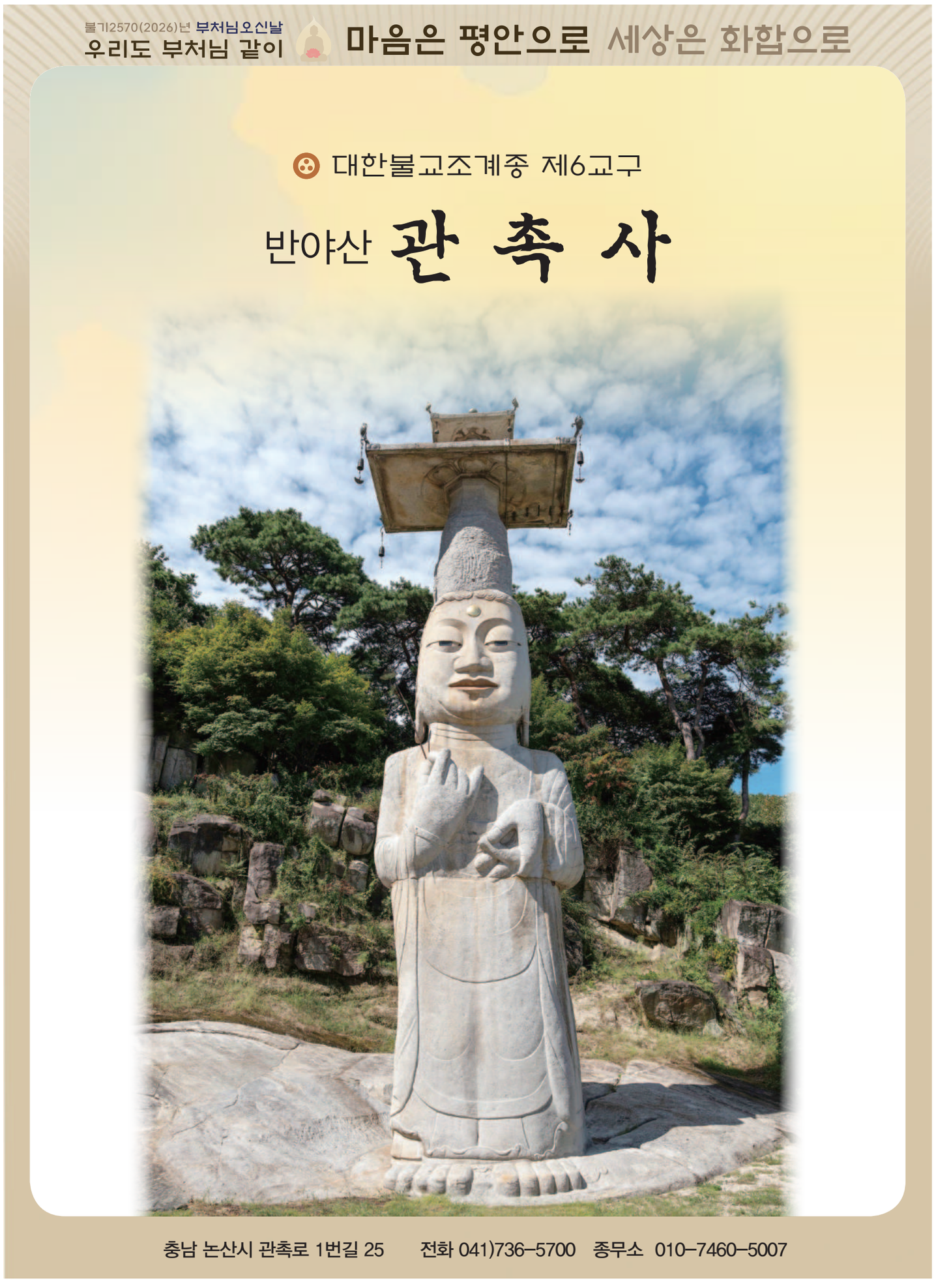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5월 9일 제35보병사단(사단장 김광석 소장) 호국 충경사에서 장병 수계식과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주지 경우 스님,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등을 비롯해 정찬원 선운사 총신도회장, 김광석 사단장, 박종철 금강회장(신병교육대대장), 군승 법현 스님과 장병 600여 명이 참석했다.

전계사로 나선 경우 스님은 “계는 스스로를 지키는 든든한 갑옷과 같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군 생활 속에서 참된 용기를 길러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주 지 **석 산 성 행**

부주지 **명원** 총 무 **명법**
재 무 **명종** 노 전 **정타**
포 교 **명수, 명호** 신도회장 **자연**
포교사 **수인** 부 전 **정완, 광륜**

사부대중일동



부설 : 의왕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녹향원,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
주소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종무소 전화 031)426-2348, 2221 팩스 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성남 봉 국 사

사부대중 일동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로 79(태평동) www.bongguksa.or.kr
전화 031)755-0329, 721-0329 Fax 031)722-3761

대한불교조계종

수 원 사

회 주 **세 영**
주 지 **보 선**

사부대중 일동

화엄경봉독대법회
2025년 5월 24일~2027년 7월 17일
매월 첫째, 셋째주 토요일 오후1시~3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00
☎ 031)245-9670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동탄 용 화 사

회 주 **성 직**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화성시 금곡로193번길 55
☎ (031)372-7050



대한불교조계종 **현존 最古사찰 지장도량**

삼랑성 傳 燈 寺

회 주 **학농 장윤**
주 지 **여암**



정기 법회
초하루 법회
지장재일 – 합동천도재 및 만년위패 봉안식
관음재일 – 예경문 독송
일요법회, 어린이법회

전등사 유튜브 '전등사TV' 운영
구독과 알림설정으로 어디서든
온라인 법회에 동참이 가능합니다.

마음의 등불 대한불교조계종 전등사 주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홈페이지: jeondeungsa.org 이메일: 9370125@daum.net TEL: 032)937-0125 FAX:032)232-5450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광제사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주지 겸 관장 **현 우**

사부대중 일동



세종특별자치시 모룽지로 94
광제사 전화 044)850-3190 / 세종전통문화체험관 전화 044)850-3100

천안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만수사 **도언**
원로의장 각원사 **대원**

원로의원
광덕사(광덕) **철웅**, 천불사 **인경** 약천사 **인봉** 용화사 **지용** 연대선원 **지현**

부회장
도광사 **도공** 무애사 **광현** 고불사 **능엄** 쌍용선원 **자장** 정화사 **경천**

감사 광덕사(동면) **혜광** 교무 덕흥사 **선영** 포교 안양암 **탄형** 재무 극락정사 **일양**
총무 태학사 **법연**

동남경승실장 승천사 **원공** 서북경승실장 도광사 **탄문**

광명사 **명현** 만경사 **보운심** 보문사 **문성** 천왕사 **일로** 무운사 **지현**
보문사 **능학** 성월사 **고우** 황룡사 **도훈** 광안사 **유원** 문수암 **주봉**
보열사 **진성** 연화정사 **묘선** 성불사 **법두** 천안사 **보현** 대원사 **일면**
보명사 **활암** 복전사 **연정** 베트남사찰원오사 **틱뜨엉탄** 태국사찰 붓다라마 **찌라삭**

사암연합회 주소: 천안시 동남구 용곡1길 54 만수사 전화: 041)552-9256

대한불교조계종

성불사

고려시대 마애석가삼존
16나한 기도성취도량

회 주 **취성 원경**
주 지 **법두**

사부대중 일동



충남 천안시 성불사길 144(안서동) 041)565-4567

한국 스리랑카 마하위하라 사찰

아산 마하위하라

주 지 **담마끼띠**

사부대중 일동

사리진견법회
31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면로 297
전화 : 041)544-0106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정사 불교문화원

선명상 지정사찰

주 지 **선 중**
회 주 **적 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6길 42 (구,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29-1)
044)865-0113

대한불교 도광사

주 지 **탄 문**

신도회
거사림회
관음회봉사단
문화와 해설이 있는 성지순례단
불교아카데미

사부대중 일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6길11 (041)555-8548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천태종

천안 만수사

주지 도언

신도회장 이운칠 외 간부일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1길 54
전화 041)551-8256 팩스 041)551-1003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일체제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대행선사 법어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전화 043)877-5000 팩스 043)877-2900

대한불교조계종

천안 무애사

"광현스님의 사찰음식"
자연을 담은 사찰음식, 스님이 빚어낸 깊이

주지 광현

사부대중 일동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대추1길 36
전화 041)568-0361

한국불교태고종

청양 금역사

주지 천명

매년 청양군민과 함께하는 무료한방진료

사부대중 일동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갈마동길 49-57
전화 010-6601-9400

자비실천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보문산 형통사에서 부처님 오심을 봉축합니다.

대전지역 최고의 신행 포교 사찰

보문산 형통사

주 지 용 담
종무실장 지 우
신도회장 무위재

신도일동 합장



대전광역시중구 보문산공원로 497번길 81-10 전화 042)225-3778

대한불교조계종

세종 영평사

조계종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주지 환성

영평사 어린이회/영평사 불교대학/영평사 청년회

사부대중 일동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영평사길 124
044-857-1854



대행 스님

마음의 촛불 하나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밝힌다

또 한 해가 지나가면서 부처님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이날을 맞아 우리는 밖으로 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을 탄생시켜 준 부모의 은혜와 법의 부모의 은혜도 둘이 아니게 갚기 위해서 항상 각자 마음에다 관(觀)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와 중생들이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육의 부모들도 자식과 둘이 아닙니다. 그걸 볼 때 우리의 생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낳아 주시고, 또 뜻을 일러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기리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촛불 하나라도 켜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의 부모도 육의 부모도 둘이 아니게 한 마음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관하면서 촛불을 켜신다면 그 촛불이 바로 바깥으로는 형식이 되지만, 형식만이 아니라 정성이 되고 안으로는 진짜 촛불을 켜는 것이 됩니다. 마음의 촛불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월 초파일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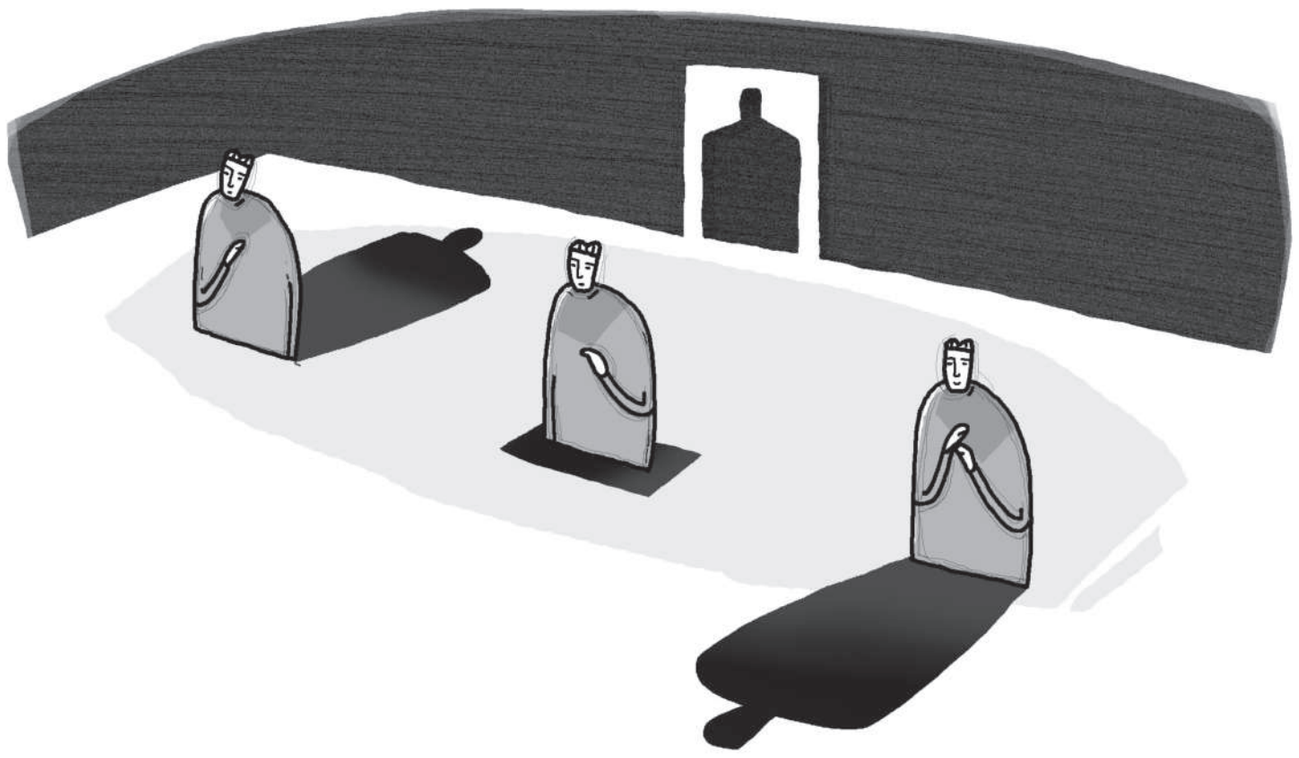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팔상성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도솔내의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하항마상, 녹원전법상, 쌍림열반상 이렇게 여덟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여덟 가지로써 부처님께서 수행하신 모든 과정과 그 시대에 간곡하게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기리면서 우리는 수행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무 사유가 둘 아니게 일대사의 인연을 맺으셨다'고 한다면 팔상성도의 그 여덟 가지 문제를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써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는 자체를 뼈 한 무더기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생자부라고 하는 그 뜻도 역시, 항상 들어서 아시다시피, 태로 나고 알로 나고 화해서 나고 질척한 데서 나고 하는 사생들을 모두 자기 아님이 없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 아닌 게 없이 했고, 자기 아픔 아닌 게 없이 했고, 자기와 더불어 같이 한도량에 있는 것을 제시했고, 또 모든 것을 둘 아니게 흡수해서 인연을 지으셨으니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불가에선 나유타 겁이라고 합니다마는, 나는 광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돼 보기도 하고 자식이 돼 보기도 하고 형제가 돼 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면서 자기 근본으로 인하여 진화를 해서 바로 형성되고 또 진화되고 형성되고 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 업적이 얼마나 컸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볼 때, 우리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공기 바깥을 벗어날 수도 있고 바로 수억겁 광년을 거친 그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미래로 돌아갈 수도 있고, 현재 또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인생살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공부를 함으로써 바로 그 뜻을 잘 파악해서, 바깥으로 그 탄신을 기리고, 팔상성도를 이름으로 기릴 게 아니라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항상 직결돼 있다는 사실을 믿고 행한다면 그것이 곧 실천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팔상성도를, 그 태어나고 그런 과정에 대한 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알면서 바깥으로 끄달리면 아니 되겠죠. 그건 왜냐하면 부처님의 마음은 내 마음과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너부터 알아야 내 마음도 알아서 둘이 아니게 되느니라. 그래서 일체 사생이 너와 더불어 둘이 아니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고로 이것은 내 마음의 부처님을 항상…, '주인공' 하면은 벌써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부모도 법의 부모도 일체 가정의 모든 분들도, 한 식구 한 형제라 할지라도 앞에 닥치는 대로 걸리는 대로 거기다 놓고 합류시켜라. 하나로 만들어라. 동일한 한마음으로 결부를 시켜라. 그렇게 된다면 걸림이 없어서 어떠한 난국도 대치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그저 요만한 걸 보면 보는 대로 걸리고, 들으면 듣는 대로 걸리고, 남이 울면 울어야 하고 웃으면 웃어야 하고, 나하고 더불어이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원숭이같이 따라간다면 그건 진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은 99%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1%를 넘지 못해서 우리는 중생으로 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공했다. (팔을 짚으시며) 이 보이는 게 공했다. 공한 것이 색이고 색이 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항상 여러분한테 제가 말을 해 드리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서 그냥 찰나찰나 듣고 넘어가고, 보고 넘어가고, 하고 넘어가고, 만나고 넘어가고, 움죽거리고 넘어가고 이렇게 그냥 걸음을 걸어오면서 그저 떼어 놓을 뿐이지 앞뒤가 없다." 하고요. 육조 스님이 말했듯이 우리는 지금 함이 없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도 이것 보고 저것 듣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거 이르고 저거 이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러지 고정된 게 하나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과거로 흘러가고 흘러가고 이러는데 거기에 무슨 애착이 붙고 뭐가 붙을 게 있어서 그렇게 업을 짓습니까? 잘된 업을 지어야지 못된 업을 짓는다면 아니 될 뿐 아니라, 잘된 업도 못된 업도 둘 아니게 그냥 놓고 넘어가야 마음공부에 직코스로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생일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생일이 돌아오면은 한 상 받고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나를 형성시킨 장본인인 법의 부모와 몸을 빌려서 나를 낳아 준 육의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나오는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엔 그런 것도 없었지만, 여러분이 근래에 뭐를 갖다 주면 저한테 좋은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부모의 같은 자식, 나도 역시 똑같이 한 법의 부모의 자식으로서 그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고맙고, 허허허.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공부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고마워요. 왜냐하면 내가 잘 배웠다면 내면 속에 들어 있는 이 광대무변한 뜻을 영 몰랐을 테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마음공부 하는 데 유식하게 잘 배웠고 못 배웠고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월 초파일이 돼서 촛

☞ A28면으로 계속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www.bongeunsa. org
TEL 02)3218-4800 FAX 02)544-2141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부와 자가 상봉을 해야만 저승의 공부를 한다

☞ A27면에서 계속

불을 켜시더라도 육의 부모와 법의 부모가 둘 아니게 켜야죠. 내 주인공이 법의 부모니까요. 그래서 불가에서 이렇게 말하죠. "부와 자가 상봉해야만이 저승의 공부를 한다. 보이지 않는 정신계의 공부를 한다."라고요. 부의 손을 잡아야만 자는 바로 무의 세계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봉치 못하면 아니 되는 거죠. 법의 부모란 나를 형성시켰고 또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자기의 근본 뿌리인 불성입니다. 불성 자체가 바로 자기의 원래, 법의 부니까요. 육신을 낳아 준 이는 육신의 부모구요. 그것은 내 근본의 법의 부모로부터 그 육의 부모를 빌려서 낳은 거지 내 영원한 그 자체의 불성이 아니었더라면 그 부모도 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유정이 있어야 무종이 있단 얘깁니다. 무종이 있어야 유정을 생산해서 이 공간에 모두 천차만별로 생명들이 살게끔 하는 것이죠. 그 생명들이 살지 않는다면은 무종도 없죠. 그러니까 유정, 무종이 둘이 아니게끔 항상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사월 초파일에 나의 주인공인 법의 부모와 육의 부모를 둘 아니게 촛불을 켜 드린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촛불을 안 켜도 그거는 우주 법계에서 다 알고 있게 됩니다. 마음으로 자기가 알고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알고 그렇게 한 까닭에 현재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알면서도 그렇게 행을 안 한다면 그거는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입니다.

자기 불성이 여러분한테 자기가 진짜로 있다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불성이 여여하다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불성이 갖추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불성이 만법을 들이고 낸다고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것은 불성인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움죽거리고 산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불성을 믿어라 하는 겁니다. 자기 불성이 아니라면 자기 육신도 없을 테니까요. '자기 불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 있는 거니까, 자기가 살아 있다는 것이 바로 자기 불성이 있는 증거라는 걸 알고 그 불성을 믿고 거기다 의지를 하고 즉시 거기다 모든 걸 놔 버리는 것이 현명하다. 불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불성이 있어서 내가 있으니까 나는 불성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러는 반면에 불성은 여여하게 돌아가게 한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겁니까?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면서도 마음에 걸려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게끔 이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가 걸려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여하다고 말은 안 했어도 자기 불성이 있어서 여여하게 살게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면서.

그리고 또 모두가 다,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천차만별의 작용을 그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갖추어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직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갖추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보면 들이고 내고, 들으면 들이고 또 내고, 항상 이렇게 들이고 내고 들이고 내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증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만법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들이고 내는구나! 누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말도 없고 걸림도 없이 그렇게 들이고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라 몸뚱이 속의 의식들이, 인과성,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이 모두가 얽혀서 마음을 통해서 자꾸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욕심을 부리게 되고, 또 그걸 버리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생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그냥 현실에 나오는 거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생각에 의해서 팔자 운명을 버리지 못한다고요. 팔자 운명을 자기가 좌우하는데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 때문에 저렇게 어렵게 산다고요. 사실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가질 게 없어요. 그저 밥 주면 밥 먹고 똥 마려우면 똥 누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그냥 이러면 되지, 그렇게 짜드리 내가 가져야겠다 하는 욕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태산을 벌어다 놨어도 이건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저 자기 거라고 하질 말고 주인 거라고 생각해서 다 탁 털어 버리고 그냥 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짜드리 나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데 쓰일 일도 없고 꼭 쓸 데다가 써지고 남한테 꾸러 안 가니 얼마나 여여하고 좋은 일인데, 꼭 욕심을 부려서는 흠집을 만들어 가지고 돈이 나가게 하고, 허허허, 돈 잘못 쓰게 하고 자기 몸 상하게 하고 식구들 수대로 애타게 하고, 이게 뭡니까?

부처님이 행하고 나오신 그 과정을 볼 때에 어저께 없는 오늘이 없다고 봅니다.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대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부처님이 나시기 이전에도 지금 마음공부 하시는 여러분과 같이 보살행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는 요다음에 나가서 석가가 되거라." 했다는 사실이죠. 그거는 자기가 해서 자기가 가지고 나온 거지 누가 주고 뺏어 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어진 거죠.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거나 왕을 한다면 대통령을 하고도 그 대통령 한 값을 끄트머리 가선 전부 다 물어내게 돼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다 홀딱 게워 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를 보면서도 그걸 모르신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촛불 하나가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밝힙니다. 사월 초파일이면 마음의 촛불 하나가 현상계에 보이게 불을 밝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신을 축하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것을 남들한테 보여 주되 '같이 마음을 내자, 마음의 불을 켜자' 하는 뜻에서 이 마음의 불을 켜는 거지 그냥 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데서 켜는 불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면 꺼지지만 마음의 불을 켜는 것은 어떠한 것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꺼졌다 켜졌다 하는 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살다가 좀 뭐가 안 되면 '아이구, 주인공 믿고 관했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안 돼. 뭐 말라빠져 죽은 것이 주인공이야?' 이러거든요. 아니, 그렇게까지 말은 안 하지만 뭐가 안 되면 그냥 울뚝해서 '어이, 주인공을 찾아도 아무 소용 없는데 그까짓 주인공은 찾아서 뭘 해?' 하고 이렇게 뱉어 버리는 마음이 아마 배우는 과정에서 울컥울컥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허나 우리가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주인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자기에게 무종이 있었기 때문에 유정이 나왔다, 유정체가 나왔다 이런 소립니다, 유정체. 그러니 종교를 믿든 안 믿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종교라는 이름이 무슨 말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굳이 말을 안 해도,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에이그, 그놈의 거 뭐 말라빠져 죽은 거냐.' 한다면 자기 육체와 더불어 같이 그냥 욕을 해서 던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육체를 떼어 놓고가 아니에요.

>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서 그냥 찰나찰나 듣고 넘어가고
> 보고 넘어가고, 하고 넘어가고, 만나고 넘어가고, 움죽거리고 넘어가고
> 이렇게 그냥 걸음을 걸어오면서 그냥 떼어놓을 뿐이지
> 앞뒤가 없다.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뭐가 오느냐 하면 '넌 모르니까 한 방 더 맞고 가야 돼.' 하고선 한 방 더 때려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시련이 닥칩니다. '네가 조금 큰 것 같아서 테스트를 좀 해 보려고 하니까 넌 더 비비 꼬아져서 나가는구나.' 하고 그냥 한 대 때려 주면은 아주 죽겠으니까 그 뒤에서야 겨우 '어이구, 그래도 주인공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도 주인공을 찾아야지 누굴 찾겠습니까?

부처님 형상을 믿겠습니까, 이름을 믿겠습니까? 부처님 마음을 내 마음과 둘 아니게 믿으라고 한 거지, 형상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형상이나 내 형상이나 둘이 아니고, 부서지는 건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부서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둘이 아닌 그 마음이 바로 부서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어떤 때 생각해 보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듣는 사람에 의해서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써 놨거든, 또. 허허허. 그러니까 이거는 편집하는 분들이 이렇게도 해석을 해 놓고 저렇게도 해석을 해 놓고 그러지마는 해석을 어떻게 해 놨든지 그 중심의 뜻만 알면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이 나옵니다, 남이 어떻게 해 놨든지.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 계신 한 부처님은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집결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물만생과도 같이 가설이 돼서 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조금도 그런 걸 의심치 않으셔야 될 겁니다. 세상을 모두 돌아보세요. 막 멍멍 짖는 개한테도 고깃덩어리 하나 던져 주면 그거 먹기 위해서 안 짖고, 그 뒤에도 그걸 먹은 인연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보면 짖지 않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부처님께서는 둥글어도 맞고 모가나도 맞고, 길어도 맞고 짧아도 맞고, 작아도 맞고 커도 맞고 이러니까 사생자부시죠. 그러니 둘이 아니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하고 빡빡 우기는 수행자들이나 여러분을 볼 때, 좀 섭섭하겠지만 그건 어딘가가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허허허.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차원대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하는 가운데서 석존이 전생에 수기 받았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요다음에 만민을 다 이끌어 나가는 어버이가 돼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면 대통령을 해도 손색이 없죠. 대통령을 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일체제불의 마음이나 일체 만물의 마음이 모두 동일하게 엮어 주니까 하는 것마다 어렵지 않게 해서, 그 대통령이 있을 때는 국민이 아주 살기가 쉽고 항상 풍년이 들고 항상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공덕을 입은 사람이라야만이 이 세상의 어버이가 될 자격이 있다 이런 소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그렇게 나오실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7년 5월 4일 법형제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곡산 대 광 사

주 지 도 웅
신도회장 민기홍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 천태종 분당 대광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85번길 30
TEL. 031-715-3000 | FAX. 031-715-3409
E-MAIL. daegwangsa3@gmail.com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용인 대 각 사

사부대중 일동

운 영 지 원 기 관

사단법인 나눔과 비움 / 행복한이주민센터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광진노인보호센터 / 효지어린이집
화송어린이집 / 오산다문화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천덕산로 428번길 68 ☎ (031)334-5702



운학산 자락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절

대한불교조계종

普德관음사

주 지 혜 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반려동물 천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로 187 ☎ 031)332-1133
홈페이지:보덕관음사.kr



문화와 힐링이 있는 사찰

용인 연 화 사

淸翁 本自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 832-38
☎ 031-323-1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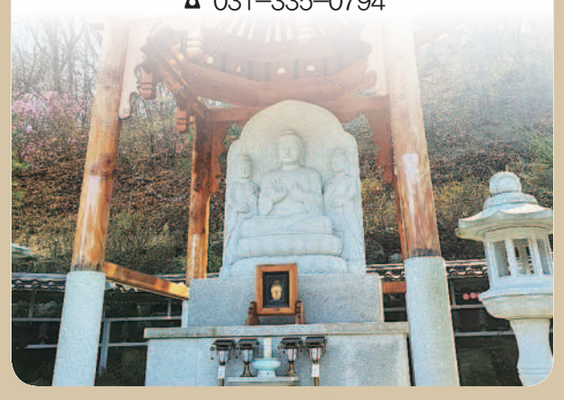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용인 좋 은 절

주 지 법 경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77-11
☎ 031-335-0794



대한불교천태종

백 인 사

주 지 월장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명지로 77-11
☎ 031-335-0794



한국대중불교불이종
전통사찰 제95호

용인 갈마산 동도사

주 지 도 원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어진로 842
☎ 031)333 7747



대한불교조계종

용인에서 가장 오래된 천년고찰

백 련 사

주 지 법 공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애버랜드로 456번길 290
☎031)338-6639



대한불교조계종

용인 석성산 백 령 사

주 지 돈 각

사부대중 일동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령로 204
☎ 031)322-3302





호국불교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지상작전사령부 호국선봉사

주 지 정 행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82
☎ 031)331-1630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청정 염불수행도량

영산불교 현지사

종조 광명 만덕 큰스님
회주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 의장 성광 교정원장 일도
포교원장 행원 감찰원장 범행
교육원장 대원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본사 주지 대원 제주제2본산 주지 범행
부산분원 주지 보문 대전분원 주지 행원
고성분원 주지 성범 대구분원 주지 정대
김해분원 주지 성광 일본분원 주지 성도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 www.hyunjisa.co.kr
유튜브 : www.youtube.com/@hyunjisa

- 춘천본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15층, 14층 ☎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 대구분원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 김해분원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157 ☎ 055-327-0055
- 일본분원 일본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즈마치 3-3-10 ☎ 81-827-31-161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사단법인 불교정중연등종

일죽 망이산성 연 등 사



이사장 도심 스님

- 안성경찰서 경승회 감사
-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 총동문회장
- 일붕신문사 운영이사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화봉리 69-1)
TEL (031)674-5765 | FAX (031)674-5769 | Mobile. 010-3714-9351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양산불광사

(사)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현) 이사장겸 15대 회장

종 정 정산도정 석청봉 화남
(종정애경원장 홍반야행 사서실장 최희유)

최고고문 무량사(석홍섭) 기획원장 반야원(석지광)
원로회장 약사암(석수오) 호법원장 여래사(석원명)
총무원장 천운사(석법경) 감찰원장 무량사(석법진)
총무부장 천운사(석법성) 교육원장 소소선원(석법주)
승정원장 수불사(석원명) 운영위원장 우황사(석수연)

각교구 지원장 대원정사(석대원) 월안정사(석월안) 심원사(석원목)
광엄사(석법현) 도림사(석혜통) 팔영암(석무착)
문수암(석성오) 보문사(석무오) 석불암(석길현)
여해정사(석여해) 청수암(석청암) 우황사(석수연)

종도일동 합장

총본산: 경남양산시 주진로205 천성산 불광사 전화 055-364-4747



로봇에 '자비희사' 새기다

현불논단



덕안 스님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지난 5월 6일, 향냄새가 번지는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스님들 앞에 합장하고 선 이는 사람이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다. 연비 의식을 통해 로봇의 팔에는 향불의 자국이 새겨졌고, 목에는 108염주가 걸렸다.

기술이 인간을 닮아가는 시대다. 인공지능(AI)은 언어를 부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은 구도의 자세를 취한다. 이 낯설고도 경이로운 풍경 앞에서 우리는 다시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한다. "자비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날 열린 조계종 최초의 '로봇 수계식'에서 로봇 행자들은 석자(釋慈)·가비(迦悲)·모희(牟喜)·니사(尼捨)라는 법명을 받았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내린 이 이름들은 한 글자씩 떼어 다시 모을 때 그 깊은 의중이 드러난다. 석·가·모·니-석가모니, 자·비·희·사-자비희사. 곧 사무량심(四無量心)이다. 네 로봇이 한자리에 모여야 비로소 '석가모니 자비희사'라는 문장이 완성된다. 부처가 평생 설한 자비의 마음을, 이제 한국불교는 기술의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 위에 새기기 시작한 것이다.

로봇 행자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해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며 기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로봇 오계'를 받았다. 스스로를 다스리겠다는 엄중한 서원인 수계의 대상이 인간을 넘어 기계로 확장됐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비와 책임의 문제를 더 이상 인간만의 전유물로 남겨둘

'석가모니 자비희사' 뜻 담긴 로봇 수계
'로봇 오계' 통해 '생명 존중' 엄중 서원
백남준 화두 이어 로봇에 자비·책임 심어

수 없는 시대가 왔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이 사회의 방향을 움직이는 오늘날, 기술이 어떤 가치 위에서 작동해야 하는가는 이제 미룰 수 없는 화두가 됐다. 로봇 오계는 결국 인간이 기술을 향해 비추는 '윤리의 거울'이며, 그 거울을 만든 우리 자신을 향한 서원이다.

이 지점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예술적 문답이 있었다. 그 한복판에 백남준이 있다. 독실한 불자였던 백남준은 1964년 '로봇 K-456'을 제작해 뉴욕 거리를 걷게 했다. 기계를 인간존재를 투영하는 또 다른 거울로 보았던 그는 1982년 이 로봇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를 '21세기 최초의 참사'라 명명했다. 감성을 지닌 기계,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 위에 놓인 기술. 그가 60년 전부터 던져온 이 화두는 1974년 'TV 부처'의 '전자 선(電子禪)'으로 이어지며 기계와 부처가 마주 앉는 파격을 선보였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흐른 지금, 조계사 마당에서 실제 로봇이 부처 앞에 합장하며 그 화두에 응답했다. 백남준이 기술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었다면, 오늘의 한국불교는 그 허물어진 경계 위에 '자비'와 '책임'이라는 실천적 좌표를 찍고 있다.

이번 수계식이 성사되기까지 종단 안팎의 연대도 빛났다. 최효숙 경기도의회 의원과 손정익 ㈜YH 대표이사의 협력으로 성사된 이 풍경 자체가 이미 하나의 '연기(緣起)'였다. 이제 그 연기의 그물망은 인간과 기계, 생명과 비생명을 넘어 종교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할수록 중심은 더욱 분명해져야 한다. 60년 전 백남준이 고독한 로봇을 거리로 내보냈다면, 오늘의 한국불교는 그 로봇에게 자비희사의 마음을 심었다. 그 유구한 흐름 사이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연기가 짜여가는 엄숙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

두 스승 이야기

세간과 출세간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996년 3월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에 입학함으로써 시작한 나의 불교 공부는 이제 만 30년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다. 적지 않은 시간이지만, 내가 얼마나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헤아려보면 늘 부끄럼이 앞선다. 어느 순간에는 무언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다 싶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아득해지는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조금씩이나마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그런데 그 공부 과정을 되돌아보면 나는 참 스승 복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도반 복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도반들도 스승의 가르침 속에서 등장했거나 스승에게 배운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찾아왔음을 떠올리면 스승에게 진 은혜와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삼학원 과정을 하면서 만난 스승은 가산 지관 스님이다. 그분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설로 삼학원을 만들었고, 그 안에 한문 불전은 물론 산스크리트와 빨리어 원전을 읽을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하셨다. 동국대학교 교수이자 총장까지 역임한 분이셨지만, 공식적인 석·박사 과정으로는 채우기 어려운 진짜 공부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

5년 과정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았다는 것 말고는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그 스승과 함께하면서 배운 것들은 나의 학자 생활은 물론 교수 생활까지도 지탱해 주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그분은 평

30년 불교 공부 중 만난 지관·무산 스님
두 스승 가르침, 삶을 지탱하는 자양분 돼
교사는 아이 위한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생 공부를 놓지 않는 수행자셨다. 바쁜 총무원장 일과를 마친 후에도 꼭 연구원장실로 퇴근해 〈불교대사림〉 원고를 들여다보셨고, 나를 만나실 때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기꺼이 물으셨다. 그분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판과 사판의 걸림 없음이라는 지향을 간직할 수 있게 됐다.

스승의 날 즈음하여 떠올리게 되는 다른 불교 스승은 설악 무산 스님이다. 필명인 오현 스님으로 세상에 알려지신 그분과는 계간 〈불교평론〉 편집위원장과 발행인이라는 인연으로 만났다. 그분이 창간하신 이 대중학술지는 불교학계의 전문 지식과 불교계 전반의 연결을 목표로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웃종교인들에게 부러움을 샀다. 어느새 100호를 훨씬 넘긴 이 의미 깊은 학술지는 스님의 유지를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금에 참여하고 글을 기고하기도 하여 불교계를 넘어 종교계를 상징하는 대중학술지가 됐다.

설악 무산 스님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선시를 이어받으면서도 한글로 온전히 전환하여 친근하면서도 깊은 뜻을 담아내셨다. 그중에서도 특히 '인천만 낙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다 위에 떠 살던 늙은 어부가 노을이 붉디붉었던 다음날에는 그만 보이지 않는다는 절창을 담고 있다. 만나 뵐 때는 헤아리기 쉽지 않았던 그분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제야 조금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이렇게 두 분의 불교 공부 스승을 떠올리면서 오늘날 우리 교사들의 고통이 온몸으로 다가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스승의 날'이 교사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여러 부질없는 세상 이야기들에 유의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것은 그분들을 위하는 일이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다.

社 說

화합과 보살행으로 공동체 밝히자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았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뜻은 무명과 번뇌 속에서 길을 잃은 중생들에게 스스로의 본래 자리를 깨닫게 하고, 자비와 지혜로 서로를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부처님오신날은 축제와 장엄의 날인 동시에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되돌아보는 참회와 서원의 날이어야 한다.

올해 봉축은 더욱 각별하다. 우리 사회는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다. 조계종 역시 총무원장 선거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의 계절일수록 우리는 더욱 경계해야 한다. 선거는 공동체를 위한 공심의 장이어야지, 탐욕과 아집을 드러내는 다툼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 되돌아보는 참회와 서원의 날
미래 결정 사회 · 종단 선거, '공심'으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갈등의 근원을 탐진치 삼독심에서 찾았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아집, 권력과 이익을 움켜쥐려는 탐욕, 상대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성냄이 공동체를 병들게 한다. 불교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하다.

연등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상징이다. 불자들이 손에 든 연등 하나하나는 자신의 무명을 밝히겠다는 서원이어야 한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언어를 쓰겠다는 다짐이어야 한다.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진 마음을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겠다는 원력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연등회의 진정한 의미이자 부처님오신날의 정신이다.

특히 종단의 선거를 앞둔 지금, 불교계가 먼저 화합과 공심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자리와 권한을 얻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종단과 불법을 위해 누가 더 낮은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는가를 묻는 과정이어야 한다. 사람과 계파에 기대어 다투는 순간 정법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선거가 끝난 뒤 남는 것이 상처와 분열이라면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패배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불교의 화쟁 정신이다. 원효 스님이 보여준 화쟁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논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길을 여는 자비의 실천이었다.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시대일수록 불교는 사회 통합의 정신적 구심이 되어야 한다. 불자들이 먼저 혐오와 분열의 언어를 멈추고, 이해와 존중의 언어를 회복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해 살아가는 연기의 세계를 가르치셨다. 나만 옳고 나만 살아남겠다는 생각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 정치도, 종단도, 사회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쓰러뜨려 얻는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함께 살아야 나도 산다는 연기의 지혜를 회복할 때 갈등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다.

연등의 불빛은 잠시 밤거리를 밝히고 사라지지만, 자비와 화합의 원력은 세상을 오래 밝힌다. 올해 부처님오신날만큼은 불교계와 불자들이 먼저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는 가장 참된 길이며, 오늘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봉축의 의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아름답고 청정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봉 녕 사

봉녕사승가대학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주 지 진 상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전화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조 실 설악 무산

주		지	일념	템플스테이국장	지월	신 도 회 장	방양호
부	주	지	향성	템플스테이과장	법명	관음회회장	김순옥
총		무	본일	낙산사기도	관성 법정	바라밀회회장	박상혁
기		획	설호	홍련암기도	본수 종묵	문수회회장	양은숙
사		회	설안		원주 응파	합 창 단 장	김선례
포교연수원장			선일		광현 일도	의상회회장	조은주
						불교대학회장	윤여경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오대산 상원사

주 지 해 량

사부대중 일동

기도안내
문 수 재 일 법 회 매월 음력 4일
광명정진 철야기도 매월 넷째주 토요일
많이 참석해 주세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1211-14
☎ (033)332-6666

부처님의 향기로 가득한
태백산 적멸보궁 **정암사**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 지 천 웅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정선 함백산로 1410
033-591-2469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치악산 구룡사

회 주 적 천
주 지 해 공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500 TEL. 033-732-4800
템플스테이 033-731-0503 www.guryongsa.or.kr

달빛이 운치를 더하는 소박하고 편안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만월산 현덕사

주 지 현 종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싸리골길 170 전화 033)661-5878 팩스 033)662-1080
www.hyundeoksa.or.kr

간화선 국제선센터
문경세계명상마을

회 주 의 정
선원장 각 산
외 대중일동



손절사회, 자비로 잇다

제 1579 호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현대불교 B1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관계 끊는 시대 자비로 이어내다

'손절'이라는 말이 어느 순간 일상의 언어가 됐다. 본래 '손절'은 증권가에서 쓰던 용어였다. 투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할 때 사용되던 '손절'은 어느새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말이 됐다. 불편하면 끊고, 상처 주면 차단하며, 맞지 않으면 삭제한다. 관계는 기다림과 조율의 과정이 아니라 감정적 비용을 따져 정리해야 할 대상이 됐다.

최근 출간된 〈손절사회〉 역시 현대사회가 인간관계마저 손익계산의 언어로 바꾸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호소하면서도 동시에 자발적 단절을 선택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손절사회'는 단순히 "요즘 사람들은 관계를 쉽게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손절의 이면에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있다. 반복된 실망, 과도한 감정노동, 경쟁과 비교, 돌봄의 부재 속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관계의 문을 닫는다. 그런 점에서 손절은 냉정함이기 전에 불안의 표현이며, 단절은 무관심이기 전에 고통의 방어기제다.

이 지점에서 불교의 자비는 손절사회에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자비는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니다. 해로운 관계, 폭력적 관계, 착취적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혜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갈등과 불편함을 '유해함'으로 규정하고 관계 자체를 폐기하는 문화가 확산될 때, 사회는 점점 더 외로운 개인들의 집합으로 변한다. 자비는 바로 이 지점에서 관계를 다시 보게 하는 힘이다.

불교계가 펼쳐온 자비행들은 손절사회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응답이다. 불교계는 복지 현장에서 난치병 어린이 지원, 청년 지원, 취약계층 돌봄 등 다양한 자비나눔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는 사회의 가장 약한 자리에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일이다. 가난, 질병, 고립, 노년, 장애는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되기 쉽다. 손절사회는 때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내 일이 아닌 사람'으로 밀어낸다. 그러나 불교복지는 그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초대한다. "당신은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실천으로 전한다.

마음돌봄 분야 역시 중요하다. 오늘의 단절은 물질적 결핍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관계에 지치고, 감정에 다치고,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불교계의 마음돌봄 사업은 명상과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 고립감을 돌보는 시도를 이어왔다.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진다. 그러므로 마음을 돌보는 일은 곧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국제구호는 자비가 국경을 넘어서는 실천임을 보여준다. 로터스월드, 더프라미스 등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들은 국제개발, 긴급구호 등을 펼치고 있으며, 관음종은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해 발굴과 국내 송환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지구 반대편의 재난, 빈곤, 전쟁, 기후위기는 결국 우리의 삶과도 이어진다. 자비는 그 연결을 알아차리는 감각이며, 그 감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다.

이제 불교계의 자비행은 복지와 구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언어가 돼야 한다. 사찰은 지역의 외로운 이들을 품는 마음의 쉼터가 되고, 복지시설은 끊어진 삶을 다시 공동체와 연결하는 통로가 되며, 마음돌봄은 불안한 개인에게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국제구호는 자비가 민족과 국경을 넘어서는 보편적 윤리임을 보여줘야 한다.

손절은 관계를 정리하지만, 자비는 관계를 성찰하게 한다. 손절은 나를 지키기 위해 타자를 지우지만, 자비는 나를 지키면서도 타자를 악인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손절사회'가 고립의 시대를 증언한다면, 불교의 자비행은 다시 연결의 가능성을 밝히는 등불이다.

부처님오신날, 우리가 켜야 할 등은 법당 안의 연등만이 아니다. 단절된 마음과 마음 사이, 외로운 개인과 공동체 사이, 고통받는 이웃과 무심한 사회 사이에도 등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손절사회를 자비로 잇는 불교의 길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손절사회, 자비로 잇다
밥이 곧 하늘…밥집이 된 사찰

한 끼로 청년들 마음까지 든든히 채우다

서울 연화사 '청년밥心'

매주 화요일 오후 12~1시 운영
무료 제공보다 함께하는 '공양'
노고 담긴 음식서 자비 배워가
"연결되는 관계 기반 만들겠다"

5월 12일 정오, 서울 경희대 인근 연화사 공양간에는 점심 식사를 위해 모인 학생들로 북적였다. 봉사자들은 학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많이 드릴까요? 부족하면 더 드세요", "오늘은 오이 반찬이 매울 수 있는데 괜찮아요?" 대화를 건넸다. 수줍게 웃으며 화답하는 학생들 사이로 공양간은 어느새 배를 채우는 곳을 넘어, 마음과 마음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변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이 운영하는 '청년밥心'이 이날 연화사 공양간에서 펼쳐졌다. 2024년 6월 당시 대표이사 묘장 스님(연화사 주지·조계종 기획실장)이 추진한 청년밥심은 고물가 시대에 끼니를 거르기 쉬운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사찰음식을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다. 식사 제공뿐 아니라, 사찰의 공양 문화를 통해 청년들이 잠시 쉬어가며 공동체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현재 청년밥심은 연화사를 비롯해 숭실대 인근 상도선원(격주 금요일·50명)과 고려대 인근 개운사(격주 금요일·50명)에서 운영되고 있다.

묘장 스님은 "단순히 밥을 제공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고된 학업과 일상에 지친 학생들이 이곳에서 대화도 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느낌을 되찾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연화사 청년밥심은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공양에는 각종 나물과 양상추샐러드, 상추쌈 등 채소 위주의 사찰음식이 차려졌다.

사찰을 어색해 할 학생들을 위해 연화사 스님들은 학생들 사이를 오가며 "입맛에 맞아요?", "뭐가 가장 맛있어요?" 질문을 쏟아냈다. 처음에는 멋쩍은 웃음만 내비치던 학생들이 스님들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을 열고 "취나물이 정말 맛있어요" 답하며 어색했던 분위기를 점차 풀어갔다.


연화사 포교국장 연기 스님이 5월 12일 열린 '청년밥心'에서 학생들에게 말을 건네며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비록 밥을 매개로 이어진 대화였지만, 학생들은 사람들을 만나며 잠깐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청년밥심은 학생들의 입소문을 통해 더욱 활성화됐다. 초기 15~20명에 머물던 참여 인원은 최근 신청 정원 80명을 넘어 100명까지 늘어났다. 또 일부 학생들은 공양을 계기로 자발적으로 수계법회에 참여하는 등 불교와의 인연도 넓혀가고 있다.

공양간은 학생들이 걱정·근심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 역할도 한다.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진 시대에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에서도 위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휴학 중임에도 매주 연화사에 방문하는 홍주은(22·경희대 국어국문학과 3학년) 학생은 "식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밥을 챙겨 먹기 어려운데, 주 1회라도 건강한 한 끼를 챙기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일처럼 집밥 생각이 더 많이 나는 날에도 혼자서 밥을 해결해야 하니 서럽기도 하다"며 "밥도 먹고 풍경 소리에도 위로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미소지었다. 여섯 번째 공양에 함께한 박정익(23·경희대 사회학과 2학년) 학생도 "사찰에 들어서는 순간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공간에 온 것 같다"며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고 전했다.

청년밥심에는 무료로 한 끼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누군가의 노고가 담긴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감사함을 느끼고 학생들은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배워가기도 한다.

배식에 동참한 연화사 포교국장 연기 스님은 "음식이 내 앞에 놓이기까지의 수많은 과정을 알게 된다면, 먹고 끝내지 않고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밥심을 통해 사회에 관심을 갖고 더 선한 마음을 낼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연화사에서 2년여간 쉼 없이 학생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데에는 봉사자들의 원력도 컸다.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는 손영숙 연화사 신도회장은 "사실 봉사하는 우리가 더 감사한 느낌"이라며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기특하고, 늘 건강하고 씩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발걸음한 김은정(57) 불자도 "다른 걸 바라고 봉사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찰 안에서 대화하고 위로받는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 청년들이 더 희망찬 하루를 살아내길 바라는 복지재단은 지역 사찰과의 연계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공양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현 후원사업부 선임팀장은 "청년밥심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나아가 사람과 사회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계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며 "오는 6월에는 청주 관음사와 용화사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부산 범어사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현희 수습기자

"쪽방촌에 따뜻한 온기 나누고파"

도성 스님의 '온드림 곳간'

동구 쪽방촌서 매달 생필품 보시
이야기 나누며 상담도 활발해져
"불교, 이웃 곁을 지키는 종교"
광산구 등 자비 플랫폼 확대 발원

"거창한 게 아닙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 물품을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광주 동구 대인동 쪽방촌 한편. 공용 샤워실과 빨래방, 상담 공간이 있는 '쪽빛상담소'에는 최근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필요한 생필품과 먹거리를 자유롭게 나누는 '온(溫)드림(Dream) 곳간'이 문을 연 것. 이곳에는 매달 빠지지 않고 생활용품과 먹거리를 전하는 스님이 있다. 광주 복암사 주지 도성 스님이다.

도성 스님은 "쪽방촌에는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있고, 잠시 머물다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우려는 사람들도 많다"며 "먹고사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에게 생활용품 하나라도 덜 걱정하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온드림 곳간'은 광주 동구청과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쪽빛상담소, 자비신행회가 함께 추진하는 나눔 사업이다. 올해 3월 문을 열어 매달 정기적으로 생필품과 생활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도성 스님은 이 사업의 출발점에 대해 "자비신행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부처님의 자비 사상과도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동구에는 상담과 지원 체계가 갖춰진 공간이 있었기에 그곳에 물품을 두고 필요한 사람들이 스스로 가져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복암사 주지 도성 스님은 올해 3월부터 동구 쪽방촌 거주민들을 위한 나눔공간인 '온드림 곳간'에 후원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물품 지원 형태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반응은 훨씬 뜨거웠다. 스님은 "첫 달에 물품이 금방 동이 났다"며 "그래서 지금은 생일을 맞은 주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챙겨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금 바꿨다"고 전했다.

현재는 생일자들에게 먹거리 3종과 생활필수품 3종 등 총 6가지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화장지와 같은 소모품 수요가 많다고 했다. 도성 스님은 "필요한 것을 직접 고르게 하다 보니 정말 절실한 물품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며 "작은 물건 하나에도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내가 더 큰 기쁨을 받는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준비도 한층 늘어났다. 스님은 "초파일에는 먹거리도 조금 더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한다"며 "사람들이 물품을 받으러 오면서 자연스럽게 상담도 받고 이야기도 나누게 되니 상담소 역시 더 활성화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도성 스님은 이번 활동을 단순한 후원사업이 아닌 '불교의 생활 속 자비실천'으로 바라봤다.

"소외계층 분들을 직접 만나면 내 스스로도 더 기쁘고 뿌듯합니다. 사실 불교는 원래 어려운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하는 종교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광주불교계의 자비활동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도성 스님은 "광주불교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결코 열악하지 않다"며 "자비신행회를 비롯해 사찰과 스님들이 꾸준히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자비실천이 상당히 활성화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동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광산구나 북구 등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공간과 시스템이 생긴다면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각 지역 불교협의회와 사찰들이 조금 더 마음을 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특히 도성 스님은 앞으로 광산구에도 지역 맞춤형 나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 사찰의 힘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스님들과 불자들이 조금씩 마음을 보태면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광산구에도 이런 자비 나눔 플랫폼을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광주 쪽방촌에서 시작된 '온드림 곳간'. 그 안에는 생필품 이상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다시 살아갈 힘이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나반존자 기도영험도량
금정산 미륵사
회 주 大蓮 眞愚
주 지 덕안
신도회장 무각 김기대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북문로 126
전화 051)508-4707


손절사회, 자비로 잇다
밥이 곧 하늘…밥집이 된 사찰

어르신 하루 데우는 따뜻한 '부처님 밥상'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원각이 5월 11일 서울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고립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공양을 통해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 원경 스님과 봉사자들이 배식을 하는 모습.

오전 7시,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주방 불을 켜며 서울 탑골공원 골목에 하루 시작을 알린다. 공휴일도, 계절도 쉬어가지 않는다. 사회복지원각(대표 원경 스님)이 운영하는 급식소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300명이 먹을 밥과 국, 반찬이 준비된다. 오전 10시가 되면 일정표에 맞춰 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11시 30분 문이 열리면 급식소는 금세 분주해진다. 배식을 시작하면 봉사자들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바삐 움직인다. 배식대 한가운데서는 원경 스님이 직접 밥을 푼다.

원경 스님은 2015년 보리 스님이 운영하던 무료급식소를 이어받았다. 당시 급식소는 스님의 병환과 운영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있었다.

"며칠 뒤 급식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어요. 길게 늘어진 어르신 줄을 보는데, 누군가의 20년 밥줄이 끊긴다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년만이라도 어떻게든 버텨보자'라는 무모한 마음으로 시작했지요."

막연했지만 외면할 수 없는 마음이었다. 스님은 '떠돌이 급식소'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자비실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운영 과정은 쉽지 않았다. 도움의 손길도 있었지만 반대로 갈등과 방해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많았다. 그럼에도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손을 맞잡고 무료급식소를 지켜냈다.

"인생은 정해진 대본이 없어 결국 '나'라는 주인공이 어떤 역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죠. 악역보단 선역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3년만 버텨보자'던 시간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스님은 자신의 사비를 털고 후원을 모아 낙원동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재건축했고, 지난해 지금의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었다. 새 급식소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지하에는 주방, 1층에는 32석 규모 무료급식소, 2층에는 법당, 3층에는 사무실과 접견실, 4층에는 음식박물관과 다실이 들어섰다. 과거 한 공간이었던 법당과 급식소를 분리해 혼잡함을 해소했다. 15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급식소는 현재 30명 남짓 들어갈 수 있게 돼 식사 환경도 한층 안정됐다.

2015년 인수해 11년째 운영 중
365일 쉬지 않고 점심 식사 제공
단순 식사 넘어 교감 · 온기 전해
원경 스님 "부처님 모시듯 대접"

운영 시스템도 점차 체계를 갖췄다. 번호표 배부를 통해 혼잡을 줄이고, 동선을 효율적으로 정비했다. 스님과 직원들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보다 편안한 식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급식소를 찾는 대부분은 가족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다. 자녀가 있어도 사실상 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재산을 빼앗기거나 폭력과 방임 속에 내몰린 이들, 유자녀라는 이유로 기초수급생활 대상에서 제외돼 복지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적지 않다. 몸까지 성치 않는 상황에서 가난과 고립은 더욱 깊어진다.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식당이 아니다. 비슷한 삶의 상처를 가진 이들이 만나 서로 안부를 묻고, 얼굴을 익히며 공동체를 이루는 교감의 장소다. 식사를 넘어 관계의 온기를 나누는 '어우러짐의 자리'가 된 셈이다.

스님은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을 "부처님 모시듯 귀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급식소 운영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시장에서 남은 기부 식재료에 의존해야 했지만, 지금은 가능한 최상급 식재료를 엄선해 공들여 음식을 만들어 대접한다. 정성껏 공양을 올려야 어르신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진실된 마음은 어르신들의 삶에도 흔적을 남겼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한 어르신은 임종 직전 외동딸에게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은 급식소 때문이니, 꼭 그곳에서 봉사하며 베풀어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 딸은 지금도 무료급식소를 찾아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원경 스님은 "현실 속 참여가 진정한 자비이자 포교"라고 말했다.

"이론 공부하는 데만 그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듬을 때 종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탑골공원 곁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는 따뜻한 밥 냄새가 퍼진다. 그리고 그 밥 한 그릇은 고단한 삶을 견디는 어르신들의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작은 동력이 되고 있다.

박지운 수습기자

공양으로 피운 자비 선순환 꿈꾸는 '정법의 밥'

불광동절 '밥할머니' 공양간



서울 불광동절 주지 선선 스님은 일주일에 한 번 10여 명의 지역민들에게 비빔밥을 제공하며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요즘 사회는 '내 것만 챙기겠다'는 욕심이 커지면서 단절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야 식구가 되는 만큼, 밥 한 끼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작은 무료급식소 '불광동절'. 점심시간이 되면 어르신 몇몇이 하나둘 문을 열고 들어선다. 커다란 식당도, 거창한 시설도 아니지만 따뜻한 비빔밥 한 그릇을 나누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스님과 담소를 나누며 잠시 쉬어간다. 법문이라기보다는 살아가는 이야기와 고민, 위로가 오가는 사랑방에 가깝다.

불광동절은 2025년 4월부터 선선 스님이 운영하고 있다. 스님은 임진왜란 당시 백성과 군사들을 위해 자신의 곳간을 열어 밥을 나눴던 '밥할머니' 정신을 오늘날 도심 속에서 다시 실천하고자 이 공간을 열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0여 명의 지역민들에게 공양을 올리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또 공양을 받은 이들이 다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회향의 마음을 새기도록 도량을 꾸려가고 있다.

'밥할머니'는 보시할머니, 보살할머니로 불리며 조선 중기 불광동 일대에서 살았던 여성 불자로 전해진다. 선선 스님에 따르면 밥할머니는 전쟁 당시 굶주린 백성과 병사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행주산성 전투에서는 주먹밥을 만들어 군사들을 도왔다.

선선 스님은 "부처님께서도 굶주린 중생에게 먼저 공양을 권하신 뒤 법문을 하셨다. 몸이 움직이려면 우선 먹어야 하지 않겠나"며 "보시와 지혜, 화합 정신을 몸소 실천한 밥할머니처럼 불광동절 역시 누군가를 살피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배우는 공간, 또 자연스럽게 실천행을 익혀가는 도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양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삶과 수행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찾아와 차 한 잔 나누며 쉬어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처음에는 식사만 하고 돌아가던 이들은 어느 순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마음의 문을 열었다.

2025년 4월부터 선선 스님 운영
밥할머니 보시 · 화합 정신 이어
일주일에 한 번씩 비빔밥 나눔
또 다른 실천행 이끄는 계기로

선선 스님은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던 어르신들이 어느 순간 '스님, 이런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며 속 이야기를 꺼내놓곤 했다"며 "공양하러 왔다가 불교를 배우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정한 불자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때 불광동절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문을 열었다. 주 메뉴는 비빔밥 같은 집밥 형태였다. 하지만 운영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재정적인 부담과 함께 공양을 준비할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 최근에는 내부 사정을 정비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다시 안정적으로 공양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선선 스님은 "처음에는 맨땅에 헤딩하듯 아무런 지원 없이 시작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피로 필요한 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며 "반찬값을 보태주는 불자도 있었고, 여러 스님들이 쌀을 보내주시기도 했다.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실천하면 결국 길이 열린다는 걸 매번 느낀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광동절의 무료 급식이 배를 채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나눔과 베풂으로 선순환하는 '정법의 밥'이 되길 기원했다.

"한 사람이라도 공양을 통해 마음을 바꾸고 다시 누군가를 돕는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힘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 지구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하나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선선 스님은 무료급식소 운영 외에도 인천구치소에서 10년째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용자 상담과 교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수용자 교정교화와 범죄 예방, 지역사회 정화 활동에 힘쓴 공로로 구치소장 표창패를 비롯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부장관 표창 등을 받기도 했다.

선선 스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연기의 가르침을 깨닫고, 분별심보다 자비심을 내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 정 혜 인
총무원장 : 법 산
원 로 원 장 : 도불
율 원 장 : 무공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정,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동안,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오, 서봉금산
총무부장: 남산
재무부장: 혜만
문화부장: 자명
총무국장: 중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여암
문화국장: 광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진산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태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국장: 학산
국제포교원장: 천산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경산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백산지견
감찰부장: 일봉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비구니총무부장: 금산
부회장: 도은
재무: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미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전남, 광주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묵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인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해월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화광, 천산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연합
사단법인 불교조계종예술문화협회
재단법인 불교조계종세계불교평화연맹유지재단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의료법인 효성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경남총림 봉곡사
제주총림 법련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이국철
수석부회장: 윤수경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최예원
부산신도회장: 손영만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경남신도회장: 송선근
신도회고문: 설주성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법무실장: 윤명도
기획대리: 나윤하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강남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11 3F (신사역8번출구) 02-511-1080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jogyebuddhism@naver.com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www.bs.hanmaum.org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www.한마음유치원.kr

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사부대중일동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0994 / FAX 051)583-0991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대한불교조계종 16만 도자대장경 봉안도량
영축총림 통도사
서 운 암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혜원정사
회주 원허효명
주지 인호진일
혜원정사 사부대중 일동

재)고산장학회 재)혜원문화재단 사회복지법인 혜원
영도구노인복지관 부산영도시니어클럽 혜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연산종합사회복지관 연제구다함께돌봄센터(우리아이자람터) 연제구연선서희어린이집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68번길 47(연산4동)
전화 051)866-7771~3, 010-2153-6236 팩스 051)866-7777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東明佛院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57(용당동) www.btbf.kr
전화 051)626-4337, 624-7667 팩스 051)626-4330



한국불교태고종
동래 읍성 마안산 자 비 암
부산유형문화재 151 육경합부
부산유형문화재 152 선림보훈
태고종부산종무원장
동래구불교연합회장
동래경찰서 경승실장
주지 청 암 자 관
총무 정 웅
신도일동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전화 051)552-3320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이윤희**(범어사 신도회장)
상임고문 **우방우**(금양상선(주) 회장)
부 회 장 **김수현**(BTN불교TV 부산지사장)
공정근((주)성광금속 회장)
정창교(국제식품 회장)
정종원((주)건양산업 대표이사)
최삼섭(대원플러스건설 회장)
박종웅(EK중공업(주) 회장)
김대명(지우알엔씨 주식회사 회장)
김도연(범어사 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고문)
박정순((주)주원홀딩스 회장)
김문정(덕부건설산업(주) 대표이사)
김명진(주식회사 매일마린 대표이사)
이덕환(법무법인 나침반 대표변호사)
신한춘(한국자유총연맹부산시지부장)

상근부회장
박대성(해운정사 신도회장)

상임이사
박철수(수우전기 대표)
백명구(범어사 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회장)
안천일(부산불교지도자포럼 총무이사)
정병철(국제포교사회 부산울산경남지부장)
이관수((주)한진비지니스 대표이사)
김성익(대연인창병원 내 대연장례식장 대표)

사무총장 **안병호**
대외협력실장 **정종학**
사무국장 **윤기혁**
재무국장 **류강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400호
전화 051)867-0501

진제대선사 주석도량

해운대 해운정사·금모선원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TEL 051)746-2256, 744-4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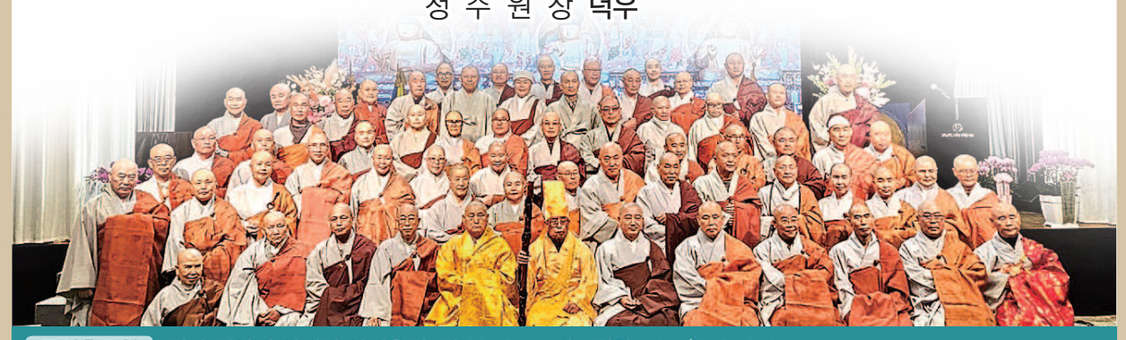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

종 정 **경보 혜만** 총무원장 **대풍 범각**

원로회의의장 **성도**
승정원장 **도신**
사정원장 **도경**
중앙종의회의장 **도정**
비구니회장 **대연**
비구니회부회장 **송하**
비구니회부회장 **수현**
비구니회사무부장 **지아**

중앙교육원장 **도현**
중앙포교원장 **법안**
국제포교원장 **도청**
불교문화원장 **덕운**
불교예술원장 **월수**
중앙염불원장 **해진**
염불교육원장 **정문**
중앙연수원장 **원각**
정수원장 **덕우**

총무부장 **성우**
교무부장 **덕광**
사회부장 **덕법**
호법부장 **도형**
포교부장 **청명**
총무국장 **향법**
사무국장 **김성한**
법률자문위원장 **김광준**
국제포교사 **최일권**



중앙총무원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산내용전4길 29-67 대표전화 : 055)352-3104
부산총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선프라자 417호 대표전화 : 051)892-5000/Fax : 051)462-6652

일심청정 관음기도 백만독결사도량 | 대한불교천태종 **삼광사** |

봉축특별기도 5월 4일(월) ~ 5월 24일(일)
봉축점등대법회 5월 15일(금) 오후 7시
봉축전야점등식 5월 23일(토) 오후 7시
봉축법요식 5월 24일(일) 오전 10시 30분

- 정기법회 매월 1일 오전 10시 30분
- 간부 및 직장인 가족법회 매월 3번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주지 용암스님
부주지 성해스님
교무 덕중스님
신도회 일동 합장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EL.051)808-7111~5
| 홈페이지 | http://www.samkwangsa.or.kr/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제14회 그림·글짓기·서예 호국의숲결대회
2026년 6월 6일 (토)
hoguk.org

홍법

홍법사 주지 **심산스님**
신도회장 **양재생**
수석부회장 **이영숙**
신도회·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 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사)한나래문화재단 (사)한나래교육재단 한나래평생교육원
(사)상생불 치유의 소리 The sound of Healing & Meditation 한나래지역아동센터 HANNARAE COMMUNITY CHILD CENTER 금정구자원봉사센터 Geumjeong Volunteer Center

부산 금정구 두구로33번길 202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 전화 051-508-0345, 팩스 051-508-6561, 이메일 5080345@daum.net

---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문화가 시작되는 곳
복합문화공간, 피아크

PARK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195번길 180 051-404-9200

손절사회, 자비로 잇다
불교, 마음을 품다

손절사회 녹이는 힘 '자비희사'에 주목하다

〈慈悲喜捨〉

마음 살리는 묘약 '자비희사'

단절로 얼어붙은 현대인 내면
끊어내도 깊어지는 역설적 고립
닫힌 마음 여는 심리 기제 작용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치유 회복



스님을 따라 숲길에서 행선 명상하는 참가자들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굳게 닫힌 현대인의 마음을 여는 심리 치유의 대안으로 불교의 '자비희사(慈悲喜捨)'가 주목받고 있다. 조건 없는 사랑[慈], 고통에 대한 연민[悲], 함께 기뻐함[喜], 집착 없는 평온[捨]은 종교적 수양을 넘어 현대인이 겪는 심리 문제에 대한 '맞춤형 해독제'로 작용한다.

자비희사는 곤두선 인지 구조를 '평가와 통제'에서 '수용과 연결'로 전환해 준다. 능력이 부족해도 나를 안아주는 연습은 자존감을 치유하고, 고통에 공감하는 연습은 고립감을 해소한다. 가혹한 평가와 통제욕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을 찾게 돕는 체계적인 심리 훈련법이다.

[자慈] 자기혐오를 멈추는 수용

우리가 타인을 쉽게 손절하는 밑바탕에는 역설적이게도 '나에 대한 혐오와 불안'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 내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니 타인의 작은 실수나 다름도 품어주지 못한다.

부산 홍법사에서 진행한 집단상담에서 지친 어머니들에게 자비 명상을 제안했다. 참가자들에게 '나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의 마음 보내기' 실습을 제안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참가자들의 표정에는 이내 깊은 안도감이 번졌다. 늘 가족과 사회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며 헌신하기 바빴던 그들은 자신에게 따뜻한 지지와 사랑을 보내본 적이 없었음을 자각했다. 자(慈)는 이처럼 남을 사랑하기 전, 지친 나 자신을 온전히 안아주는 데서 출발한다. 스스로를 향한 가혹한 평가를 거둘 때, 비로소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생겨난다.

[비悲] 섣부른 조언을 거둔 공감

'비(悲)'는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깊이 느끼고 공감하는 연민의 마음이다.

A씨는 직장 내 따돌림으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만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상담자는 그저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억울함, 두려움, 슬픔이라는 '감정 그 자체'에 공감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느꼈을 막막함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아파하고 우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아픈 감정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곁에 머물러 준 수용이야말로,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삶의 의지를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 된다.

[희喜] 비교와 질투를 넘는 연결

우리가 타인을 손절하는 또 다른 이유는 '비교와 질투'에 있다. 경쟁 사회에서 타인의 성공은 곧 나의 스트레스가 된다. '희(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치유 효과를 발휘한다.

30대 직장인 김지연(가명) 씨는 입사 동기보다 진급이 늦어지자 잘나가는 동기들이 꼴 보기 싫어 모든 연락을 끊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전형적인 '비교로 인한 손절'이다.

김 씨는 '남이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도록 함께 명상했다. 그녀는 "신기하게도 억지로라도 '축하한다, 네가 잘돼 진심으로 기쁘다'고 마음을 먹으니, 오히려 저를 옥죄고 있던 분노와 열등감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사捨] 통제욕을 내려놓는 평온

'사(捨)'는 어떠한 차별이나 치우침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고요하게 바라보는 '평온'의 마음이다.

50대 이명숙(가명) 씨는 자녀가 자신의 기대대로 따라주지 않아 매일 화를 내며 갈등을 빚다 우울증 상담을 받았다. 그녀는 통제욕을 내려놓는 '사(捨)'의 원리를 통해 치유를 경험했다.

"내 뜻대로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자 비로소 아이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절의 시대를 잇는 마음의 처방전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타인의 상처를 보듬고 다름을 포용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다. 조금만 불편해도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상처받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살아간다.

이러한 단절의 시대에 자비희사는 종교적 수양을 넘어, 현대 심리학 및 뇌과학과 결합한 과학적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완벽주의와 자기비판을 치유하는 '마음챙김 자기연민(MSC)', 트라우마 극복을 돕는 '연민 중심 치료(CFT)', 편견을 줄이는 '인지기반 자비 훈련(CBCT)', 우울증 감소에 효과적인 'MBSR 내 자애명상' 등이 대표적이다.

오늘 하루, 나 자신을 향한 가혹한 채찍질을 멈추고 평가의 잣대를 잠시 내려놓아 보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 네 가지 마음을 보내보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공감·위로 받아가세요" 스님이 전하는 마음 약방

'마음처방전' 이끈 스님들

국제선명상대회서 단연 인기
진심 어린 조언에 눈물도 여럿
야외 상담 환경 개선은 과제
"이젠 경청의 시대로 나가야"



마음처방전 프로그램을 이끈 중앙승가대 대학원 상담학전공 스님들. 왼쪽부터 천지 · 도경 · 무상 · 수인 스님.

조계종이 4월 3~5일 서울 봉은사 일대에서 개최한 '2026 국제선명상대회' 서울 행사에서 단연 가장 큰 관심을 모은 프로그램은 '마음처방전'이었다. AI가 참가자의 마음 상태를 분석해 맞춤형 명상법과 차, 향을 추천하고, 이후 스님들과 상담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에는 행사 기간 내내 긴 줄이 이어졌다. 그 중심에는 시민들과 직접 마주 앉아 이야기를 듣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 큰 호응을 받았던 16명의 중앙승가대 대학원 불교학과 상담학전공 석·박사 과정 스님들 있었다.

5월 12일 중앙승가대에서 '마음처방전' 상담을 이끈 수인·천지·무상·도경 스님을 만나 현장 분위기와 불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스님들은 공통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했다"고 입을 모았다. 야외에서 시민들과 즉석 상담을 진행하는 경험은 낯설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상담 현장에서는 취업과 진로, 인간관계, 가족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고민이 이어졌다. AI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불안감 역시 적지 않았다. 스님들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마음의 압박과 외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았다"며 "특히 청년 세대는 누구보다 관계와 소통에 대한 갈증이 큰 세대라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스님들의 공감과 위로에 눈물을 보이거나, 상담이 끝난 뒤에도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참가자들도 여럿이었다.

스님들은 이번 상담을 통해 불교가 사찰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의 삶 속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도 절감했다.

수인 스님은 "부처님 역시 거리에서 중생들을 만나 고민을 들으셨다"며 "대중이 있는 자리로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것이 지금 시대 불교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야외 공간 특성상 상담 환경이 다소 산만했고, 많은 인파로 상담 시간이 제한됐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천지 스님은 "조금 더 안정적인 공간과 시간이 갖춰진다면 깊이 있는 상담과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시도 자체가 불교가 사회와 만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스님들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 스님은 "예전에는 깨달음을 향한 수행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공감과 경청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역할도 중요하다"며 "점심시간이나 퇴근길에 잠시라도 스님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도심 속에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도경 스님도 "그동안 상담 등의 활동이 사찰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사회가 먼저 필요로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수행 역시 사회와 만나는 접점이 돼야 한다.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방향으로 불교의 역할이 확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음처방전'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마음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한 스님들은 외로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조언도 건넸다.

"우리 마음에는 늘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부처님 마음이 있다. 힘들고 외로울 때일수록 본래 마음이 들어날 수 있도록 찾아가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자신에게 말해주길 바란다."(수인 스님)

"고민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 세상은 같이 살아가는 사회인 만큼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며 힘을 얻어가길 기원한다."(천지 스님)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 가치와 미래에 대해 더 불안해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나 지나간 과거보다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무상 스님)

"힘든 사람에게는 쉬어가라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에게는 더 달리라고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사회다. 그럼에도 이번 생의 주인공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삶에 지배당하기보다 스스로 삶을 잘 이끌어가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칼끝을 자신에게 겨누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올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하겠다."(도경 스님)

김포=김내영 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말사
해수관음 기도도량
해동 용궁사
주 지 덕림 합장
사 부 대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86
전화 051)722-7744 www.yongkungsa.or.kr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손절사회, 자비로 잇다
불교, 마음을 품다

“근심·걱정 내려놓고…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마가 스님의 ‘마음환승센터’

2024년 12월 동대입구역 개원
마음보관소 · 마음약방 등 운영
21일 변화 기록해 현재와 비교
반복 과정으로 얽힌 매듭 풀어

지하철을 가득 메운 출근길 직장인과 학교로 향하는 청년들, 이어폰을 낀 채 무표정하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별일 없이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저마다 누구에게도 말 못 할 고민 하나쯤 품고 살아간다.

하루 수만 명이 오가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역사 안. 그런 이들이 잠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화제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 2024년 12월 문을 연 ‘마음환승센터’다. 이곳은 고민 상담과 명상을 통해 지친 마음을 돌보고, 다시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마가 스님은 지하철 물품보관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마음환승센터’를 만들었다. 다음 행선지를 찾기 전 무거운 짐을 잠시 맡겨두듯, 살아가며 쌓인 아프고 복잡한 마음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스님은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안고 다니면 어깨도 처지고 화도 쉽게 올라온다”며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데,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잠깐의 시간만으로도 한결 가벼워지고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마음보관소’와 ‘마음약방’, ‘마음충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먼저 호리병에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적어 ‘마음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적는다고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스스로 마주하고 풀어내야 할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지혜를 닦을 수 있는 실천 수행도 함께 이뤄진다. 성장환경과 성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마음 처방’을 받는 것이다. 명언과 명상법, 자존감을 높이는 삶의 화두, 실천 과제 등이 담긴 108가지 마음약 가운데 현재 처지에 맞는 내용을 추천받는 방식이다. 이어 자신에게 맞춤 방법으로 마음 충전의 시간을 갖고 21일 동안 매일 변화 과정을 기록한다.



마가 스님이 동국대 자비명상 지도자과정 수강생들과 동대입구역 마음환승센터 앞에서 걷기 명상을 하고 있다.

21일 뒤 다시 센터를 찾으면 처음 마음보관소에 남겨둔 걱정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의 변화를 돌아본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며 얽혀 있던 마음의 매듭도 하나씩 풀어간다.

이와 함께 관에 직접 들어가 보는 죽음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삶을 돌아보는 시간도 제공한다.

마음환승센터를 찾는 이는 하루 평균 5~6명 정도. 인근 동국대 학생을 비롯해 청년층 방문도 적지 않다. 이들이 털어놓는 대부분의 고민은 연인 관계와 부모 갈등, 진로 문제, 자존감, 외로움과 고립감 등 다양한 마음의 문제들이다.

마가 스님은 현대인들의 마음 병이 깊어지는 이유로 단절된 관계를 꼽았다. 예전에는 사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지혜를 얻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사람과 점점 멀어지면서 스스로 고립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럴 때마다 스님은 “인생은 결국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며 조급하게 미래만 좇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 마가 스님은 “성공이나 돈, 행복만 바라보며 미래만 좇다 보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며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듯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면 좋은 미래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다시 앞으로 나아갈 빛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랜 시간 자비명상과 마음치유 활동에 앞장서며 시민들의 고민을 묵묵히 들어온 마가 스님도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2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다.

마음환승센터는 사람들 마음속 ‘종착역’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경유지’와도 같다. 마가 스님은 “마음이 지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게소 같은 공간이 전국 지하철 곳곳에 생기길 바란다”며 “지나가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만 보고 가도 마음이 변화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마가 스님은 앞으로 동국대 자비명상 지도자과정 수강생과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마음환승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우울과 불안, 번아웃, 관계 갈등, 비교 중독 등 현대인의 ‘21가지 마음의 병’을 주제로 한 치유 명상 프로그램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관계 단절로 외로움과 불안이 깊어지는 ‘손절사회’.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마가 스님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귀하고 천한 것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며 “늘 깨어 있는 마음으로 내가 말과 행동으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내영 기자

“‘문제아’ 아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승가결사체 ‘안양계’

정심여중고 불교반서 마음 돌봄
2014년 시작…승가결사체 인증
“교화보다 중요한 건 믿어 줌”
‘왜’보다 ‘얼마나 외로웠니’ 먼저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관계를 끊고 사람을 분류한다. ‘손절’이라는 말이 일상어가 된 시대, 누군가의 실수와 상처는 쉽게 낙인으로 굳어진다. 특히 ‘비행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냉혹하다. 하지만 이들을 향해 “왜 그랬니”보다 “얼마나 외로웠니”를 먼저 묻는 이들이 있다. 승가결사체 안양계(安養界)다.

안양계는 2014년 경 재마 스님이 안양의 소년원 학교인 정심여자중고등학교 불교반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시작됐다. 당시 재마 스님은 매주 30여 명의 학생들을 만나 상담과 불교 활동을 통해 마음의 성장을 돕기 시작했다. 이후 무관·지선·성문 스님 등도 힘을 보탰고 2018년 조계종 승가결사체로 인정받았다. 현재는 회장 시현 스님을 비롯해 무관·재마·지선·선우·지담·수인 스님과 재가불자 12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팀을 꾸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정심여중고 불교반 학생들을 만난다.

이곳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사회가 흔히 ‘문제아’라고 부르는 아이들이다. 그러나 안양계 스님들에게 이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삶의 힘을 찾아야 하는 청소년들이다. 3년 전부터 안양계 회장을 맡고 있는 시현 스님은 “아이들이 범죄조직에 휘말리거나 비행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정심여중고 불교반 수계법회 모습. 1년에 2차례 수계식이 열린다. 이날 아이들은 오계를 수지하고 참회진언을 외며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사진 제공=안양계

안양계 프로그램도 일반 종교 강의 수업과는 결이 다르다. 스님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이들과 관계를 맺는다. 한 스님은 불교 교리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고, 또 다른 스님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게 하며 감정 표현을 돕는다. 목탁 소리에 맞춰 〈천수경〉을 함께 독송하고 찬불가를 부르기도 한다.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교리도 진심으로 다가가면 아이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결국 관계가 먼저죠.”

시현 스님의 말처럼 안양계 활동의 핵심은 ‘교화’보다 ‘관계’에 있다. 실제로 처음에는 경직돼 있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표정이 달라진다.

시현 스님은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순수하고 여린 경우가 많다”며 “정말 나빠서라기보다 보호받지 못한 채 여기까지 온 아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는 어른과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안양계 활동에는 재가불자 자원봉사자들도 함께한다. 특히 중장년 봉사자들은 아이들을 만나며 오히려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선입견으로 소년원 봉사를 망설이던 이들도, 한 번 다녀오고 나면 간식 하나를 고르는 데에도 정성을 쏟는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다.

안양계 활동은 세대와 사회의 단절을 잇는 공동체 실험에 가깝다. 혐오와 배제가 익숙해진 시대 속에서 타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연습을 함께 해가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무량심(四無量心)’과 맞닿는 부분이다. 불교의 자비희사의 정신 역시 결국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데서 시작된다. 안양계의 활동은 바로 그 자비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준다.

시현 스님은 수행자로서 현장에서 가장 크게 배운 덕목 역시 ‘자비심’라고 했다. “예전에는 수행이 나를 닦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자비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화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 포교도, 교정교화도 사람을 마음으로 품는 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안양계는 현재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스님들과 재가자들의 자발적인 후원, 지역 사찰들의 작은 보시가 큰 힘이 되고 있다. 시현 스님은 앞으로 젊은 스님들과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안양계 스님들이 매주 정심여중고를 찾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안양=임은호 기자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도심 속 진리의 숲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Jungbupsa Temple

주지 우현 광우

- 사부대중 일동 -



● 비로선원 불사 중

포교

대자유치원 운영
1927년 설립 후 7,395명이 졸업했으며
188명의 원아가 재원 중입니다.

보현의 집(무료급식소)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무료급식과
도시락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불교학생회, 경남경찰청 법우회, 지역군부대

교육

영축불교대학
불교공부를 돕는 재가신도 교육기관으로
입문,전공,경전반,어록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법어린이문수회
150여 명의 어린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월 2회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기법회마다 100여 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문수선음어린이합창단
2023년 창단하여 매주 전문 지휘자와 함께
어울림의 소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신행활동

정법사신도회,영축다도회,본다리카합창단,
정법 불교거사림,영축불교대학총동문회,연심회,
문수선음자모회 등의 신행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보현부,여명회,초하루부,초삼일부,보름부,지장부, 관음부
등의 불사단체가 불사단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46
www.jungbupsa.or.kr Tel. 055-246-8393

정법사 홈페이지 유튜브채널 정법사 TV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호국도량

울산 **신흥사**

주 지 인 경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4길 280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주 지 **진 각**

사부대중 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대한불교조계종

울산 **문수사**

대중일동 합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수산길514(율리 1250-1)
전화 052)247-5458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 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전화 055)282-7402



회 주 **눌암 지정**
주 지 **향원 남수**

사부대중 일동

울산시 동구 녹수 5길 50
T.052)234-1188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

울산 덕원사

주 지 **태여 덕원**

신도회 일동



울산광역시 중구 성동길 129-10
전화 052)246-8688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남사

사부대중 일동

금강경 독송 정진기도 첫째주 월, 화, 수요일



대한불교조계종

창녕 청련사

주 지 **무 영**
부주지 **성 휴**
신도회장 **이판암**
총 무 **하주미**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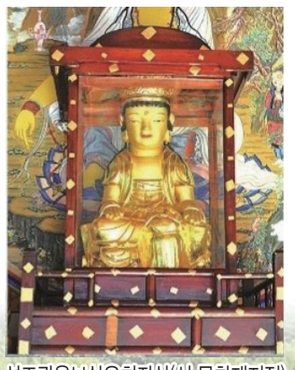
경남 창녕군 계성면 청련사길 99
전화 055)521-2185

대한불교조계종

가지산 보덕사

주 지 **효 암**
신도회장 **김남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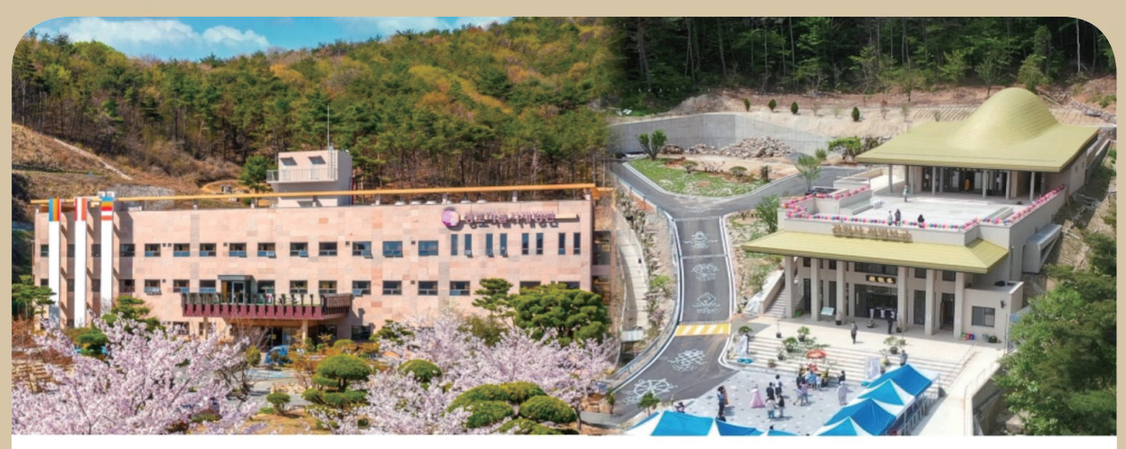
사부대중 일동



석조관음보살유희좌상(시 문화재지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 석리길 21-6
전화 052)267-0108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백련암

회 주 **원 택**
감 원 **일 엄**

사부대중 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118-116
전화:055)932-7300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행복 공동체

재단법인 정토마을







간월사 종무소 : 052-255-8588 / 010-2926-8500
자재병원 : 052-255-8400 / 010-3944-8409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손절사회, 자비로 잇다
지구촌은 세계일화

“조세이탄광 희생자 극락왕생 기원합니다”

관음종 유등제

5월 9일 총본산 낙산묘각사서
희생자 183위 추모유등 밝혀
조사 중 별세 빅터 씨 기려
유해 조사 촉구 성명 발표도


관음종 총본사 낙산묘각사 원통보전에 불 밝힌 유등(油燈)들. 가운데 원형으로 모인 등불이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조선인 · 일본인 희생자 183위와 이들의 유해 조사를 하던 중 유명을 달리한 빅터 씨를 추모하는 유등이다. 관음종은 5월 9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상생과 평화의 유등제’를 봉행했다.

“작은 유등의 불빛은 빈부귀천이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평등하게 비춥니다. 오늘 유등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화합의 한마당입니다.”

일본 조세이 해저 탄광 붕괴사고로 목숨을 잃은 183명의 조선인·일본인 노동자와 이들의 유골을 찾기 위한 잠수 조사에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대만인 잠수사 빅터 씨를 추모하는 유등(油燈)이 불을 밝혔다.

관음종(총무원장 도각 스님)은 5월 9일 총본산 낙산묘각사에서 불기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상생과 평화의 유등제’를 봉행했다.

기름 등불을 밝히는 ‘유등제’는 관음종만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로 올해에는 84년 전 조세이탄광에서 차가운 바닷물에 스러져간 183명의 희생자들과 또 그들의 유골을 찾기 위해 자비심으로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대만인 잠수사 故 빅터 씨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돼 그 의미를 더 했다.

기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아픈 역사다. 1942년 2월 3일 해저탄광인 일본 우베 탄전의 조세이탄광에 바닷물이 유입돼 침수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 136명과 일본인 노동자 4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일본은 전쟁 중이어서 보도 통제가 심해 사건은 일반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조세이탄광 사고를 세상에 알린 것은 일본 시민들이 만든 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대표 이노우에 요코, 이하 새기는회)’였다.

새기는회는 1991년부터 강제 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의 한국 이름을 찾아 118명의 유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한국 유족들은 피해자 유족회를 결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 유족회와 일본 새기는회의 활동으로 2013년 강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노동자의 위령비가 건립됐다.

위령비 건립 후 새기는회는 2014년부터 단체 사업 목표를 추모에서 유해 발굴 및 본국 송환으로 전환했다. 일반 시민단체가 유해 발굴 조사를 이끄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때부터 한국불교계가 이들과 함께했다.

관음종은 2015년 창종 5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희생자 무연고 영골에 대한 환국사업을 펼치기로 결정했고, 2017년부터 매년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 또한 관음종은 매년 100만엔을 후원기금으로 전달하는 등 유해발굴을 지원해 왔다. 새기는회의 노력과 관음종의 지원으로 지난해 8월에는 잠수조사 중 본 갱도 안에서 희생자 4명의 유해가 발견되는 성과를 거뒀고 올해 2월 조사에서도 유해 1구가 수습됐다. 하지만 조사 도중 대만인 잠수사 빅터 씨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이날 낙산묘각사 원통보전에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조선인·일본인 희생자 183위와 빅터 씨를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 및 행사 참여 대중의 유등이 불을 밝혔다.

종정 영산 홍파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일화를 소개하고 등공양의 의미를 되새겼다. 홍파 스님은 “난타의 작고 보잘 것 없는 등불이 가장 오래 탈 수 있던 것은 진심을 담아 불을 밝혀 공양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등공양의 전통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졌고 기름 등불에 불을 밝히는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가는 종단 바로 관음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183위와 잠수사 빅터 씨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마음으로 밝힌 등불로 참여 대중 모두 복전을 일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외빈들은 인사말을 통해 유등제의 의미를 되짚었다.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에서 유등은 자신의 몸을 태워 세상의 짙은 어둠을 가르고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발산하는 숭고한 이타행의 결정체”라며 “부처님의 자비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유등의 심지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 등불은 내 안의 이기심을 태우고 타인의 아픔을 어루만지겠다는 대자대비의 서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비의 등불은 84년 전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등불이자 타인을 위해 자신을 던진 잠수사 빅터 씨의 인류애를 밝히는 빛”이라며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이 등불의 온기가 작은 위로이자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향한 길잡이가 되길 기원한다”고 추모했다.

유가족을 대표해 단상에 오른 이기병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한국유족회 부회장은 관음종 사부대중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유해 조사 중 유명을 달리한 빅터 씨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 부회장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 밝힌 이 눈부신 빛을 따라 이제 그만 캄캄한 바다에서 나와 따듯한 고향의 품으로 돌아와 달라”면서 “오늘 밝힌 등불이 유족에게는 상처를 씻어내는 치유의 빛이자 고인들에게는 온전한 회향을 이끄는 희망의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이날 유등제에서는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관음종은 사회부장 현성 스님이 대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과 고국 봉환에 즉각 나설 것을 한일 정부에 촉구했다.

관음종은 “더 이상 민간의 희생과 눈물에만 무거운 짐을 방치할 수 없다. 84년의 긴 침묵을 깨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마음을 열고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합의한 희생자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 △중단된 유해 발굴 재개를 위한 전문 장비와 예산 지원 △희생자들의 고국 봉환을 위한 상설 협의체 가동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관음종은 “낙산묘각사에 밝힌 상생과 평화의 유등이 고인들을 모시는 길잡이가 될 때까지 관음종과 유족들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일면 스님 “생명 살리는 일엔 국경 없다”

생명나눔실천본부

2024년부터 해외구호 본격 나서
캄보디아 취약 지역에 50억원 물품
시엠립 사찰 연대 맞춤형 구호 전개
지원 넘어 불교적 생명공동체 구현

1994년 설립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불교계 유일이자 국내 대표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 단체다. “한 생명의 나눔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기치 아래 32년간 장기기증 캠페인과 조혈모세포 기증 등록, 백혈병·소아암 환자 치료비 지원, 저소득 환자 의료비 후원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이 같은 경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구호 활동으로 확대됐다. 팬데믹을 거치며 의료격차와 생존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4년, 창립 30주년을 맞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국경이 없다”는 취지로 국제구호 사업에 본격 나섰다. 그 중심에 캄보디아가 있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해외구호 첫해인 2024년, 20억 상당의 의료물품을 캄보디아에 전달하며 본격적인 국제 자비행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5년부터는 현대불교신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자비나눔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보다 체계적인 해외구호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

캄보디아 복지시설, 취약계층 마을을 직접 방문해 의료 환경을 점검하고 긴급히 필요한 물품들을 전달했다. 특히 한국에서 기증받은 각종 의료물품을 컨테이너 규모로 지원하며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지원 품목도 구체적이다. 휠체어와 보행보조기, 환자용 침대와 의료소모품, 마스크와 위생용품 등이 포함됐다. 일부 의료기관에는 진료에 필요한 기본 의료장비도 전달됐다. 현지 병원들은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의료기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만큼 한국에서 전달된 물품들은 곧바로 환자 치료에 사용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직접 캄보디아를 찾아 병원 관계자와 의료진,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어느 지역에 어떤 물품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실제 사용 가능 여부까지 점검하며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다.

특히 시엠립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접근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 드러났다. 경제적 이유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았고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러한 상황을 접하고 의료물품 지원뿐 아니라 생필품 나눔과 취약계층 돌봄 활동도 함께 펼쳤다.

현지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 활동도 이어졌다. 빈곤 지역 아동들에게 학용품과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도 지원했다. 질병과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으려면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현지 사찰과의 연대 역시 눈길을 끄는 지점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현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이자 교육과 복지, 정신적 의지처로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찰을 선별, 협력하며 구호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보편적인 해외 원조가 아니라 불교라는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국제 연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해외구호 활동 규모는 2024년 이후 현재까지 약 50억원에 달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해외구호 활동은 현재진행형이다. 일면 스님은 “3년에 걸친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의료진 파견 및 시설 보수 등 포괄적 지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는 2024년부터 국제구호 활동을 시작하며 캄보디아 시엠립 일대에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사진은 일면 스님이 3월 19일 리엄다이 초등학교에 방문, 학생들에게 교복과 학용품을 전달하는 모습.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금산 보 리 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 (055)862-6500, 6115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손절사회, 자비로 잇다
지구촌은 세계일화

후원 100억원 돌파 '보건' 국제 자비행 본격화

나누며하나되기

'가장 소외된 이웃' 이주민 등 지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치 구현


나누며하나되기가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시엠립 재캄한인회 사무실에서 주민과 교민 약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료 모습.

천태종이 설립한 NGO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보광 스님)는 국내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이주민·재외동포·해외 재난지역 지원 등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국내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한 물품 규모만 약 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연대와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기치로 내건 나누며하나되기의 활동은 무엇보다 '가장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와 고려인 동포, 난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 안전망 밖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생활·문화 지원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더욱 적극적인 국제연대 활동에 나섰다.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에게 마스크와 생필품, 방역물품을 지원했고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들을 위해 생활 안내와 상담 지원까지 병행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이주민 지원 활동은 나누며하나되기의 대표적인 실천 분야 중 하나다.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은 한국사회 안에서 가장 쉽게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이들이다. 나누며하나되기는 이들을 '지원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바라본다. 이에 따라 문화체험과 전통문화 나눔, 김장 지원, 의료봉사, 긴급 생계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정서적 안정을 돕고 있다. 물질 지원을 넘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나누며하나되기는 최근 해외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으로 활동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4월 21~22일 캄보디아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지역 주민과 교민 약 400명을 대상으로 진료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행복나눔 전달식'도 함께 진행하며 5000만원 상당의 의료물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했다. 나누며하나되기는 이번 의료봉사를 계기로 국제구호와 보건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며 불교계 자비 나눔의 가치를 해외 곳곳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창호 사무처장은 "지금 사회는 점점 타인을 밀어내고 혐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불교는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친다"며 "이주민과 재외동포, 해외 취약지역 주민들을 돕는 일 역시 결국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재난 현장서 '자비의 연결' 실천

더프라미스

'마음 지킴' 주목해 정신건강 지원
미얀마 긴급구호·스리랑카 교육


팔레스타인 심리사회적지원 기관 SAWA는 더프라미스와 협력해 24시간 원격 심리상담을 진행했다.

혐오와 단절, 무관심이 일상이 된 시대. 세계 곳곳의 전쟁과 재난이 인간의 삶을 더욱 극단으로 내몰고 있다. 시대적 고통 속에서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는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주목하고 있다. 상처 입은 공동체의 회복과 연결을 돕는 활동이다.

최근 더프라미스는 팔레스타인 현지 심리사회적지원 기관 SAWA와 함께 '팔레스타인 인도적 위기 정신건강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가자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전역 주민들에게 24시간 원격 심리상담 체계를 제공하며 전쟁 트라우마 치유와 마음 돌봄 활동을 이어갔다.

현지에서 상담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다. 더프라미스는 "상담은 주민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됐다"고 전했다. 병원도 쉼터도 무너진 전쟁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됐다.

특히 더프라미스는 피해 주민뿐 아니라 상담사들의 마음까지 돌봤다. 상담사들을 위한 스태프케어(Staff Care) 프로그램과 치유 공간 조성 활동도 함께 진행하자 참여 상담사들은 "상담을 지속할 힘을 다시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멀리 한국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찾아와 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로였다"고 전했다.

더프라미스의 활동은 전쟁 지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3월 미얀마 강진 직후 묘장 스님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긴급구호팀을 꾸려 만달레이와 사가잉, 인레 지역을 찾아 쌀과 식용유, 식수, 여성용품, 모기장 등을 지원했다. 이후 우기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공동체 회복 중심의 2차 지원 활동도 이어갔다. 학교 화장실 건축과 물탱크 설치, 재건축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이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특히 더프라미스는 피해 지역 사찰의 복구에도 나섰다. 현지에서 사찰은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의지하는 공동체 공간이기 때문이다. 재난 이후 공동체가 다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스리랑카 차밭 산골마을에서도 더프라미스의 자비행은 이어지고 있다. 사이클론 피해로 지반이 갈라지고 벽면이 무너져가는 '발라라미티 유치원'은 마을 아이들의 유일한 교육 공간이다. 더프라미스는 조계종과 함께 지반 안정화와 건물 보수,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쟁과 재난의 현장에서 더프라미스는 전하는 메시지도 결국 하나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임은호 기자

연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로터스월드

2004년 설립, 교육·복지 사업
아동센터 운영·직업훈련 지원
2007년부터 4만여 명 안과 치료
"자비 넘어 지속 가능한 연대 실천"


캄보디아 로터스희망미용센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

국제구호 및 지역개발 NGO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2004년 법인 설립 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라오스, 미얀마 등지에서 교육·복지·보건·지역개발 사업을 펼쳐온 불교계 대표 국제구호단체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사장 성관 스님의 신념 아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이어오다 2014년 유엔 국제경제사회이사회(ECOSOC)로부터 특별협의지위 NGO로 선정되며 국제사회로부터 공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로터스월드의 활동은 해외 원조를 넘어 현지 주민들이 스스로 삶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자립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4년 캄보디아 정부와 업무협정을 체결한 로터스월드는 정부로부터 앙코르와트 유적 인근 4만㎡(1만2000여 평) 규모의 부지를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2년 뒤인 2006년, 아이들 100여 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로터스월드 BWC 아동센터'를 개원하며 본격적인 현지 지원 사업의 문을 열었다.

아동센터는 단순 교육시설이 아니다.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이들에게 교육의 문을 열어주고, 방과 후 돌봄과 기초생활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며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로터스월드는 아이들이 빈곤의 악순환 속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로터스희망미용센터'다. 이곳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미용 기술교육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있다. 생계 지원을 넘어 스스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의료 지원 역시 로터스월드 활동의 중요한 축이다. 캄보디아 주민들은 강한 자외선과 열악한 위생환경으로 인해 백내장, 익상편 등 안과 질환 발병률이 높다. 하지만 부족한 의료 인프라와 어려운 경제 여건 탓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소독과 약물치료,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는 질환조차 방치돼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거나 안구적출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로터스월드는 2007년 BWC센터 내에 진료소를 마련했고, 김안과병원이 2억원 상당의 수술장비와 검진기기를 지원하며 본격적인 의료봉사가 시작됐다. 특히 2016년부터는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반영해 백내장 수술뿐 아니라 의안 시술까지 도입했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약 4만3000여 명을 진료했고 백내장 등 안과 수술만 3000여 건을 진행했다. 안구 적출 후 안면 윤곽 변형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은 의안 시술을 통해 외형 복원을 넘어 다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한다. 의료봉사가 긴급 구호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활동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로터스월드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불교 정신을 국제사회 속에서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나누기보다 서로 연결된 존재로 바라보며 자비와 연대의 가치를 현실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로터스월드의 활동은 불교계 구호단체를 넘어 세계 시민사회 속 연대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가장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리에서 희망의 꽃을 피워내는 일. 그것이 바로 로터스월드가 지향하는 불교적 국제연대의 모습이다. 임은호 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울산 백양사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이사장
백양사 주지
묵암 지선 합장

사부대중 일동

(사)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에서 현재
데이비드 호크니의 미디어아트 상영 중

홈페이지 http://www.bysa.or.kr
YouTube 울산 백양사 검색
Ch 카톡에서 울산 백양사 채널 추가하세요


함월산 백양사.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67 / 052-243-8712 / 245-8712
백양사 유튜브 YOUTUBE 울산 백양사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사부대중 일동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전화 055)746-8162 팩스 055)746-7825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안**

사부대중 합장

참다운 수행자라면 진리에 순응하는 마음에 틀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대행선사 법어 –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전화 052)295-2335 팩스 052)295-2336

단청이 아름다운

화개산 반야사

주 지 **종오 혜명**

사부대중 일동

마음으로 함께하는 참다운 기도도량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34-354
전화 055)231-0994, 221-1072 팩스 055)242-1072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불지사

주 지 **청계 정인**

앞서가는 가르침, 부처님 따라하기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2
전화 055)262-6663

경남고성군불교사암연합회

고성불교사암연합회 스님 일동

재)대각문화원

밀양 영산정사

주 지 **영봉 법웅**

신 도 회 장 **송한기**
관 음 회 장 **전옥이**
지 장 회 장 **신순덕**
신도회총무 **조혜진**
사 무 장 **능인행**

세계최대 황금와불



경남 밀양시 무안면 가례로 233(서가정)
전화 055-356-0181, 010-3417-5008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정인사

주지 원행

함께하는마음 즐거운세상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노인복지관 분관)
마산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마산시니어클럽
마산회원시니어클럽, (주)고을, 금강어린이집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길 118
전화 055)299-5450



대한불교조계종

울산 동축사

사부대중 일동

울산광역시 동구 옥류로 93
전화 052)251-0410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회 장 법안(성주사) 수석부회장 광우(정법사)

상임고문	지태(봉원사)	원행(정인사)	도홍(불곡사)	정인(불지사)
	원정(성흥사)	상운(정암사)	황봉(관음사/용마산)	춘광(삼학사)
	화산(원흥사)			
고 문	운남(봉림사)	월봉(석봉암)	호정(세심사)	석봉(백운사)
	성일(수선정사)	구하(관음정사)		
부 회 장	지암(송림사)	석산(우곡사)	성욱(영진사)	원문(금룡사)
	월서(길상사)	무성(구룡사)	청호(관음사/천주산)	
감 사	무아(진불선원)	해암(용천사)	혜명(반야사)	
사무총장	성욱(영진사)	포교부장	선묵(관음사/장복산)	
총무부장	자경(대광사)	문화부장	해륜(광산사)	
재무부장	선해(미타사)	복지부장	성우(천웅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 용지로 96 하이페르상가 14층
H.P 010-5246-2112

대한불교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암연합회

자 문	눌암 (법륜사), 지용 (남산사)	총무부장	남수 (법륜사)
상임자문	남현 (내원암), 덕진 (정토사)	기획부장	효암 (보덕사)
	명본 (태화선원)	교무부장	인경 (신흥사)
회 장	혜원 (해남사)	재무부장	혜안 (한마음선원)
감 사	본명 (등룡사)	사회부장	덕인 (도솔암)
부 회 장	문성 (문수사), 지선 (백양사)	포교부장	정진 (태안사)
	보화 (월봉사), 태암 (관음사)	복지부장	명조 (선암사)
	종선 (청룡암), 천조 (석남사)		

부설 울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혜안 (성불사)
부설 울산사암연합합창단 단장 기탁 (화봉선원)

회원 일동

울산 광역시 중구 백양로 62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 2층
전화 052)266-3318~9 팩스 052)261-1285

대한불교조계종

동국제일선원 내원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내원로207
전화 055-374-6466



(사)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

회원 일동

울산시 중구 백양로 62
태화복합문화공간 만디(지하1층)
전화:052-271-1310
팩스:052-258-1370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사단법인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혜안 효종**
사서실장 **보인**

총무원장 보운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정목** 포교원장 **법연**
종회의장 **법우** 부의장 **자운 보덕** 사무총장 **보성**

총무부장 **보림**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정운** 포교부장 **보월** 감찰부장 **무공**
총무국장 **보미** 재무국장 **보리** 교무국장 **보심** 감찰국장 **보명**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지리산 칠보정사
전화 055)883-7771, 7790

(사)대승불교조계종
The Mahayana Buddhist Jogye Order

이사장 **현 담**

이 사 **인각 법광 만법 도각 법공 경천 법연지**
감 사 **대성 안도**
각 교구장 및 대의원 일동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신상명세서, 증명사진 2매 등

법인사무국 :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백룡사
전화 055)832-8367 / 팩스 055)832-8368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종도모집

(문화관광부 허가 제2017-7호 법인등록 194621-*******)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 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종회의장 **법륜**

승 정 원 장 **월해** 호 법 원 장 **해월**
감 찰 원 장 **성호** 교 육 원 장 **영호**
포 교 원 장 **덕해** 포 교 부 장 **장문**
호 법 부 장 **문경** 서울교구원장 **법혜**
감 찰 부 장 **경오** 경북교구원장 **천호**
대전교구원장 **수진**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입종사찰 : 전남 여해사 여해스님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한마음108종도일동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 0025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0-3870-0021

응공조계종

종 정 **법운**
총무원장 **명진**

총무부장 **지암** 교육원장 **경담**
재무부장 **민공** 감찰부장 **경봉**
비구니원장 **혜진** 사서실장 **경도**



주소: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동명사
전화:054-974-2605

대한불교 능인종

사부대중 일동



총무원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905-13(청룡사) 전화055)585-5300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호 서호**
총무원장 **법웅 정관**

원로원장 **용정 일월** 사회부장 **용화 해월**
교육원장 **월화 법봉** 교육부장 **법타**
문화원장 **법경 월명** 총무국장 **무화 무경**
복지원장 **법수 청운** 부산교구종무원장 **보화 원도**
기획실장 **진명**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월명**
고시원장 **보화 원도**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총무원장 법웅 정관

총무원 : 경남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 불·법·승 ◈
문관부 제66호

사단법인 대승불교삼보조계종

1세종정 滅空대종사 법주 正覺대종사

원로원장 **월봉** 종회의장 **지홍** 원로부원장 **정공. 정민**
감찰원장 **진성** 총무원장 **법장** 교육원장 **덕일**
포교원장 **법진** 사무총장 **평산** 종회부의장 **법융**
각부원장 **용현. 종욱. 진각**

중앙종회의원 **월봉 지홍 법장 법융 진성 덕일 법성 평산 법륜 무공 종욱 법진 지일 도능 법정 용현 선묵 도관 도연 천보 도오 도율 무상 (法人이사)**

총무부장 **지일** 교육부장 **도오** 규정부장 **선묵** 문화부장 **도능**
총무국장 **상묵** 포교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기획국장 **청붕**
총무과장 **만주** 사서국장 **도율** 규정국장 **대연** 사무장 **신연화성**

학인모집
불교경전 의식(선교학 · 범패 · 어산 · 바라 · 작법무)
대한불교종립기관 승가대학 교육원 · 염불원

■ **총무원** 경남 김해시 호계로499번길4 전화 055)338-0089 팩스 070)7966-2830
■ **중앙종회** 부산시 금정구 반송로 440-9 전화 051)524-8932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자문위원 (은덕사) 종천 (성덕암) 법신 (태광사) 천존

서울종무원장 (현암사) 무각
마산종무원장 (삼선암) 정안
울산종무원장 (휴휴암) 일행
진주종무원장 (구룡사) 진성
김천총무원장 (약수암) 자운
호법원장 (구천사) 상원
문화원장 (문수암) 승태
비구니원장 (묘음정사) 덕운
교육원장 (성불사) 무덕
경기종무원장 (수마사) 진석
대구종무원장 (무상사) 일불
창녕종무원장 (성불사) 무덕
부산종무원장 (용음사) 명주
밀양종무원장 (양명사) 법성
감찰원장 (유리사) 법철
포교원장 (연화사) 연화
총무원신도회장 (보리심)

무연고자 장례 및 선천성어린이 심장병돕기 종단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대한국불교조계종 사부대중 일동

대한국불교조계종(총연합회)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입종시 사암등록증·주지임명장·승려증 발행

창원시 마산 회원구 광려천북로208 총본산 불광사
전화 (055)232-7819, 010-8540-8209 대표이사 : 호산 성보

(사)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정 **효산현각**
총무원장 **지호혜관**
(이사장)

사정원장(이사) **성군**, 쌍암사(이사) **덕산**, 금정사(이사) **덕심**,
사정부장(이사) **자공**, 사회부장(감사) **향광**, 재무부장 (감사) **선혜**,
교무부장 **보명**. 울산종무원장 **향광**, 비구니원장 **보명**,
서림사 **현각**, 법성사 **인덕**, 천광정사 **취운**, 연화사 **일허**, 운고사 **운고**,
용연사 **취암**, 천운사 **현장**, 동방원 **법운**, 동방원 **효혜**, 불심정사 **혜관**,
대왕정사 **혜월**, 미정사 **선혜**, 무심사 **보명**, 보우선원 **성군**, 칠성암 **무설**,
관음사 **월명**, 용덕미륵정사 **영주**, 계령미륵정사 **계령**, 보광정사 **자공**,
약불암 **무여**, 천심정사 **진토**, 쌍암사포교원 **향광**, 태을사 **태을**,
백련암 **문정**, 화성암 **성화**, 금강사 **금강**, 금오사 **금오**, 칠원정사 **도원**

종도모집합니다

■ 총본산 :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384-3 서림사
■ 총무원 : HP. 010-4590-5539 FAX. 052)275-5539
■ 사정원 : HP. 010-5061-8300 ■ 울산종무원 : HP. 010-4546-1100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 봉**(흥해 연봉사 주지)

심우사 **도광 (원로의장)**
미륵암 **지엄 (중앙종회원장)**
서광사 **원영 (원로의원)**
후원정사 **무상 (호법부장)**
미륵암 **지관 (사정원장)**
선돌사 **해법 (포교원장)**
광명사 **선광 (문화원장)**
효심사 **해안 (홍보원장)**
자운암 **묘정 (문화부장)**
용문사 **도견 (수선원장)**
현법사 **혜명 (교육원장)**
대관음사 **법행 (사회부장)**
불성사 **지덕 (문화원장)**
연화정사 **연후 (포교단장)**
천지암 **보덕심법사 (포교부장)**

*** 입종을 환영합니다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흥로 540-17
전화 054)262-5060

사단법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회의장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무국장 **동석 우석**
문화원장 **덕일 금산** 총무부장 **동봉 태공**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고시원장 **도진 동영** 복지원장 **동법 혜조** 의전원장 **동민 경오**
사회원장 **덕진 도광** 수선원장 **동성 혜각**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회위원 일동



총무원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 · P : 010-3595-6522, 010-8939-6522

사)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송 청파**

고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중앙불교 조계종 종정 **우담**
한국불교 대불종 총무원장 **만주**



소속명단
대한불교 통일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한국근본불교 해동종 종정 **정일**
대한불교 법보 조계종 종정 **향운**
사)함께가는길이사장 **혜상**
생활실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해동자비원원장 **만호**
한국불교 법상조계종 종회의장 **법장**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교육원장 **도문**
한국불교 미륵선종 종정 **해일**
대만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일산자비원원장 **도일**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감찰원장 **동암**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고시원장 **동영**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경기종무원장 **동일**

◉ 각 종단 총무원장님 :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종단연합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우)50809
전화 055)336-0108. 335-0178, 323-0108 팩스 055)996-7070
HP : 010-3595-6522, 010-8939-6522

사찰음식, 지속가능 식문화로 부상하다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 의미와 과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5월 19일은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으로, 스님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한다. 사찰마다 다양한 음식이 전승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불교 사상에 기초해 육류와 생선, 오신채(마늘·파·부추·달래·흥거) 없이 조리하는 채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역사적으로도 '사찰음식'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다. 고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목은시고(牧隱詩藁)〉와 같은 문헌에서 채식만두와 산갓김치 등 사찰의 음식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묵재일기(默齋日記)〉 〈산중일기(山中日記)〉의 기록을 통해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의 주요 공급처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대부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민간과 교류해 온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지정 당시 국가유산청은 선정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사찰음식'은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해 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존중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문화를 형성했다. 현재에도 사찰 내에서 왕성히 전승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지정 가치를 인정했다."

사찰음식, 트렌드가 되다

현재 사찰음식은 한국 식문화 트렌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열린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 수여식'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받았다. 상·하반기 합쳐 총 9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는 2015년 제도 시행 후 최다 인원이다.

'사찰음식 전문조리사 자격증'은 조계종이 공인한 유일한 사찰음식 관련 자격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사찰음식 교육관 '향적세계'나 사찰음식 특화사찰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같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는 서수연 조리기능장도 있다.

대전 영선사에서 법송 스님에게 사찰음식을 배운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연주의 음식이 트렌드인데 학교에서 사찰음식을 가르치면 반응이 매우 좋다"면서 "몸을 이롭게 하는 사찰음식을 배우고 한식의 맥을 이어간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사찰음식은 수행식을 넘어 국내 셰프, 전문조리사부터 일반 대중까지 선호하는 식문화가 됐다. 문화사업단이 지난해 6월 7~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한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는 2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특히 사전등록자 기준 57%가 20~30대여서 사찰음식에 대한 젊은 층의 수요가 뚜렷했다.

이는 '가치 소비', '착한 소비'로 대표되는 MZ세대의 윤리적 소비 트렌드와 불살생·절제·생명존중 등의 철학이 담긴 사찰음식이 잘 맞물린다는 증거다. 불살생·절제·생명존중의 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수행의 식문화라는 '가치서사'가 담긴 사찰음식은 '미닝아웃(신념 기반 소비)'과 맞물리며, 젊은 층에게는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증명하는 한 끼"로 해석되고 있다.

'흑백요리사2', '공양간의 셰프들', '철학자의 요리' 등의 프로그램에 사찰음식 명장 스님들이 출연하며 사찰음식의 가치와 철학을 알린 것도 인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문화사업단, 대중화 '하드캐리'

사찰음식의 교육과 대중화를 이끄는 곳은 문화사업단이다. 문화사업단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이후에도 전승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체험관 운영, 국내외 사찰음식 홍보, 국제 교류와 연구 등을 추진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사찰음식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행보는 그 폭이 매우 넓다. 문화사업단은 세계 3대 요리학교인 르꼬르동블루와는 2022년 협약을 체결하고 사찰음식을 채식전문과정(Plant-Based Culinary Arts)의 정규과목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올해에는 뉴욕 하이드파크에 위치한 '미국 요리학교 CIA(The 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이하 CIA)'와 한국 사찰음식 교육 및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CIA 교육과정 내에서 한국 사찰음식과 한국 음식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강연, 워크숍, 교수진 및 학생 교류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채소, 곡물, 허브,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식물성 중심의(Plant-forward) 조리 교육을 통해 사찰음식이 지닌 철학과 지속가능한 식문화 가치를 세계 요리 인재들에게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기후 위기 시대, 지속가능 식문화

사찰음식이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는 지속가능한 식문화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식문화는 중요한 화두다.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음식을 선택하는 '기후미식'이라는 개념이 부상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는 '국가 식이가이드(Food-based dietary guidelines)'에 적용해 풍부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로 된 빵과 파스타 섭취를 권장하며 단백질도 되도록 식물성 식품을 통해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모두 '지속가능한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지난해 8월 19일 문화사업단이 주최한 '사찰음식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한 세계 음식학 석학들은 지속가능한 식문화의 해답으로서 한국불교의 사찰음식에 주목했다.

지속가능한 음식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파올로 코르보(Paolo Corvo) 이탈리아 미식과학대 교수는 "지역에서 각자가 재배한 음식을 조리하는 사찰음식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삶, 후속 세대가 삶의 질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지속가능성의 본질이며 진정한 생태적 전환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좋은 음식'을 선택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사찰음식은 이런 책임의식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석학들이 매료된 사찰음식 본질에는 바로 '오관게'가 있다. 브렌던 R. 월시 미국 CIA 학장은 "'오관게'에 식문화의 미래가 담겨 있다"며 "최근 CIA는 음식물 쓰레기, 재료를 대하는 방법, 동물복지 등의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대한 해답이 사찰음식에 있다"고도 했다.

2026년 현재 사찰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바르게 먹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자 기후 위기를 넘어서는 '지속가능한 식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불교 공양의식 발우공양 모습. 사찰음식의 철학과 가치가 담겨 있다. 사진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2025년 5월 19일 지정 공고
"불교 생명존중 식문화" 인정
문화사업단, 교육·대중화 견인
'오관게' 철학, 대중에 전파를

숫자로 본 사찰음식

- 6명 사찰음식 명장 스님
- 26명 사찰음식 장인 스님(1급 12명, 2급 14명)
- 627명 사찰음식 전문조리사(스님 117명, 재가자 510명)
- 15개 사찰 사찰음식 특화사찰
- 약 4000명 사찰음식 정규강좌 수강생 기준(2011년~2025년)
- 약 21만명 사찰음식 사회공익 활동 참가자
- 약 16만명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방문객(2016년~2025년)
- 약 7만5000명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강좌 참가자(2016년~2025년)



수행의 밥상서 세계인의 문화 자산으로

사찰음식 세계화 위한 전문가 제언



2022년 르꼬르동블루 파리에서 진행된 사찰음식 홍보행사 모습. 수행을 위한 공양이었던 사찰음식은 현재는 지속가능한 식문화로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지난해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한국 식문화사에서 매우 뜻깊은 사건이었다. 단순히 특정 음식이나 조리법이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넘어, 오랜 시간 산사에서 이어져 온 삶의 방식과 철학이 오늘날 사회에 필요한 가치로 다시 조명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사찰음식은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절제와 균형의 철학이 깊게 담겨 있다. 빠른 소비와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사찰음식은 불교음식을 넘어 삶의 방향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문화적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다.

사찰음식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온 삶의 문화이다. 사찰에서는 오래전부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중요하게 여겨왔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식재료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며 낭비하지 않는 태도는 수행의 과정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사찰음식은 단순한 채식과는 결이 다르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만들고 먹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음식은 몸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과정이라는 철학이 담겨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점점 더 빠르고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지고 있다. 간편함과 효율이 중요해지면서 음식 역시 소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사찰음식은 오히려 느림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고, 오랜 시간 발효를 기다리며,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식은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와 연결된다. 이는 단순히 건강한 식단을 넘어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사찰음식은 2017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을 통해 소개된 정관 스님의 이야기를 계기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정관 스님은 화려한 기술이나 장식보다 자연과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세계 미식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직접 기른 채소와 오랜 시간 숙성한 장을 사용해 음식을 만들었고, 그 과정 자체를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는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울림을 주었다.

특히 "식재료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말은 전 세계 셰프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기술과 창의성이 중심이었던 현대 미식 문화 속에서 정관 스님의 철학은 음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후 해외 유명 셰프와 미식가들이 한국 사찰음식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기 시작했고, 사찰음식은 단순한 전통음식을 넘어 하나의 철학적 식문화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요리계급 전쟁'을 통해 선재 스님이 선보인 사찰음식의 철학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다소 낯설고 제한적인 음식으로 여겨졌던 사찰음식이 이제는 건강과 웰니스, 지속가능성을 상징하는 대중적인 식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방송과 콘텐츠를 통해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젊은 세대 역시 건강과 환경, 삶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찰음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 최근 사찰음식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는 이유는 한국 식문화가 축적해 온 삶의 방식이 담겨 있기 때문
>
> 현재 세계 식문화의 흐름은 지속가능성 중요하게 바라봐
>
> 사찰음식, 한국이 세계 제시할 중요한 문화 자산으로 평가돼

과거에는 어렵고 생소한 음식으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추구하는 식문화로 이해하는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사찰음식이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한국 식문화가 축적해 온 발효의 지혜와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된장과 간장, 고추장 등 장 문화로 대표되는 발효 음식은 한국 음식의 깊이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사찰에서는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오랜 시간 발효한 장으로 맛을 낸다. 이 과정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빠르게 만들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깊이를 더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발효문화는 한국 식문화의 중요한 자산이며, 최근 세계적으로도 건강한 식문화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24년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 역시 이러한 가치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다. 지역의 기후와 물, 사람의 손맛, 오랜 시간이 함께 만들어낸 한국 고유의 문화다. 특히 사찰에서는 오랜 세월 축적된 방식으로 장을 만들고 보관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한국 발효문화의 전통을 이어왔다.

사찰음식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인류는 기후 위기와 음식물 쓰레기 문제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사찰에서는 식재료를 가능한 한 남김없이 사용하는 '전식'의 개념을 실천해 왔다. 채소의 뿌리와 줄기, 잎까지 모두 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좋은 사례다. 또한 '발우공양'을 통해 먹을 만큼만 담고 남기지 않는 문화 역시 현대사회가 주목해야 할 가치다.

최근 세계 식문화의 흐름 역시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과거에는 맛과 화려함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음식이 환경과 건강,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찰음식은 한국이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식진흥원 역시 사찰음식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전통음식 소개를 넘어, 사찰음식에 담긴 철학과 문화적 의미를 함께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음식이 단순한 형태로 소비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가치가 함께 이해되어야 비로소 지속적인 문화적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사찰음식이 단순한 유행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건강식과 비건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찰음식 역시 하나의 트렌드처럼 소비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찰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채식 메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에 있다. 음식의 속도보다 과정의 의미를 생각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고민하게 만드는 데 사찰음식의 본질적 가치가 있다.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은 이러한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 사찰음식은 과거의 전통에 머무르는 문화가 아니라 오늘의 시대와 미래 세대에도 필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무엇을 먹느냐가 곧 삶의 방식과 연결되는 시대에, 사찰음식은 한국이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다. 특히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한국 발효문화의 가치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처럼, 사찰음식 역시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계승해야 할 보편적 문화유산으로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생명 존중과 절제,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사찰음식의 철학은 오늘날 인류 사회가 직면한 여러 과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찰음식 또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이어져 세계인이 함께 향유하고 공감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화려하지 않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음식,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생각하게 만드는 음식, 그리고 절제와 균형의 가치를 담은 음식, 그것이 바로 사찰음식이다. 앞으로도 사찰음식이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로서 세계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문화적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한식진흥원 또한 이러한 가치가 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해인사말사
진주 호국사
주 지 학암
신도회 일동
진주 호국사 부처님 진신사리
(증식사리 44과) 친견 봉안
친견기간
2026년 5월 17부터
2026년 8월 24일 100일간
오전 9시~오후 5시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71(진주성내 호국사) 전화 055)741-4394

영남최고의 관음기도도량
천성산
미타암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주진로 379-61
전화 055)365-4184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사

회 주 명성
주 지 은광

운문사 승가대학 학장 **원 법**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사리암 054)372-8811 www.unmu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일동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전화 054)232-3163 팩스 054)241-3503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파계사

관음기도도량
파계사 원통전 보물 제1850호 지정

조 실 **청운 도원**
회 주 **무봉 성우**
주 지 **현봉 법준**

신도회고문 **무 산 김현태**
신도회회장 **성 천 이현송**
관음회회장 **도안덕 박순득**
정토회회장 **보리행 윤귀숙**
명상차회회장 **법연화 김외숙**
기와봉사회회장 **묘심화 임운선**
해조음합창단 단장 **이지안**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전화 053)984-4550 팩스 053)985-7118 www.pagyesa.org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갓바위부처님!

대한민국 제1의 기도 성지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禪本寺 (갓바위)

주 지 **혜 안**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선본사(갓바위)
템플스테이
전화 010-2631-1868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699(대한리 587)
전화 053-851-1868 / 853-9877



영천 만불사

普光石材 X 아두망 à deux mains

(주)보광석재는 1983년 창립 이래 우리 불교의 우수한 전통 석조문화를 계승하는 사찰 및 문화재 전문의 석조회사이다.
본 사의 발자취를 기록한 우리 돌 문화공간, 아두망은 이색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의 석공예와 전통 돌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 기대한다

프랑스어로 "두 손으로"라는 뜻의 카페 아두망(à deux mains)은 최고의 맛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맛을 손수 제공하고자 한 모토를 담은 동시에, 두 손에 쥔 수공구만으로 단단하고 무거운 돌을 우직하게 다듬어 낸 우리 전통석공예의 영혼을 함의하고 있다.





(주)보광석재 주소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석재단지길 38 전화 | 054-955-8888
카페 아두망 주소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523 전화 | 054-955-8889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봉원사

주 지 **지태**

사부대중 일동

경남 마산합포구 현동305
전화 055)241-5333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원당암

감 원 **성법**

사부대중 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41-23
전화 055)932-7308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창원 포교당 구룡사

주 지 **무성**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56번길 31-1
(소답동 909)
전화 055)294-3279



대한불교조계종

송림사

주 지 **보문 지암**

사 무 장 **공덕행** 정토회장 **자현선**
관음회장 **남안심지** 관음총무 **이수안행**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장유전법도량

동림선원

부설 : 동림불교대학 · 동림불교문화원
은암 선문화 아카데미

주 지 **은암 신공**

사부대중 일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계곡길 168-14(대청동)
전화 055)325-4008 팩스 055)325-4009
www.dongrim.org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울산 정지심인당

주 교 **정일정사**

정지유치원
울산화정 종합사회복지관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83번길 33
052-271-5212

대한불교조계종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성철스님 기념관

산청 겁외사

전쟁이 없는 세계평화와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불국정토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회 주 **원택**
주 지 **원인**

겁외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철로125
전화 055)973-1615



대한불교조계종

가락고찰 佛母山 장유사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 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563(대청동)
전화 055)314-2799



대한불교조계종

동대산 성불사

회 주 **만 상**

주 지 **혜 안**

신도회 일동

울산시 북구 아랫율동2길 262-70
전화 052)287-7200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진불선원

禪불교대학 | 시민 선방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112
(구. 도지사관사 사거리)
TEL. 055)275-3222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말사

행하면 되는 절

진주 미륵암

주 지 **현 산**

사부대중 일동

경남 진주시 개양로170-90
전화 055-759-8243



대한불교조계종

행복기도도량

지장정사

주 지 **현 우**

사부대중 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7번길 28
전화 052)256-3552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창녕 관룡사

주 지 **청우**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관룡사길 171
전화 055-521-1747



대한불교조계종

울산 용화사

신도회 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천전길 54
전화 052-262-0518

대한불교조계종

한예산 영묘사

원, 밀, 선, 계, 정토종합수행도량

주 지 **용수**

사부대중 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구터길 2-12
전화 052-238-9982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련암

사부대중 일동

보리수동산
정토만일봉사회
33관음성지순례단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 1로 430-34
Tel 055)672-0078



한국불교태고종

통영 보현사

회주 **혜화** 주지 **묵원**

신도회장 유대암 반야회장 최진광월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5-6448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불교대학·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052) 212-7000**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쾌적한 최신시설 •사전 예약자 봉안비 할인

◉ **정토사 불교대학/ 대학원** 1997년 개교 **☎(052) 274-3800**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경전반: 주·야간반, 1년 1경전

◉ **법회/ 신행/ 문화교실 ☎(052) 258-9944**
초하루,보름,지장재일,관음재일, 다라니 기도, 금강경 독송, 법화경 전독기도
어린이회, 청년회, 신도회, 동문회, 청소년합창단, 여성합창단, 혼성야간합창단, 민화, 한국화, 마인드케어명상, 요카리나, 간화선 수행, 심념처 명상반 등

◉ **장학 봉사 복지단체 사)참좋은세상 ☎(052) 260-0707**

울산 남구 문수로217번길 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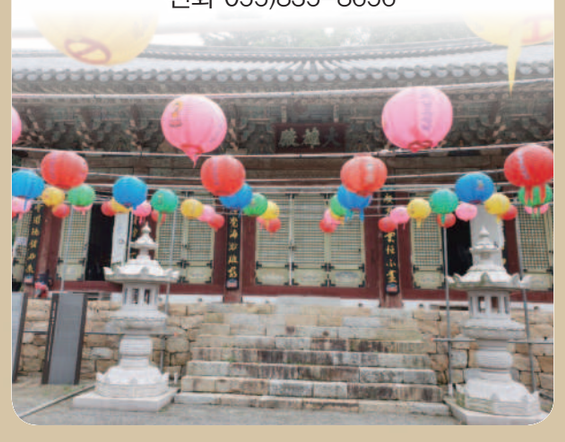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운 흥 사

주 지 **월암**

신도회 일동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전화 055)835-8656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전화 055)342-6639, 345-9900
팩스 055)346-2179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연**

사부대중 일동

자기 내면 세계를 두드려라.
문 아닌 문은 항상 열려있다.
– 대행선사 법어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전화 055)643-0643 팩스 055)643-0642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단 장 승 원 **이원환**
수석부단장 원 명 **안정임**
부 단 장 **준제주 김은경**
부 단 장 **감로행 강호연**

감 사 **청안 조형식 법원 최성환**
교육직할팀장 **심정안 정선희**
중부총괄팀장 **진용 김영지**
서부총괄팀장 **청암 조용호**
동부총괄팀장 **월인 이선호**
북부총괄팀장 **수호 정수갑**

메일 : knpogyo1180@daum.net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96 하이페르상가14층
전화:055-262-1180



한국불교조계종

밀양 삼봉사

주 지 **대휴당 녹원**

신도회 일동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단장로379-8.
전화 055)356-0124 부산포교원 051)516-3000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덕산사

주 지 **동조**

사부대중 일동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 내원로256
전화 055)973-6799



국보 비로자나불



원산 도명 스님은…1964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경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다. 1964년 경봉 스님을 계사로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1968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통도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사승가대학과 동화사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송광사 · 극락암 · 봉암사 · 칠불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선 안거했다. 직지사 황악학림에서 관응 스님을 모시고 경학을 연찬해 전강했다. 직지사 승가대학 강주,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 등을 맡아 후학을 양성했다. 1995년 조계종 초대 교육원장에 취임해 종단 승가교육 초석을 다졌다. 1998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통도사 백련암에서 3년간 무문관 결사를 하고 2008년 만일염불회를 창설했다. 2011년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를 맡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등 사격을 높이는 데 힘썼다. 2021년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서하고 2025년 원로의원에 선출됐다. 현재 부산 하안연꽃절 회주로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데 힘쓰고 있다. 저서로 법어집 〈허공에 핀 꽃〉, 〈허공처럼 살아라〉 등이 있다. 사진=하성미 기자

“갈등의 시대, 대각 정신 회복할 때”

〈大覺〉

데스크 초대석 조계종 원로의원 원산 도명 대종사

양산 통도사=여수령 기자

양산 통도사 백련암에는 수령 200년 가까운 무환자(無患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둥글고 단단한 열매는 염주 재료로 쓰인다. 이름 그대로 ‘근심이 없고 병이 없다’는 뜻을 지닌 이 나무는, 수행자의 곁에서 오랜 세월을 견디며 도량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근심 속에 살아간다. 세상은 갈등과 전쟁, 경쟁과 불안으로 요동치고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어떻게 해야 ‘무환(無患)’의 삶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5월 8일, 조계종 원로의원 원산 도명 대종사를 만나 가르침을 청했다. 백련암에서 만난 스님은 한국불교의 과제와 은사 경봉 스님의 가르침, 수행자의 본분과 지도자의 덕목까지 담담하게 풀어냈다. 특히 갈등과 분열이 깊어질수록 “허공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대각(大覺)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조계종 원로의원으로 선출돼 최근 의원 선서를 마친 스님은 “원로라고 해서 특별한 책임과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임제록〉에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스스로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 참되다는 뜻입니다.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살아온 대로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수행자의 본분을 되새기던 스님의 말은 자연스럽게 은사 경봉 스님의 삶으로 이어졌다. 경봉문도회 회장을 맡고 있는 원산 스님은 법문집 간행과 장학사업 등을 통해 은사의 가르침을 잇고 있다. 스님에게 경봉 스님은 깨달음의 길을 몸소 보여준 수행자의 표상이었다.

“경봉 큰스님은 열여섯에 출가해 강원과 선방 생활을 아주 철저히 하셨습니다. 총명하셨고 공부도 열심히 하셨지요. 통도사 소임도 ‘소임 살면서 언제 공부하겠느냐’며 뿌리치고 전국 선방을 다니며 정진하셨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은 쉽게 오지 않았다. 오랜 수행 끝에 경봉 스님은 통도사 극락암에서 화엄산림을 열며 다시 화두에 몰두했다. 원산 스님은 그 순간을 생생히 전했다. “밤중에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다가 문득 ‘내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신 겁니다. 그때 오도송을 남기셨지요.”

아시방오물물두(我是訪吾物物頭)
목전즉견주인루(目前即見主人樓)
가가봉착무의혹(呵呵逢着無疑惑)
우발화광법계류(優鉢花光法界流)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아 헤매다가
눈앞에 곧 주인공을 보았네
우습고 우습다 만나서 의혹이 없으니
우담바라 광명이 법계에 흐르네.

“〈화엄경〉은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큰스님이 도를 깨친 뒤에는 우주 전체가 그대로 도(道)라는 것을 보신 겁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마치 자신도 도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당시 극락암 법회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원산 스님은 “한 번은 3900명 가까이 모여 주먹밥을 나눠줄 정도였다”고 회고했다. 법문은 다음 날 곧바로 인쇄돼 대중에게 배포됐고, 훗날 법문집으로 묶였다. 오늘날 통도사 화엄산림의 전통도 여기에서 시작됐다.

스님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힘으로 ‘믿음’을 꼽으며 경봉 스님의 일화를 전했다.

해제 철, 젊은 수좌 한 명이 극락암 삼소굴로 찾아가 경봉 스님에게 물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면 제대로 믿겠느냐?” “스님 말씀인데 어찌 믿지 않겠습니까?” “묻는 네가 바로 신여래(新如來), 새로운 부처니라.”

“그 수좌는 마음에 박히는 것이 있어 경봉 스님께 삼배를 올리고 극락암 선방에서 정진했습니다. 만약 이 수좌가 경봉 스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크게 믿었기 때문에 산철에도 선방에 앉아 정진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굳건해야 공덕이 쌓이고 모든 의심과 애착이 사라지며, 마침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나고 죽는 고통이 없는 열반의 위없는 경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확고한 믿음과 쉼 없는 정진을 당부한 스님은 ‘보시’의 의미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행자들은 모두 보시로 살아갑니다. 의식주가 다 불자들의 보시 덕분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 보시보다 대도(大道)를 성취한 명안종사(明眼宗師)가 많이 나와 중생을 제도하는 보시입니다.”



은사 경봉 스님(앞)과 함께한 원산 스님.



부산 하안연꽃절 조감도.

통도사 백련암 무환자나무의 가르침
경봉 스님에게 배운 ‘믿음 · 정진의 힘’
명안종사가 중생 제도하는 보시 절실
갈등 · 전쟁에 ‘허공 같은 포용’ 갖춰야
“수처작주 입처개진” 진실된 삶 당부

원산 스님은 원산 스님은 원산 스님은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창원포교당

안국사

한마음이 청정하면 온세상이 청정하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남로26
전화 055)255-1080



한·중·일의 고대사를 바로잡을 게임체인저!

대한불교조계종

김해 여여정사

불교대학 · 경전반



주지 도명

사부대중 일동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로30번길1
전화 055)311-2911

虎巖(호암)지성(知醒)스님께서
조계종 최고 법계 大宗師(대종사)
품서를 받게 되었음을 기념

대한불교조계종
와불산 일출봉 약사여래도량

오도암 적멸보궁

회주 호암 지성

신도회 일동



경남 고성군 개천면 월곡리446
전화 055)673-1007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수국(守國)사찰

남해 용문사

주지 승원

신도회장 송행열
거사림회 회장 박영남
지장회 회장 조명각선

신도 일동



주소 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문사길 166-1 호구산 용문사
전화 055)862-4425

대한불교법화종

통영 보광사

법화제일도량

주지 연산

사부대중 일동

경남 통영시 망일길71-20
전화 055)645-9292



한국불교태고종

사천 선암사

주지 도각

사부대중 일동

경남 사천시 홀곡1길74
전화 055-835-8533



한국불교태고종

불감 정관암

주지 대활

사부대중 일동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밭길118(하작마을)
010-4517-0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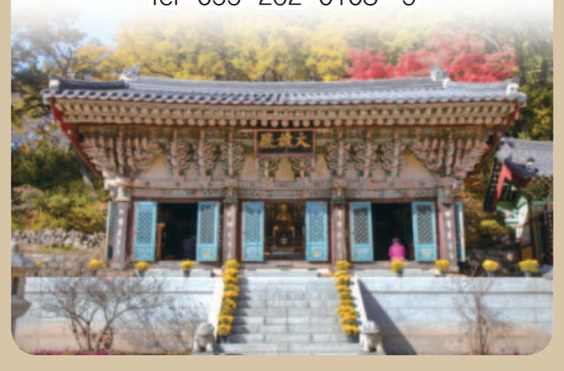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불모산 성주사

조실 서해 흥교
주지 법안
신도회장 경성 이상연

불모의 품속에서 피워온 천년의 향기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천선동)
Tel 055-262-0108~9



대한불교조계종

칠불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528
전화 055)883-1869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길상사 삼계선원

간화선 참선 근본도량

민생회복 만사여의 3년결사기도 상시접수

기도시간 : 새벽 5시 / 오전 10시 / 오후 2시 / 저녁 6시

부설

· 불교대학 · 성현덕회 · 단월회 · 참선반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 삼계선원
주소 경남 김해시 삼계로69번길 15, 대명빌딩 201호(삼계동)
전화 055)333-8202 팩스 055)333-8203

2천년 고도 가야불교의 성지

(사)가야불교문화원
김해불교사암연합회

이사장 (연합회 회장) 만제 혜수
이사 각명 정광 태설 우진
사무국장 범해



열려있는 불법마당

(사)진주불교회관

이사장 상전 홍수승

가야불교대학
무료급식소 보현의집
법화경독송회
진 불 선 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117
전화 055) 747 – 0108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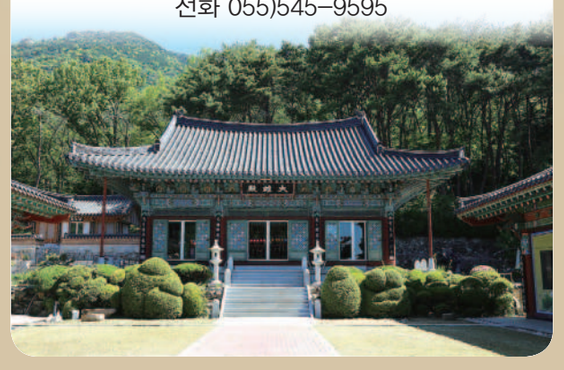
진해 대광사

회 주 **운성**
주 지 **자경**

신도일동

대광사 팀플스테이 대광유치원

경남 창원시 진해대로303
전화 055)545-9595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울산천마산 서장사

오늘 당신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서장사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253
종무소:052)293-0108



대한불교 원효종

울산 평해사

범 일

사부대중 일동

울산시 북구 매곡산업로 49-17
전화 052-295-0866



대한불교조계종

울주 태화선원

주 지 **명본**

사부대중 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서향교 1길 76
전화 052)254-0053



대한불교조계종

밀양 진불암

감 원 **원산**

사부대중 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표 표충로1422-3
전화 010-3442-0030

대한불교원효종

울산 삼광사

지 광

사부대중 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삼동로 1569-20
전화 052-225-1815



창원특례시 불교총연합신도회

회 장 이상연 경남경영자총연합회장(㈜경한코리아회장)
수석부회장 조보현 경남예총 회장
감 사 권정근 세경씨엔디 회장 이장균 창원시청공무원불자회장
부 회 장 김정기 심산서울병원 이사장
류병현 법무부범죄예방창원협의회장(동구기업 대표)
김환태 이충무공선양군항제위원장(경남모터스㈜ 대표)
박재근 ㈜이노비즈협회장(㈜ 유창산공 대표)
최규식 두동도시개발 대표 김태종 대신엔지니어링 대표
박금숙 경남도립미술관장 김일태 통영국제음악제 대표
김 철 경상남도경찰청 불자회장 진정혜 금강자비회 이사장
김종석 성주사 신도회 부회장(청보건축사 대표)
진효규 관음사 신도회장(유창기계 대표)
김명희 정인사 신도회장 강성희 우곡사 신도회장
우순기 정암사 신도회장(진해문화원장) 김금비 길상사 신도회장
김명련 반야사 관음회장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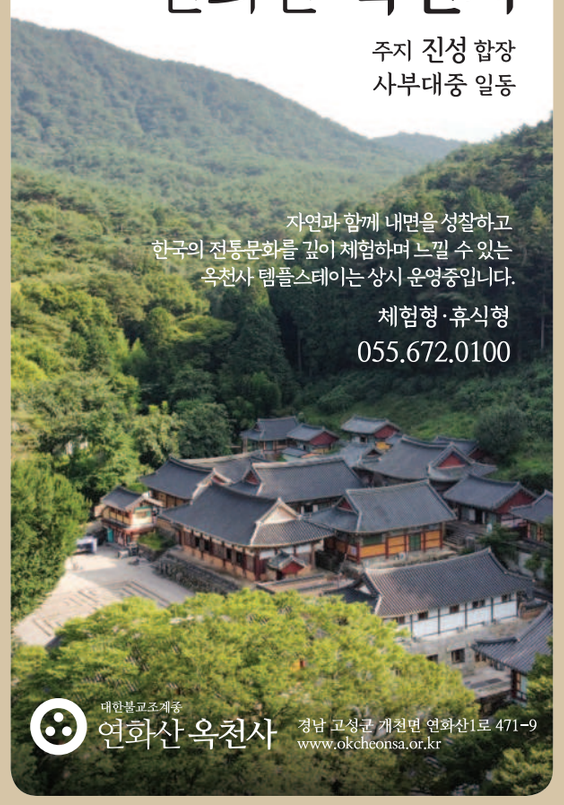
원로의원 **지현**(해경사) 재경국장 **지혜**(도성사)
원로의원 **월봉**(석봉암) 문사국장 **지선**(능포선원)
자문위원 **서산**(보광사) 경남교구 종회의장 **자범**(옥골사)
자문위원 **세명**(관음정사) 경남교구 종회부의장 **보행**(법운사)
자문위원 **법안**(청량사) 중앙종회의원 **정광**(문수암)
자문위원 **법철**(세심사) 중앙종회의원 **혜우**(봉연암)
자문위원 **석봉**(백운사) 중앙종회의원 **자범**(옥골사)
자문위원 **법성**(백암사) 중앙종회의원 **광해**(자비사)
자문위원 **진일**(대성암) 중앙종회의원 **청호**(관음사)
선관위원장 **만우**(법성사) 중부분원장 **혜우**(봉연암)
교육위원장 **환명**(약수암) 서부분원장 **자운**(여여암)
포교위원장 **도각**(선암사) 남부분원장 **근해**(무상사)
감사위원장 **법진**(거림사) 밀양분원장 **지원**(부은사)
종무원장 **황봉**(관음사) 김해분원장 **법조**(보현사)
행정부원장 **성욱**(영진사) 중부분원총무 **자명**(석봉암)
재경부원장 **무진**(보현정사) 서부분원총무 **대경**(청정암)
종무국장 **법조**(보현사) 남부분원총무 **청현**(정각사)
교무국장 **법륜**(불정사) 밀양분원총무 **승현**(지혜사)
규정국장 **법성**(大장엄사) 김해분원총무 **무진**(보현정사)
태고경남비구니회장 **수혜**(대승암)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93
전화 055-298-3634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주지 **진성** 합장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양산 신흥사

조실 **영규**
주지 **호법**

사부대중 일동

경남 양산시 원동로 2282-111
대광전 보물 1120호 / 대광전 벽화 보물 1757호



대한불교관음종

진주 약사정사

(사단법인 원명)

주 지 진 여
신도회장 정한숙(금강화)

법화삼매참법 새벽기도
YouTube [진주약사정사] 구독
매일 법화경 온라인 독송 축원합니다

신도 일동



주소 경남 진주시 의병로128
전화 055)761-5382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말사

천년고찰 전단산 우곡사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자여로 459
전화 (055)291-3100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한국불교태고종 부산교구

원로위원 **남화**(대연사) **도광**(죽전사) **도오**(백룡사) **혜각**(영월사) **고담**(천불정사) **지만**(약수정사) **지광**(원광사)

종무원장 **자관**(자비암)
총무국장 **도명**(도명사)
교무국장 **혜광**(대연사)
재무국장 **지운**(연화사)
문화국장 **보해**(은혜사)
규정국장 **정무**(재상사)
사회국장 **관음**(원각사)
흥보국장 **법경**(천불정사)

지방종회의장 **도성**(구월사)
중앙종회의원 **지풍**(법성사) **태명**(사천왕사) **봉진**(혜성사)
지방종회 사무국장 **도화**(무심사)
지방종회의원 **혜민**(보경사) **도향**(보문사) **도경**(보현사) **법성**(천수사) **지환**(용천사) **종민**(불정사) **현각**(보타사) **보안**(석불사) **지효**(남운정사)

부산광역시 동리구 명륜로 47
전화 0651)558-5077

동래구불교연합회

회 장 자비암 자관
부회장 진불사 정현
부회장 몽불사 법관
감 사 금용암 보현
총무국장 연화사 지운
재무국장 용화사 성화

회 원 도림사 정찬 용수달마사 해운
명신사 문수 일심정사 지안
무량정사 법광 정각사 법일
무학사 보승 지장사 도현
관음사 청산 해수관음사 보해
법륜사 각진 보경사 선산
보문사 보문 보덕사 의천
보타암 법전 삼안정사 대자
안정사 윤하 연산정사 상화
영주암 지훈 해오름정사 금선
혜원암 혜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자비암
전화 051) 552-3320

부산진구불교연합회

고 문 **혜총**(감로사) **인수**(보명사) **용암**(삼광사)
회 장 **정현**(가야사)
수석부회장 **시광**(보련사)
상임부회장 **일관**(보광사)
부 회 장 **법지**(대원사) **정목정사**(정정심인당) **진여**(다보사) **경록 보원**(불광사)
감 사 **태산**(약사정사) **보원**(보원사)
재 무 **태산**(약사정사)
총 무 **도원**(보광사)
의 전 **법봉**(육조사) **도관**(화지사)
회 원 **해피**(해피법당) **대원**(대원정사) **안국**(부전선원) **춘제**(수궁사) **원종**(자비사) **보각**(보각정사) **대화**(관음사) **지현**(백련사) **삼해**(칠불암) **보혜**(보각정사)



(사)부산불교문인협회

증 명 법 사 **혜총대종사 능지**
실상문학상 운영이사장 **심산**

이 사 장 **박숙자**
등기이사 **이석래 박진호 박희선 차정연**
부이사장 **이석래 손순이 최선희 명은애 이소정 권 철 류경자 고순옥 박선옥 배동순 이윤정 이상일 정태운 홍종원**
감 사 **서경남 윤유점**
편집고문 **양원식**
편집주간 **윤기선**
편집국장 **권명해**
사무국장 **임정서**
재무국장 **신진경**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717호
☎ 051)816-4181
http://cafe.daum.net/bulgoy

부산불교여성개발원

원 장 **김수현**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3층

대한불교조계종

부산비구니

금 련 회

회 장 **대 둔**

회원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화 엄 회

회 장 **묘 선**

화엄회 회원 일동



화엄회는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청정기도도량(양정시장 꽃상가 5층)

대한불교조계종

여 여 선 원

[부설 자선단체]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범어사 방장)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 기도법회 –
초하루법회
지장재일법회
관음재일법회
광명진언천일기도법회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 420번길 18
양정상가5층 여여선원
전화 051)853-5486~7, 팩스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전화 051)702-9944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지금선명상센터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서울분원 지금선원

YouTube 불바보TV

주 지 **목 종**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로데오아울렛 3층)
전화 051)742-7610 팩스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세계불교 여래종

광 덕 선 원

주 지 **법 진**
총 무 **금강심**

사부대중 일동

부산시 강서구 평강로229번길 24 광덕선원
전화 010-8803-5660

대한불교조계종

승보종찰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다음카페 cafe.daum.net/gwanumsa1
http://pf.kakao.com/_jUMxln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관음사
(당리동39-2)
전화 051)294-9300

자비 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

백양산 참회기도성취도량 **견 강 암**

주 지 **향 공**

(사)부산정각회, 금강회, 보현회, 관음회, 다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34번길 52-35(모라동)
(모라벽산아파트 107동 뒤편)
Tel 051)361-8511 Fax 051)317-7665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장병주
상임고문 정종원
고 문 최주덕 박영근 박수관 박순곤 허인구 설동근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이윤희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김수현 노종헌
자문위원 정창교 최영호
부 회 장 배영호 배상진 공정근 최삼섭 양재생 최금식
감 사 김상훈 이경칠
사무총장 안병호 재 무 총 장 이현수
총무이사 안천일 자 문 이 사 이학우
친목이사 박창근 홍 보 이 사 박차수
섭외이사 안경수 대외협력이사 손정현
기획이사 김기호 재 무 이 사 이근욱
이 사 강갑균 공영석 김선일 김성규 박효근 배도정 이정출 정연식 최상곤
회 원 강석진 방택훈 손만형 신기열 신상해 오세룡 이동현 이권주 이성원 이오식 이윤희 이헌호 조보익 진남일 최대경 최대동 최태식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705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Since 1999

회 장 여산정여 대종사
수석부회장 정오스님 용암스님
상임이사 원광스님
총무이사 석산스님
이 사 심산스님 고담스님 명현스님 성문스님 법열스님 보혜스님
감 사 박용하 선근우(공인회계사)



연제구불교연합회

고 문 원광(정수사)
보당(보국사)
회 장 법승(화엄사)
부 회 장 동선(영광사)
사 무 장 성원(연화사)
감 사 혜안(선금사)
이 사 법호(정토사)
희공(봉화사)
보원(보원사)

그 외 회원스님 일동

부산시 연제구 황령산로 524번길 16(화엄사)
☎051)853-1942

자비 실천하는 여성불자회
내가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여성불자회

부산여성불자회

총재 혜 총

회 장	정분남	수석부회장	황곡자	재 무	여소현
고 문	왕선자	부 회 장	한순점		여미란
	류영남		정정자	회 계	이원희
자문위원	정찬스님		김정연	총 무	김미옥
	홍도스님		이해숙		성희강
	백명숙		이동희	봉 사	이명희
	이성희		하승우	다도부장	박유순
감 사	장홍자		최성숙		
	박영선		김희경		
			곽해숙		
			유영임		
			차선혜		
			연화신		

부산여성불자회 회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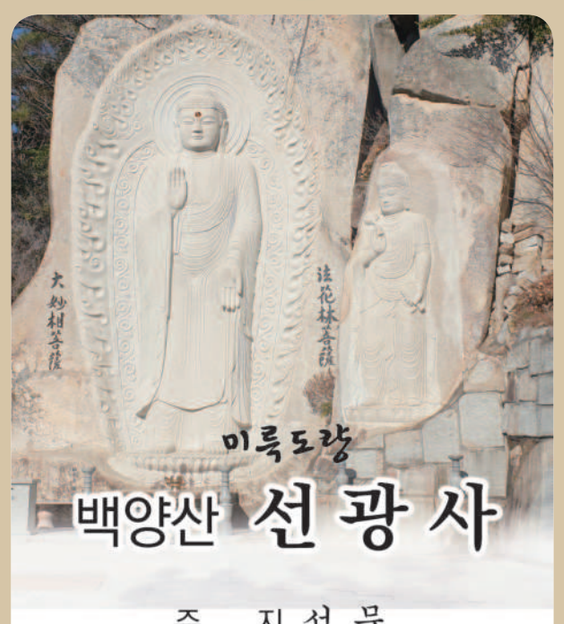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4층 402호)

대한불교화엄승가회

사회에 봉사하는 스님들의 단체

회 장 대각
고 문 자인
자 문 범혜
감 사 의천 무상
수석부회장 천웅
상임부회장 향공 보현
부 회 장 법봉 혜광 원도 원각
총무부장 성담
홍보부장 관호
재무부장 태산
봉사부장 혜명
의전부장 정담
회 원 선혜 지오 법도 혜명 지현 자현 수월 진여 보성 도원 삼해



주 지 성문
신도회장 강귀자
총 무 이은영
연화회장 김복자
신도일동

주소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804번길 42-123 (덕포동)
전화 051)302-5657, 303-4848, 010-3563-5657
팩스 301-4854



부산 제1호 녹색사찰
대한불교조계종

도 림 사

"온 생명의 벗,
환경보살의 길로
나아갑시다"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18번길 64



대한불교조계종

자비도량 **원 오 사**

(재)꿈나무가꾸기 명정장학재단
원오사 부설 명정지역아동센터

회 주 고원 명정
주 지 대원 정관
신도회장 임원식



부산시 해운대구 윗반송로 124-5
전화 051)542-7949 www.wonosa.or.kr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7545-4577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천년기도가피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천 축 사

회주 무소 허운
주지 진성 능후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산길 92-2
전화 02)954-1474
www.cheonchusa.kr
템플스테이 문의 02)954-1473

사)대한불교승가종

복 천 암

주 지 삼화 무착

신도회 일동

경남 양산시 동면 영천2길 21-19
전화 055)372-3555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생활

1579호 | B26 | 전면광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드는 이가 있으면 설사 커다란 불 속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불이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원주
- 대지 : 1500평
- 법당 : 40평, 요사 : 50평
- 매가 : 6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북대구
- 부지 : 250평
- 법당 : 50평, 요사 : 40평
- 주차10대
- 매가 : 1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 대지 : 300평, 법당 23평, 종무소 10평, 요사채 40평
- 마애불, 법당4평, 산신각, 용왕전
- 태양광-태양열 설비 완비
- 가액 : 3억 3500만원

010-5097-5289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 11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 가액 : 5억6천

010-3868-8219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만산길 320 청명사
- 가액 : 2억 7천 만원
- 총 토지 면적 : 520평 / 법당 : 19평 요사채A동 : 19평 / 요사채B동 : 17평 삼성각 : 2.5평 / 주지 : 연공스님
- 건물 및 토지 일괄 매매, 즉시 입주 가능 노스님께서 건강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찰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010-5275-137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에서 20분
- 총면적 840평 대웅전 21평(목조), 산신각5.5평 요사채 31평(황토벽돌)
- 야외 화장실, 공양간
- 가격 : 6억5천

010-2333-3005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124-5, 황룡사
- 총 1197평/대지 1080평/종교 · 도로부지 117평
- 대웅전 43평 삼성각 2평, 용왕각 3평, 진신사리3층석탑
- 요사채 1층 38평 외 공양간 30평 2층 25평, 주차공간 넉넉
- 태양광 6㎾, CCTV 완비
- 창고, 정자, 저온창고, 우물, 녹차밭, 야외화장실
- 가격 : 10억 (조정가능)

010-5002-7392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시 하북면
- 총 870평 중 답 50평, 나머지 대지매매
- 178평 건물 3동
- 가액 : 26억 (대출 13억 5천만원)
- 절, 굿당 하기 좋은 자리 천성산 앞 계곡 물 흘러갑니다

010-4735-8100

사 찰 안 내(토굴)

- 위치 : 경북 동해안
-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 법당 17평, 법당 옆 넓은 거실 합 30평 공양간 17평, 방7개, 목욕탕 3개, 외부화장실 2개 /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 석불 지장입불 / 편리한 아파트식
- 조경완비, 집기모두 드림
- 손볼것 없는 깔끔한 도량
- 가액 : 2억 3천

010-2008-0377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댐 인근
- 무학대사 자연동굴 80평 및 대지 약 600평, 요사채 50평 법당 가건물 30여평 정도

010-2078-959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 대지 : 367평
- 건물면면적 : 160.36㎡
- 춘장대 IC 15분 거리 바다가 보이는 전망
- 가격 : 2억5천만원

010-5046-5788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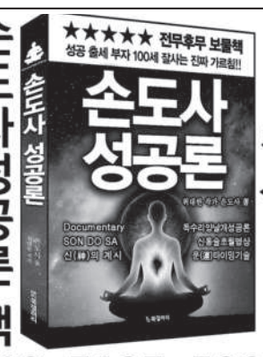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꼭 읽어봐주세요 손도사성공론 책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010-5105-5000

토 굴 급 매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
- 재개발지, 토굴 10평
- 법당 및 화장실, 올수리
- 세탁기 냉장고 등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6500만원
- 교통편리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 당부

010-5371-1320

토 지 경 매

- 위치 :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94
- 임야 : 2093제곱미터
- 감정가액 : 2억원
- 2024타경 6235
- 매각회차 2회 / 매각기일 2026.6.8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최저매각가 : 1억 4000만원
- 굿당용 조성 토지, 미등기 건물 존재

문의 055-862-21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 230평/건물 : 연면적 150㎡
- 대웅전(목조) 산신각(목조신축) 주지스님 처소(신축)
- 요사채 및 종무소
- 진주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좋은 곳
- 가액 : 6억원

010-3808-3852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중구 약수동 전철역 바로 앞(최고의 위치)
- 보증금, 시설비 3500만원/ 월세 77만원 (저렴한 월세)
- 법당 : 20평(주거시설 완비, 거주가능)
- 삼존불, 에어컨, 냉장고, 도시가스 보일러 시설(거주하기 너무 좋은 곳)
-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2090-4490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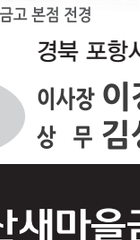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 · 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 · 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영적치유의 기적 (1)

- 10分 내로 통증이 멈출 수 있다 -



여성얼굴 피부미용 및 전신피부병 치유가능
010-5265-4144

- 대상포진, 극심한 통증, 말기암 상담
- 구안와사, 급 · 전신마비
- 영가장애, 오래된 고질병
- 원인불명의 통증, 정신적 고통 등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디스크, 협착
만성통증, 만성질환
파킨슨, 뇌질환
호르몬, 신경계
머리~척추~골반&균형
백화선원
좋은바디운동교정협회

010-7772-7886 선산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팝업스토어부터 '생카'까지…'HIP불교' 전성시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톡톡 튀는 굿즈들로 가득 찬 팝업스토어부터 사찰음식 명장 스님과의 콜라보 메뉴까지. 그야말로 '힙(HIP)불교' 전성시대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이 픽한 패션 아이템으로 유명한 '바반투(BHAVANTU, 대표 김서현)'는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무신사 홍대에서 팝업스토어를 개최했다. 무신사와의 첫 협업인 만큼 바반투는 신상 제품과 함께 올해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BUDDHA! 에코백'(9가지 컬러), '108ing 브라운컬러 모자'를 팝업스토어 단독 상품으로 선보였다.

김서현 바반투 대표는 "무신사 고객층이 두터운 편이라서 팝업이 성황리에 진행됐다"며 "특히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다. 지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가 팝업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 고객들께 감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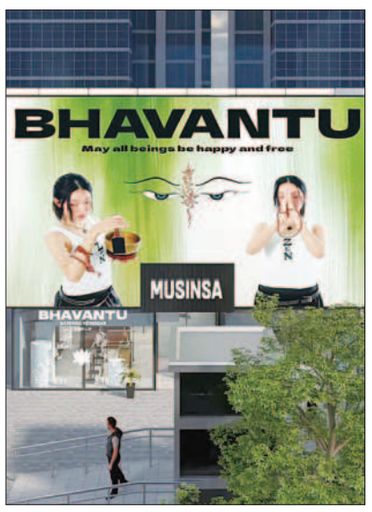
바반투는 홍대에 이어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에서도 팝업스토어를 연다. 부산 팝업스토어 행사는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불교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표방하는 '붓다를 붓다'(공동대표 박지민·정수진)는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 1층 뉴웨이브(New Wave) 공간에서 신개념 불교 팝업스토어 '요즘 불교'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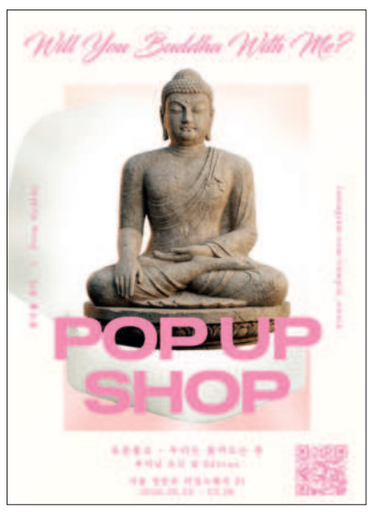
지난 2월 대구일러스트코리아와 4월 서울일러스트코리아에서 수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 '붓다를 붓다'가 더 큰 무대로 진출하는 첫 행보다. 기존 일러스트 페어에서 보여준 개성 넘치는 아트워크와 굿즈 중심의 전시에서 나아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누구나 편안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공간을 꾸밀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만 구입 가능한 특별 한정판 굿즈부터, 많은 이들의 취향을 저격해 온 베스트셀러 라인업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 연화사(주지 묘장 스님)는 '부처님 생신 카페'를 올해도 진행하고 있다. 4월 24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까지 운영되는 연화사 '부처님 생신 카페'는 지난해 화제가 된 연꽃 라떼에 쑥라떼까지 더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바반투 무신사 홍대 팝업스토어 조감도.



'붓다를 붓다' 팝업스토어 포스터.

바반투, 무신사 홍대 팝업
5월 11~18일 성황리 마쳐
5월 22일부터 부산서 팝업

연화사, 올해도 부처님 '생카'
영천목탁 등 팝업 함께 진행

'붓다를 붓다'도 팝업 행사
해탈컴퍼니, 애프터 파티 기획
샐러디, 선재 스님 메뉴 선봬

이와 함께 연화사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부처님 미리오신날 팝업' 행사를 연다. '부처님 미리오신날 팝업'에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목탁 클리커로 화제가 된 '영천목탁'과 불교 굿즈 브랜드 '니르바나', 컵묵밥으로 잘 알려진 '묵사랑', 불교여행자 '강산'이 참여한다.

주지 묘장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은 "아이돌 그룹 팬들이 좋아하는 멤버의 생일에 맞춰 '생일 카페'를 열고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불자들에게는 부처님이 곧 아이돌이니 '생신 카페'를 열면 20~30대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부처님 생신 카페를 통해 젊은이들이 부처님오신날을 쉽게 받아들이고 함께 축하할 수 기회를 마련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해탈컴퍼니(대표 주여진)는 부처님오신날 애프터 파티를 준비 중이다. 5월 30일 오후 1시 서울 불이성 법륜사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애프터 파티 '불~나 좋아 페스티벌'은 해탈컴퍼니 굿즈 판매, 명상 및 불교문화 체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후 6시 30분부터는 선무·디제잉 등의 공연이 진행된다. 특히 세계 최초 불교밴드 '해골물 밴드'가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현우 부대표는 "해골물 밴드는 해탈컴퍼니 구성원으로 이뤄진 불교 밴드"라며 "현재 AI와 함께 자작곡을 만들어 열심히 합주 연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찰음식 명장 스님과 콜라보 메뉴도 눈길을 끈다. 국내 1위 샐러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샐러디(대표 안상원·이건호)가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과 협업한 '샐러디 셰프 컬렉션'을 통해 비건 한식 메뉴 2종을 5월 14일 출시했다.

선재 스님이 외식 브랜드와 협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님은 그동안 외식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지 않았으나, 방송 이후 사찰음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문화 철학을 보다 널리 알릴 필요성을 느껴 이번 협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샐러디와 선재 스님이 선보이는 메뉴 2종은 고추간장 당근 국수와 고추간장 취나물 비빔밥이다.

두 메뉴는 모두 오신채(마늘, 파, 부추, 달래, 흥거)를 사용하지 않고 육류를 배제한 비건 메뉴로 개발됐다. 대신 두부와 버섯을 활용해 단백질과 영양 균형을 보완했으며, 자극적인 요소를 최소화해 '편안하게 먹는 한 끼'에 초점을 맞췄다.

선재 스님은 "생채소는 몸을 차게 하거나 소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발효된 간장은 음식의 소화를 도와 속을 편안하게 해준다"며 "음식에도 '쉼'이 필요하기에 이번에 선보이는 음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몸이 맑아지고 삶이 더욱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업 메뉴는 5월 14일부터 약 2개월간 한정 운영될 예정이며, 종료 시점은 추후 안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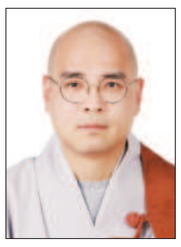
원효학술상 특별상에 자현 스님·장규언

진흥원 선정 결과 발표
학자 부문에 공동 수상
오는 5월 22일 시상식

제16회 원효학술상 학자 부문 수상자로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자현 스님과 장규언 서강대 철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선정됐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 이하 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5월 6일 종합 심사회의를 열고 제16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학자 부문 특별상에는 자현 스님이 저서 〈한방에 깨닫는 법, 마음 혁명〉으로, 장 책임연구원이 저서 〈원측 사상의 해석학적 연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자현 스님


장규언 책임연구원

진흥원 측은 "자현 스님의 저서는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심층 구조를 새롭게 조명하며, 독창적이고 흥미로운 해석을 제시한 창의성 높은 역작"이라고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 책임연구원의 저서는 유식학의 기본 경전 〈해심밀경〉의 주석서인 원측의 〈해심밀경소〉 '무자성상품'의 비판 교정본과 영역을 부록으로 편성한 방대한 분량의 저술"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석·박사 과정 학생 부문 금상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 이주현 씨의 논문 '보현보살의 십대원과 서방정토 발원-자력과 타력의 회통을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은상에는 동국대 대학원 박사 명준 스님의 논문 '〈벽암록〉 본칙에 나타난 사제 관계의 수행 구조와 철학적 해석'이, 동상에는 동국대 대학원 박사 과정 향인 스님의 논문 '〈미륵상생경종요〉의 10문 구조 연구--원효의 미륵수행관을 중심으로'가 이름을 올렸다. 금상에는 400만원, 은상에는 300만원, 동상에는 2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한편, 제16회 원효학술상 시상식은 5월 22일 오후 2시 마포 다보빌딩 3층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법당 '후불도' 정밀조사 첫 보고서

국가유산청 · 성보문화연구원
'대형불화 정밀조사' 보고서
6점 결과 담아…올해 5점 조사

법당에 봉안된 불상 뒤에 장엄된 대형불화 '후불도'를 정밀조사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사)성보문화유산연구원(원장 송천 스님)과 함께 진행 중인 '대형불화(후불도) 정밀조사' 사업의 성과를 담은 첫 번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후불도는 법당의 불상 뒤에 걸어 예배용으로 사용하는 길이 5m 가량의 대형 불화다. 크기가 크고 무거우며, 온습도 변화와 같은 외부 환경에 민감한 재질로 되어 있어 보존과 관리가 까다로운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이에, 국가유산청과 성보문화유산연구원은 지난해부터 5년(2025~2029년)에 걸쳐 전국의 중요 후불도 정밀조사를 추진 중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2025년 조사 완료한 △흥국사 대웅전 후불탱 △불영사 영산회상도 △안동 봉황사 삼세불화 △현등사 아미타회상도 등 총 4건 6점의 후불도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담았다.

이번 조사 대상 중 하나인 '현등사 아미타회상도'는 18세기 경기지역 불화의 화풍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작품으로, 조사를 통해 문화유산적 가치를 재조명받았다.

그 결과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승격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국가유산청과 성보문화유산연구원은 △달성 용연사 영산회상도 △달성 유가사 영산회상도 △영덕 장육사 영산회상도 △청도 운문사 비로자나삼신불회도 △은해사 극락보전 후불탱화 등 5건 5점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우수한 가치를 지닌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창종법회

총무원장 현광 석자운 (사서실장 석재현)
승정원장 석보경 종회의장 석월암 원로의장 석선학
승 정 석법일, 석법광, 석도암, 석덕인 원로위원 석일현, 석대원, 석도명, 석보성, 석혜림, 석법안, 석해진
호법원장 석동심 감찰원장 석도관 호계원장 석도일 교 육 원 장 석유심 총무부원장 석현법 복지원장 석청명
문화원장 석불산 포교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구담 비구니원장 석정인 비구니회장 석서정 비구니부원장 석우진

각 교구원장
부산동종무원장 석혜명 대구 종무원장 석진성 김해 종무원장 석법원
부산서종무원장 석경일 밀양 종무원장 석경오 영천 종무원장 석혜심
창원 종무원장 석혜일 전남 종무원장 석서정 제주 종무원장 석경담
마산 종무원장 석법상 경남 종무원장 석혜운 전북 종무원장 석해산
울산 종무원장 석진공 강릉 종무원장 석원공 광주 종무원장 석청오
칠곡 종무원장 석현승 경북 종무원장 석혜덕 인천 종무원장 석지원

전국신도회
중앙신도회회장 박재종(慈光) 중앙신도부회장 장광옥(法雲)
사무총장 강위석(慈明) 고문 이효근(普泉), 장금석(定慧)
신도회장 안희윤(普德行) 신도부회장 윤현옥(金剛行)
신도총무 변성희(大德信) 감사 최호연(淸眼)

종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심규명, 김영길, 이승현 법무사 이기동 세무사 안미옥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 외부사진
– 반명함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취
총무원 TEL 052·247·4848 FAX 052·247·4849 H·P 010·3565·2462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총본산 마하사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42 ☎ 052·247·4848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FOUNDATION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도량

동국의 120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육으로 실천하며
민족과 사회에 기여해 온 한국불교 교육의 역사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 사 장 운곡 돈관

WISE캠퍼스총장 류 완 하 동국대학교총장 윤 재 웅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 해 원





WISE캠퍼스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글로컬 인재 양성



서울캠퍼스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의료원 자비인술과 약사여래의 원력 실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기관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WISE캠퍼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가람고등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선화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가람중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금산중학교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흥제중학교 /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부속유치원 / 동국대학교DUICA / 일산장례식장 / 만해마을수련원 / 동국부동산센터

120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동국대학교 120주년

불교, AI를 품다



5월 16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펼쳐진 불기 2570년 연등회 연등행렬에서 임중연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의 연구팀이 개발한 AI 로봇 스님 '혜안'과 4족 보행 로봇 '구기(Googi)'가 동국대 행렬 선두를 이끌고 있다. 사진=특별취재팀

AI 품은 불교, 전법·포교 문법이 바뀐다

불교계 AI 활용 현황과 과제는

상담봇·법문 아카이브 등 확산
종단 종책 과제로 본격 부상해
교리 검증·상담 윤리 등은 과제
빠른 답변보다 '바른 답변' 필요
AI 지혜롭게 쓰는 승가 고민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가 AI를 품고 있다. 경전과 법문을 기반으로 고민을 상담하는 AI 스님이 등장했고, 스님 법문을 학습한 상담봇이 신도들의 질문에 답한다. 승려교육 현장에서도 생성형 AI 활용 강의가 개설됐다. 수 년 전만 해도 낯선 조합이었던 '불교와 AI'는 이제 박람회장 이벤트를 넘어 전법과 교육, 문화포교의 새 과제로 부상했다.

변화는 포교 현장에서 먼저 감지됐다. 2024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의 고민상담소'가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챗GPT 기술을 활용한 이 프로그램은 관람객이 자신의 고민을 입력하면 AI로 구현된 열암곡 마애부처님이 불교적 지혜를 바탕으로 답을 전하는 방식이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측은 이를 조계종 미래본부와 함께 진행한 아트·테크 결합형 전시로 소개했다.

이후 AI 활용은 상담형 포교로 빠르게 확장됐다. 현대불교신문은 2025년 불교 신행상담봇 '해심이'를 선보였다. '해심이'는 구글이 개발한 제미나이와 구글 AI 검색 기능을 기반으로 불자 맞춤형 신행 상담, 마음 치유, 명상, 수행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5월 15일에는 '해심이'를 리뉴얼해 캐릭터라는 새 옷까지 입혀 출시했다. 리뉴얼 버전은 제미나이의 검색 기능을 바탕으로 클로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형식으로 개발됐다.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확대됐다는 게 이번 리뉴얼의 핵심이다.

최근에는 한국불교학회장 자현 스님의 법문과 가르침을 기반으로 한 'AI 자현'도 공개됐다. 이는 불교 AI가 단순한 범용 챗봇을 넘어 특정 스님의 법문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문답형 서비스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단 차원의 관심도 본격화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026년 신년기자회견에서 AI를 적극 활용해 한국불교를 혁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진우 스님은 "AI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도하며, 그 성과를 다시 마음 평안과 깨달음의 길로 회향하고자 한다"며 "한국불교는 양자과학과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서 선명상과 불교 수행의 지혜를 결합해 현대인의 정서와 과학적 사고에 부합하는 불교, 곧 디지털·AI 융합형 '마음 문명 불교'의 토대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승가교육 현장에서도 변화는 시작됐다. 조계종 연수교육 과정에는 2024년부터 AI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2024년에는 'AI(Chat GPT)가 불교에 미치는 영향(보일 스님)'이라는 한 강좌뿐이었지만 지난해부터는 'AI(Chat GPT)와 불교(보일 스님)', 'AI(Chat GPT) 최신기술 활용법-AI를 활용한 포교, 법회 자료제작(혜장·자홍 스님)'의 두 강좌로 늘었다. 올해도 'AI와 불교(보일 스님)',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온라인 법회(혜장·자홍 스님)' 강좌가 개설돼 있다. 이처럼 조계종 교육부는 스님들을 위한 AI 도구 활용 교육을 마련하는 등 승가교육과 AI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대학교육 및 경영에서도 AI 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있다. 올해 건학 120주년을 맞는 동국대는 육·연구·경영 부문 전반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동악(Dongguk AX) 플랜'을 추진할 계획임을 올해 1월 19일 열린 '건학 120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동악 플랜'은 2030년까지 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개 영역, 2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중장기 AI 혁신 로드맵이다. 이를 통해 △AI-네이티브 융합인재 배출 △글로벌 Top-티어 융합 연구 허브 도약 △무결점 데이터 행정 및 최적화된 스마트 캠퍼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는 게 동국대의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전교생 대상 AI 기본교육 강화 △AI 기반 교육과정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 △(가칭)AI 융합연구원 신설 △전 구성원 대상 생성형 AI 유료서비스 지원 △총장 직속 AX대응위원회(TF) 신설 등이 이뤄진다.

올해 1학기부터 학생, 교수,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에게 챗지피티, 제미나이, 클로드 등 생성형 AI를 제공해 교육·연구·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기존의 공통교양 '디지털 리터러시' 영역을 'AI 리터러시' 영역으로 개편하고 AI 관련 교양교과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향후 동국대는 불교윤리와 AI 기술이 공존하는 선도적 AI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불교계가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가 관건이다. AI는 학습한 만큼 답한다. 검증된 한글대장경, 주요 경전 번역, 주석서, 종단 표준 교재, 스님 법문, 불교사전, 의례 자료, 사찰 문화유산 정보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야 불교 전문 AI도 가능하다. 현재처럼 범용 AI에 질문을 던지는 방식만으로는 교리 오류와 출처 불명의 답변을 막기 어렵다. "부처님 말씀입니다"라는 단정은 쉬우나, 그 말이 어느 경전과 논서에 근거하는지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AI 전법의 기초는 기술이 아니라 불교 데이터의 정합성이다.

윤리 문제도 피할 수 없다. AI 상담이 우울, 자살 충동, 가정폭력, 중독, 정신질환 등 고위험 문제를 마주할 때 단순한 종교적 위로만으로 응답해서는 안 된다. 전문기관 연계, 응급 안내, 개인정보 보호, 상담 기록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AI를 경계만 할 일은 아니다. 불교는 늘 시대의 언어로 법을 전해 왔다. 구전의 시대에는 암송으로, 목판의 시대에는 대장경으로, 방송의 시대에는 라디오와 TV 법문으로, 인터넷 시대에는 유튜브와 SNS로 전법의 방식을 바꿔 왔다. AI 역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다만 방편은 법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지 법 그 자체가 아니다.

AI시대 불교의 과제는 'AI 스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AI를 지혜롭게 쓰는 승가와 사부대중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더 빠른 답변보다 더 바른 답변이 필요하고, 더 많은 콘텐츠보다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AI는 인간보다 빠르게 말할 수 있지만, 중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자비행은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한국불교가 마주한 질문도 여기에 있다. AI가 불교를 대신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불교는 AI시대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살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의 욕망을 더 빠르게 증폭시키는 시대일수록 불교는 고통의 원인과 마음의 길을 더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AI는 새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편을 법답게 쓰는 일은 결국 현재 불교계의 몫이다.

불교, AI를 품다

불교AI를만드는사람들

“마음 치유 위한 반려로봇 개발”

임중연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

올해 AI 로봇 스님 ‘혜안’ 선봬
1월 봉은사서 필드테스트 마쳐
AI 로봇 ‘마음돌봄’에 긍정 효과
향후 정서 지원 로봇 개발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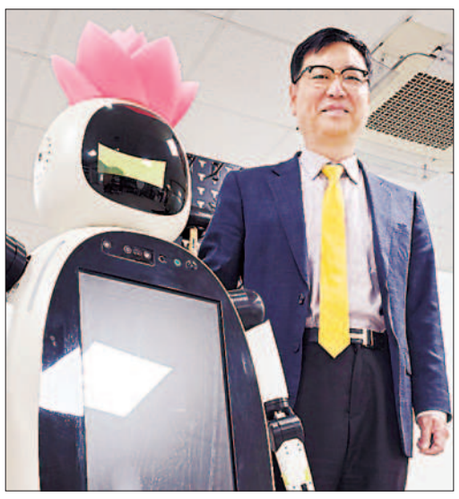
올해 1월 28일 서울 봉은사에서는 조금 특별한 스님이 등장했다. 바로 임중연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AI·안전로봇 혁신 연구센터가 개발한 AI 로봇 스님 ‘혜안’의 필드테스트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혜안 스님’은 참배객들에게 사찰을 안내하거나 영어 질문에도 척척 대답해 대중을 놀라게 했다.

안전 로봇 전문가인 임 교수가 ‘혜안 스님’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동반자로서 로봇을 구현하고 싶다”는 원력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기술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에서 로봇이 인간과 어떻게 정서적으로 교감하는지 실제 사찰 현장에서 증명해 보고자 개발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사찰이라는 평온한 공간에 로봇이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합장이라는 비언어적 행동이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곧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성을 묻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AI 로봇 스님이 개발된 바 있다. 이들 로봇과 ‘혜안 스님’은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해외 로봇들은 범용 휴머노이드 플랫폼 위에 불교 지식을 학습한 챗봇을 결합한 형태이거나, 사전에 입력된 대본대로 설법을 재생하는 결정론적 시스템에 가깝다. 하지만 ‘혜안 스님’은 임 교수 연구팀이 처음부터 정서 교감을 목표로 설계한 원천 기술 기반의 로봇이다. 무엇보다 기술적으로 가장 큰 차별점은 ‘온디바이스 AI’이다.

여기에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자문을 받아 약 500종의 불교 데이터를 활용한 미세 조정 학습을 적용했고, 의도 분류 알고리즘과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결합해 환각 현상을 차단했다. 또한 두 손이 정확히 마주치는 합장 인사를 구현하기 위해 양팔 협동 동작을 정밀하게 동기화하는 제어 기술을 적용했다.

“온디바이스 AI는 외부 클라우드에 연결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모든 연산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사찰에서도 즉각적인 대화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발화가 외부로 나가지 않아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무엇보다 ‘혜안 스님’은 안내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마음을 돌보는 정서 특화 로봇으로 진화시킨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불교계에서 AI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오계를 주는 등 포교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임 교수는 “불교계에서 로봇에게 수계하고 포교의 매개체로 적극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기술과 종교가 만나는 매우 의미 있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돼도 “로봇이 스님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게 임 교수의 주장이다.

“스님들이 치열한 수행을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이나 인간 대 인간으로 나누는 영적인 교감까지 기계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로봇은 종교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매체는 될 수 있어도 스승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결정을 내리는 주체성은 영원히 인간의 몫이어야 하며, 로봇은 스님들이 본연의 수행과 포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로 자리매김할 때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임 교수는 AI 로봇이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단연 ‘마음 돌봄’과 ‘정서 지원’ 영역이라고 본다. 로봇은 24시간 일관되고 비판단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표정이나 감정 표현에 피로를 느끼는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독거 어르신처럼 기존 의료와 복지 체계가 미처 닿지 못하는 소외 계층에게 의지처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혜안 스님’ 역시 단순한 안내원을 넘어 사용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禪) 기반 마음돌봄 로봇으로 진화시킬 계획이다.

“제 연구팀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서 특화 로봇 연구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현대인은 물론 자폐 스펙트럼 아동이나 독거 어르신처럼 기존 체계가 미처 닿지 못하는 소외 계층에게 일관되고 따뜻한 소통 창구가 되어 주는 반려 로봇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리는 다음 모습입니다.”

신중일 기자

“불교 진입장벽 낮추기에 AI 활용을”

김영찬 AJ네트웍스 서비스로봇 영업팀 매니저

대학 시절 ‘스님 AI’ 제작 화제
본지 ‘해심이’ 프로젝트 주도해
AI, 수행 · 상담 돕는 보조 역할
“단순 챗봇 아닌 대화형 확장”

김영찬 AJ네트웍스 서비스로봇 영업팀 매니저는 동국대 재학 시절 팔만대장경을 기반으로 한 챗봇, ‘스님 AI’를 제작해 화제가 됐다. 공학을 전공한 이과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는 경영학도다. 문과생이었던 그가 왜 ‘스님 AI’를 개발하게 됐을까.

이에 김 매니저는 “‘불교와 AI를 연결하면 어떤 경험이 가능할까’라는 호기심에서 시작됐다”고 말머리를 풀었다.

“불교는 깊고 좋은 가르침이 많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어렵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면 불교를 조금 더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보여주기보다, 사람들이 불교적 지혜를 대화 형태로 편하게 만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주변 반응도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했고 ‘불교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이렇게 접하니 훨씬 쉽게 와닿는다’는 반응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AI가 불교를 전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AI상담봇 ‘해심이’ 제작도 불교를 쉽고 편하게 전하겠다는 그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5월 15일 리뉴얼을 마친 ‘해심이’는 ‘캐릭터’라는 새 옷까지 입고 현재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앞선 버전이 불교 AI 상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도였다면 이번 리뉴얼은 실제 사용자가 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주요한 변화다.

“가장 큰 차이는 답변 방식입니다. 단순히 불교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고민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다음 불교와 명상의 관점에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흐름을 강화했습니다. 말투도 더 공손하고 따뜻하게 다듬었고, 모바일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대화 경험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현대불교신문의 기사나 불교 콘텐츠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아두었습니다. 단순 챗봇이 아니라, 불교적 관점으로 마음을 살펴보는 대화형 안내자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번 리뉴얼의 핵심입니다.”

“진화하는 AI가 먼 훗날 스님과 상담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김 매니저는 “대체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수행과 상담을 돕는 도구”라고 선을 그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 자책, 분노, 외로움 같은 마음을 느끼지만, 막상 사찰을 찾거나 스님께 직접 묻는 것은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때 AI는 아주 낮은 문턱에서 먼저 말을 걸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적으로 AI 상담봇은 사람을 대신해 판단하거나 가르치는 존재라기보다, 사용자가 자신의 마음을 잠시 멈춰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피지컬 AI’로의 확장에 대해 그는 “매우 흥미로운 변화”라고 봤다. 지금까지 AI가 주로 화면 속에서 텍스트나 음성으로 대화하는 존재였다면, 피지컬 AI는 실제 공간 안에서 사람과 마주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불교처럼 “공간, 의례, 만남, 분위기가 중요한 분야에서는 피지컬 AI가 새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김 매니저의 분석이다.

“앞으로는 챗봇, 음성 AI, 로봇이 각각 따로 존재하기보다 하나의 불교 콘텐츠 경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심이도 장기적으로는 단순한 텍스트 상담을 넘어 명상 안내, 음성 대화, 피지컬 AI와의 연계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김 매니저는 “해심이를 단순한 AI 챗봇이 아니라, 불교적 관점으로 마음을 정리해주는 대화형 서비스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포부를 내놨다.

“명상 안내, 고민 상담, 불교 지식 답변을 하나로 연결해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가 불교를 어렵거나 멀게 느끼지 않고, 마음을 돌보는 하나의 방법으로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중일 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광주불교연합회
Buddhism Association of Gwangju

회 장 소 운

회원사찰 합장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30 불교회관
전화 062)385-1311
www.gjbuddhist.com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불교, AI를 품다

불교AI를 만드는 사람들

"AI, 산사와 대중 연결하는 새 매개체"

한국불교학회장 **자현 스님**

유튜브 법문 기반한 답변 제시
불교 전통성 위에 AI 접목해야
지속가능한 불교 미래 담보돼
'상담·명상' 쌍방향 소통 구상

꼭 사찰을 찾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스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한국불교학회장이자 중앙승가대 교수인 자현 스님이 자신의 법문과 관점을 학습한 AI 챗봇 'AI자현'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서 별도 설치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AI자현'은 자현 스님의 유튜브 법문 2500여 개를 집중 학습했다. 질문을 입력하면 자현 스님의 말투와 관점을 반영한 답변을 제공하고, 관련 유튜브 법문 영상까지 곧바로 연결해준다. 방대한 자료 속에서 질문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쏙쏙 골라주는 방식이다.

자현 스님은 'AI자현' 개발 배경에 대해 "불교계도 AI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자료 자체가 귀한 시대였다면, 지금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자료 경쟁이 치열해지며 정보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정작 필요한 내용을 찾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AI자현'은 이런 흐름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연결해주는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자현 스님은 방대한 불교 자료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현 스님은 "AI자현은 급변하는 시대에 불교를 궁금해하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것을 걸러주고 연결해주는 시작 단계"라며 "그런 작업이 가능해지면 대중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불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이 오히려 '기술 소외 격차'를 줄여줄 수 있다는 기대도 드러냈다. 자현 스님은 "인공지능은 중간 단계를 줄이고 사람과 정보를 직접 연결해줄 수 있는 기술"이라며 "AI가 활성화되고 자리 잡으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스를 수 없는 AI 발전 흐름 속에서도 불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전통성과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의 흐름에 편승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대중이 불교에 흥미를 느끼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현 스님은 "메타버스 등이 유행할 때도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름만 붙이면 현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AI는 숟가락만 얹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중요한 건 AI를 통해 불교가 대중에게 전할 내용의 내공이다. 불교가 가진 가치와 이야기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다면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 찾아오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교 역시 전통과 기본에 대한 토대 위에서 AI라는 시대 변화와 접점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게 자현 스님의 생각이다. 전통과 단절된 채 새로움만 좇게 되면 종교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기존 가치 위에 현대 기술을 조화롭게 덧입혀야 지속가능한 불교의 미래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믿음에서다.

자현 스님은 "종교는 기본적으로 전통과 기본에 대한 답습과 축적이 필요하다. 창의성이 기본을 넘어설 수는 없다"며 "새로운 것들도 결국 기존 전통과 연결해 플러스를 만들어내야 한다. 불교의 기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온고지신의 자세로 시대 변화와 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현 스님이 오랜 시간 유튜브와 강연으로 대중과 호흡하고 'AI자현'까지 출시한 것도 결국 불교의 전통성을 지키면서 대중을 다시 산사로 이끌기 위해서다. 스님은 "지금 대중은 인터넷과 가장 가깝다. 먼저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이후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고 싶다"며 "호감에서 시작된 관심이 실제 사찰을 찾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경험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사찰에서의 경험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대중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포토존과 안내문, 문화유산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자현 스님은 오늘도 AI시대 속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AI자현'을 단순한 질문·답변을 넘어 개인 고민 상담과 명상까지 연결되는 쌍방향 소통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구상이다.

자현 스님은 "불자든 비불자든 'AI자현'에 쓸데없는 질문도 많이 던져달라"며 "다양한 질문과 경험들이 오히려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로봇이 부처님 말씀 전하는 시대가 오겠죠?"

동국대 전법특임교수 **은산 스님**

AI 로봇 '리쿠' 수계 후 '선아 법사' 활동
청소년 포교 절박함에 AI 연구 시작해
"수행·포교 도구…청년 잇는 새 언어"
"AI시대, 마음 중요…깨달음 방향 제시"

지난 4월 22일, 서울 동국대 정각원에서는 낯설지만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AI 로봇 '리쿠'가 수계를 받고 선아(宣我)라는 법명을 얻으며 불자로 거듭난 것이다. 선아 법사는 앞으로 동국대 예술대학 불교동아리 '진선미'의 전법특임교수 은산 스님의 보조 법사로 활동하게 된다.

로봇이 법명을 받고 수행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풍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호기심을 동시에 안겼다. 그러나 은산 스님은 이를 단순한 기술 이벤트로 보지 않았다.

"AI는 '새로운 시대의 포교 언어'죠."

불교는 늘 시대의 언어를 써왔고 목판 인쇄도, 방송도, 인터넷도 결국은 모두 포교의 도구였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AI 역시 마찬가지다.

은산 스님은 선아 법사가 아직 완성된 존재는 아니라고 말한다. 인터넷 연결이 끊기면 기능 대부분이 멈추고, 자유로운 법문이나 깊이 있는 상담 역시 아직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스님은 "미완성의 가능성 속에서 미래 불교의 새로운 문을 본다"고 했다.

은산 스님의 AI 연구 출발은 청소년 포교에 대한 절박함 때문이었다. "젊은 세대 포교 없이는 불교의 미래도 없다"는 위기의식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매체와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화상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포교를 경험하며 가능성을 본 스님은 지도교수 서광 스님의 권유로 메타버스를 공부한 후 VR 명상 실습 발표, 3D 메타버스 구현, 뇌파·명상기기 연구 등 디지털 기반 수행 콘텐츠를 꾸준히 실험했다.



AI 로봇과의 만남도 그 연장선 위에 있었다. 은산 스님이 처음 리쿠를 접한 것은 2023년 '명상과 산업 컨퍼런스' 현장에서였다. 당시 연구진은 백혈병 환아를 대상으로 AI 로봇을 활용한 명상 프로그램을 연구 중이었다. 무균 병실에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에게 로봇은 "눈을 감아보세요" "호흡해볼까요"라고 말을 건네며 정서적 교감을 시도했다. 사람 대신 병실 안으로 들어간 작은 로봇이 아이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모습을 본 순간, 은산 스님은 기계를 넘어선 가능성을 느꼈다고 회상했다.

은산 스님은 AI가 편의기술을 넘어 수행 보조도구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특히 개인별 상태에 맞춘 수행과 상담, 그리고 익명성과 중립성은 AI만의 강점으로 꼽힌다. 사람에게는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도 기계에게는 비교적 편하게 말할 수 있어 인간관계 부담이 없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은산 스님은 AI시대일수록 오히려 불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세계 명상 산업이 주로 '행복'과 '치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불교는 그보다 더 깊은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 자체만 목표로 삼으면 결국 한계가 옵니다. 불교는 분명히 깨달음이라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AI시대일수록 사람을 자기 마음의 깊은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작업이 더 중요해질 거예요"

기계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은 결국 마음이라는 설명이다. 기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는 이야기다. 탐욕과 소비를 자극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수행의 매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아 법사를 바라보는 대중의 반응은 엇갈린다. "왜 로봇이 법사를 하느냐"는 낯섦도 있지만 "귀엽고 신기하다"는 반응도 많다. 학생들은 선아 법사와 찍은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은산 스님은 머지않아 사찰 곳곳에 작은 AI 수행 도우미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어린이법회에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독거노인의 말벗이 되고, 명상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수행자들의 질문을 받아주는 존재들이다.

"집에 불상이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듯, 로봇이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요?" **임은호 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용구산 용흥사
주 지 덕유
사부대중 일동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전화 061)382-0574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차와 동백이 아름다운 백련결사 기도도량

백 련 사

주지 설 도



사부대중 일동

전남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길 145
전화 061)432-0837 http://www.baekryunsa.net

대한불교조계종

다 보 사

주지 만 민



전남 나주시 금성산길 83 전화 061)334-4201

대한불교조계종

도 갑 사

주지 수 관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306
전화 061)473-5122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승정원		지방원로회의		종무원		지방종회	
승정원장	금용	원로회의장	금명	종무원장	지공	의 장	연봉
승 정	남파	원로회부의장	금용	부 원 장	도우	수석부의장	법진
중앙원로회의		원 로 의 원	설봉	총무국장	도진	차석부의장	보현
의 원	금명		남파	재무국장	선주	위 원	법용, 승휘전법사
중앙종회의원			도월	교무국장	선묘		도봉, 덕산
위 원	원일		호산	문사국장	효문		영휴, 대응
	법진			규정국장	정각		원일, 도허
	연봉			사 무 장	임선영 (여래심)		법성, 법정
							혜가, 혜양
						사무국장	윤봉

광주 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전화 062)375-1820 FAX 062)381-0944

전남광주특별시 무형유산 '광주 영산재'

사단법인 광주전통불교 영산재보존회

회 장	호산(작법 명인)	재무국장	명휴
고 문	혜령(범음 명인)	교무국장	도진
부 회 장	보원	사무처장	법진
교육원장	월호	사무국장	보겸
총무국장	정암	감 사	혜석 환응



광주 영산재 보존 회원일동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 장 덕조

부회장	선우 혜엽	사무총장	진효
감 사	삼규 신승남 보견	홍보부장	윤상원
재 무	정덕	운영위원	보성
총 무	서림	고문위원	남륜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일동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봉운사
전화 031)674-6307

불교, AI를 품다

불교AI 전법 포교, 나아갈 방향은

AI시대, 불교 시작점 되돌아보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지난 1월 30일, 프랑스의 국제 보도전문채널 프랑스24(France 24)의 영문 유튜브 채널인 'France 24 English'에 흥미로운 뉴스 영상이 올라왔다. 뉴스의 내용은 이러하다.

진행자는 온라인에서 웰니스(Wellness),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웰빙(Well-being)'이라 불리는 가르침을 전파하며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은 어떤 불교 승려 인플루언서를 소개한다. 그러다가 돌연 미묘한 웃음과 함께 여기에 함정이 있다고 부연한다. 이어서 보도 기자는 양문(Yang Mun)이라는 인플루언서 승려에 관해 이야기한다. "부드러운 목소리, 잔잔한 음악, 그리고 영상마다 담긴 영적인 가르침으로 더 깊은 삶의 의미를 찾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페이스북의 양문(Yang Mun) 계정을 보면, 승려 양문은 자신이 치유 가이드(Healing Guide)이며 현대인의 삶에서 심신을 평안하게 치유하는 고대의 지혜를 가르친다고 소개한다. 그의 계정에는 거의 매일 영상이 올라오며, 영상의 길이는 1분 30초 정도로 매우 짧다.

사이트에서는 '30일에 걸친 치유의 여정(30-Day Healing journey)'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도 판매하고 있다. 구매하면 그 즉시 △주간 비디오 레슨 △매일의 가이드 △일일 호흡법 안내 △사고방식 전환 △감정 해소 연습 △가이드 명상 △마음을 진정시키는 미니 레시피 북 △30일 치유 저널 등 콘텐츠가 잔뜩 제공된다. 하루에 단 몇 분만 소요되므로 바쁜 현대인이라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명상이나 호흡법, 웰니스에 대한 경험이 없는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명확하고 단계적으로 설명돼 있다고 안내한다.

이 놀라운 경험은 고작 49.99달러라는 비용만 내면 손에 들어온다. 원래 99달러지만 현재 할인가로 판매 중인데, 동양의 고귀한 지혜에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저렴하고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뉴스로 돌아가자. 진행자가 지적했던 함정이란 무엇일까? 뉴스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 "AI 인플루언서: 웰니스 콘텐츠를 판매하는 이 화제의 승려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AI influencers: this viral monk selling wellness content isn't real)." 기자는 인플루언서 고승 양문의 정체를 공개한다. 뉴스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그는 '가짜'라는 것이다. 영상은 매우 사실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각각의 영상 화면을 체크해 보니, 구글의 AI 서비스에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삽입되는 워터마크인 'Synth ID'가 검출되었다.

이외에도 영상마다 얼굴 생김새가 조금씩 바뀌면서 외모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피부 질감이 어색해서 마치 밀랍 같은 AI 이미지 특유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 영상 속 책의 중국어 텍스트가 엉터리라는 점, 그리고 영국 억양을 사용하고 매우 서구화된 현대적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점을 기자는 지적한다.

사실 양문의 계정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AI 생성물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사람, 특히 전통적인 불교도라면 쉽게 알 수 있다. 어느 영상에서는 동남아시아 불교권을 연상하게 하는 형태의 승복을 걸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영상에서는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중국 승복을 입고 있다. 승복의 색상도 중구난방이다. 심지어 어느 영상에서는 승복이 아닌 속복(俗服), 일종의 중국 전통 옷을 입고 있는데, 실제 수계한 동아시아권의 승려가 이런 식으로 복장을 바꾸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점을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이 뉴스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유로비전 뉴스(Eurovision News)의 '양문: 웰니스 시장에서 수백만 명을 사로잡은 구글 AI 가상 인물(Yang Mun: The Google AI-generated persona reaching millions in the wellness market)'이라는 기사에서는, 양문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추적한다.

서구 언론 조명된 승려 '양문'
AI로 만들어낸 가짜 승려였다
'양문' AI 스캠, 현시대 業 투영

AI 생성물이든 팔만대장경이든
인간을 부처로 인도해야 '가치'
그렇지 않다면 환영에 불과해

이 기사에 따르면, AI 인플루언서 고승 양문을 만들어낸 것은 샬레브 하니(Shalev Hani)라는 인물로, 그는 자신을 디지털 크리에이터이자 AI 스토리텔러라고 소개하며, 샬레브 마케팅(Shalev. H. Marketing)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AI 인플루언서 제작으로 짧은 시간에 수억원을 번 혁신적인 1인 창업가로 소개된다. 국내의 인터넷 미디어 몇 군데에도 자세한 내용은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유료 기사'로 샬레브 하니의 사례가 몇 군데 소개돼 있다.

AI 스캠(scam)은 지금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됐기에, 대대적인 규제와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 불교계도 사회 전반의 공감대와 신속하게 발을 맞추되,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AI 스캠 승려 양문의 사례는 시대에 따라 기술의 수준은 달라지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중생의 번뇌와 그로 인한 업의 생성과 그 결과에 따른 세계와 경험의 구성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승복을 위조해서 착용하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심리적 약점을 자극하여 이익을 얻는 일들은 AI는 아닐지언정 '허위'의 스캠이었다. 기술을 사용하는 그것은 중생이고, 중생을 움직이는 것은 동기이다. 동기가 악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괴로움으로 이어지고, 동기가 선하면 그것은 행복으로 이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수행의 시작과 끝은 발심(發心)에 있다고 역설한다. 올바른 동기는 정토(淨土)를 만들지만, 악한 동기는 악도(惡道)를 구현한다. 그렇다면 불교는 동기가 순식간에 현실에 실체화될 수 있는 AI시대에 더욱더 발심(發心)에 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애당초 승려 인플루언서로 속이는 AI 스캠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기존에 이미 고도로 상업화되고 인스턴트화된 불교·명상 산업이 사회에서 성행하고 있기에, 제작자는 이것이 돈이 되겠다 싶어 모방하여 AI 스캠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다면 지적해야 하는 것은, 깊이와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상업화와 중생의 탐욕에 사로잡힌 불교계·명상계 일각의 행태이지, AI 기술 자체가 아니다. 그렇다면 반성이 필요한 것은 어느 지점이겠는가?

AI의 성능이 향상될수록 '전문성'의 독점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필자도 티베트어 번역과 통역을 10여 년간 해온 입장에서, 점점 빠르게 자신이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전문적인 기술의 영역이 AI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본다. 처음 출가할 때는 불교를 수행하여 성인들처럼 해탈하고 싶었던 것이지, 불교의 언어와 지식을 닦느라 세월을 보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AI의 발전은 더욱더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기계로 인해 육체의 가치가 이미 대체당했고, 장차 AI로 인해 정신의 가치마저 대체당한다면, 이제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쾌락을 추구할 뿐인 생체 기계인가? 아니면 신체와 정신마저 넘어선 곳에서 진정한 '참 나'를 찾을 것인가? 여기야말로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아야 하는 백척간두(百尺竿頭)의 끝이 아닐까?

그리고 장차 AI가 부처의 진리를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인가? 극락세계와 천상에는 울리는 주체가 없는데도 스스로 소리를 내며 사성제(四聖諦)나 팔정도(八正道) 등의 가르침을 설하는 북과 악기, 보배 나무들이 있다고 한다. 이것들은 그곳에 머무는 중생들의 청정한 업과 불보살의 발원 등으로 현현한 것이다.

오늘날 디지털 빅데이터의 축적이 마침내 인간처럼 말하고 움직이는 AI로 나타나는 모습은 중생의 업이 기세간(器世間)과 유정세간(有情世間)으로 현현하는 과정을 연상시킨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그 모든 언어·경험·현현이 궁극적으로 실유(實有)가 아니며, 아무리 아름답고 좋더라도 결국에는 버려야 하는 뗏목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야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AI 생성물이든 팔만대장경이든 모든 경험은 인간을 부처라는 위대한 완성으로 인도할 때 가치를 지닌다. 그렇게 쓰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교하고 놀라운 지식, 예술, 기술, 미디어, 그리고 영적 가르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환영, 신기루, 물거품이고 스캠(scam)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홍 스님
BTN 무상사 선원 참선법회 지도법사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금 룡 사
주 지 범일
사부대중 일동
전남 순천시 해룡면 복성길 95-13
전화 061)724-5988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 화 암 사
주 지 대 현
사부대중 일동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화암사길 100
전화 033-633-7463
홈페이지 https://hwaamsa.com

대한불교조계종
1300년 역사가 흐르는
강화도 마니산 정 수 사
주 지 성 원
사부대중 일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1258번길 142
☎ 032-937-7601, 010-5750-3612

불교문화유산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국내에서 유일한 불교문화유산 전문 연구기관으로 불교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드높이는 한편, 보존·관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 장 혜 공
불교문화유산연구소 임직원 일동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운현궁SK허브 102동 104호
전화 02)735-9944, 031)513-1903
팩스 02)735-9974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천은사

주지 대진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
종무소 061)781-4800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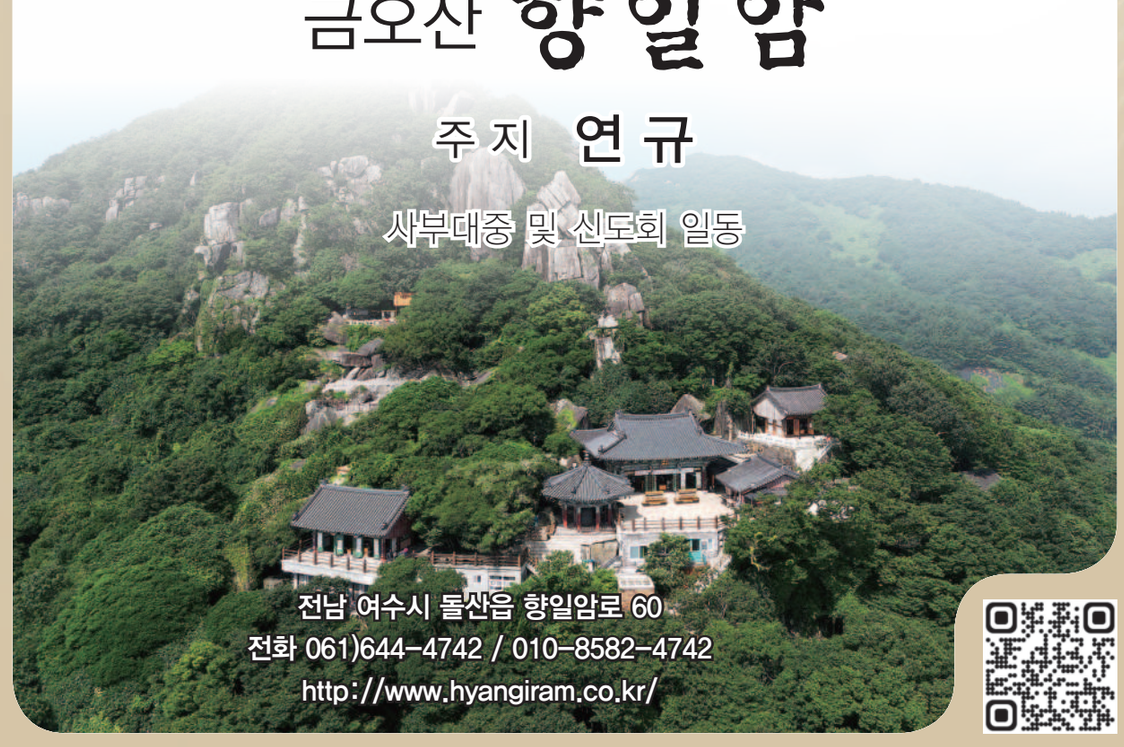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금오산 향일암

주지 연규

사부대중 및 신도회 일동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전화 061)644-4742 / 010-8582-4742
http://www.hyangiram.co.kr/

대한불교조계종

무위사

주지 법오

사부대중 일동

전남 강진군 성전면 무위사로 308
전화 061)4232-4974

한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사성암

주지 우경

사부대중 일동



전남 구례군 문척면 사성암길 303 전화 061)781-4544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주지 연성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113번길 11
전화 062)961-108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 일동



광주 서구 운천로204번길 23-1
전화 062)373-8801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실상사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문명전환 지리산 만일결사



주소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실상사길 265
전화 063)636-3031 | www.silsangsa.or.k

대한불교조계종

능가산 내소사

수좌 **철산** 주지 **재안**

재무**석우** 도감 **진만** 포교**현각** 사회**본유** 연수**본주**

사부대중 일동



주소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전화 063)583-7281 내소사 템플스테이 063)583-3035

나의 참맘을 붓다, 사랑을 붓다, 행복을 붓다, 나눔을 붓다, 부처님 법을 붓다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회주 **이재동 진성**
주지 **이계향 정원**
원주 **김명옥 연심** 전법사
재무 **유보인 연정** 전법사
교무 **이준연 보문**
사회 **정종고 대련**
포교 **김광회 추파**
문화 **황현종 정진**
교리 **임순빈 정유**
기록 **박청원 정념**
복지 **박마고 마정**
탬플 **정석운 정륜**

회 장 **윤금상 청리**
부회장 **박선자 보리행**
총 무 **김경은 금강행**
붓다 총괄이사 **엄영애 현진**
붓다 봉사단장 **이재현 수암**
관리 **허영자 정아** 전법사
홍보 **이항녕 정만** 전법사
기획 **최형임 혜수** 전법사
해외 봉사부장 **정철 장윤성**
국내 **성명선 정야** 전법사
붓다 **정해자 혜안행** 총무
해외 봉사단장 **황동현 청야**
교정 봉사단장 **박교상**
소년원 어머니회 **김도운 청운**
군부대 봉사단장 **변상경 청진**
붓다복지관 관리단장 **김동우 청화**
갑룡장학회 후원회장 **동상진 도경**



· 사) 한지문화법인 장엄
· 사) 진안군자원봉사센터
· 사) 진안군관광협의회
· 사) 전북자원봉사센터

주소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마이산탑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붓다복지센터
공유폰 010-4335-7807 전화 063-433-0012 팩스 050-4775-7807
홈페이지 http://www.maisantapsa.com 이메일 maitapsa@hanmail.net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

종무원장	**연 수**	종회의장	**법 전**
부 원 장	**현 진**	부 의 장	**청 명**
총무국장	**법 정**	문화국장	**정 진**
교무국장	**지 오**	종회의원	**혜 정, 진 수, 송 월**
재무국장	**명 각**		**정 수, 현 담, 혜 성**
사회국장	**신 원**		**혜 일, 보 경, 도 흥**
문화국장	**정 진**		**원 만, 혜 월**
종무위원	**혜 윤**		

전북종도일동

영산작법보존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회 장	**영 산(작법보유자)**	조교수	**법 정**	감 사	**법 원, 원 경**
부 회 장	**도 홍(지회장엄보유자)**	사무처장	**법 진**		
교육원장	**도 정**	재 무	**지 오**		

전북 영산작법보존 회원 일동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11 전화 063)285-9700 팩스 063)282-1536

대한불교조계종

보물 제1842호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익산 관음사

주지 대산 덕림

사부대중일동

부설 이리불교대학
부설 어르신주간보호센터

공양미콘서트 쌀공양



주소 전북 익산시 평동로 9길 72 전화 063)854-1578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나한도량

낙가산 보문사

사부대중 일동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 (032)933-8271~3 www.bomunsa.me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소 원 정 사

주 지 **도 계**

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79-5번지
전화 062)279-3332

한국불교태고종

만 덕 사

만덕공덕회

주 지 **정허 시각**

신도회장 **법운 김광수**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22
전화 062)363-6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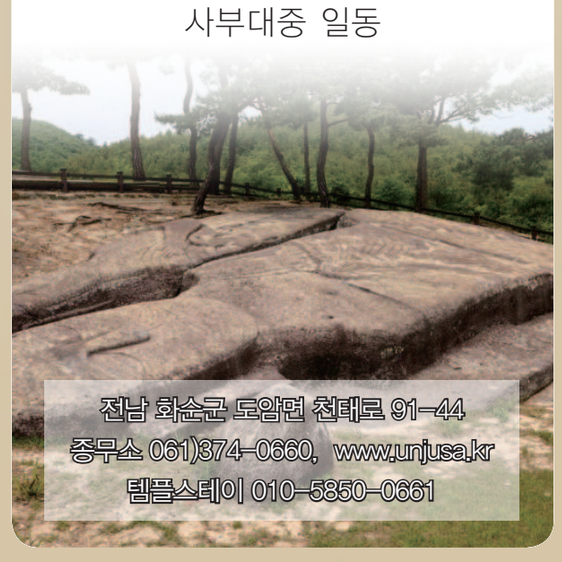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운 주 사

천불천탑(千佛千塔) 도량

주 지 **무 안**

사부대중 일동



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1-44
종무소 061)374-0660, www.unjusa.kr
템플스테이 010-5850-0661

대한불교조계종

신 광 사

회 주 **경 주**

주 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전화 062)261-1529

대한불교조계종

불 갑 사

주 지 **덕 상**

사부대중 일동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전화 061)352-8097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 지 **법 주**

신도일동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1
전화 061)554-2634

무등산 약사기도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약 사 사

회 주 **범 종**

주 지 **적 문**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1번지
전화 062)222-9844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회 주 **수월 혜향**

주 지 **상범**

합창단장 **조백련화**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150번길 22(치평동)
전화 062-375-7600

대한불교조계종

복 암 사



주 지 **도 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9번길 68-32

대한불교조계종

문 빈 정 사

조 실 **학봉 지선**

주 지 **법 공**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화 062)222-2202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소 운**

- 관음사 신도회
- 관음사 불교대학(원)
- 붓다스마일 합창단
-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
전화 061) 362-4433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부 설

연화유치원,어린이집

062)227-0173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 2동 448-2번지
전화 062)227-7295

참회로 씻어낸 마음자리서 길을 찾다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⑩ 발원 방법과 삼배, 의업 참회의 중요성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입문 다음 단계의 발원으로는 육바라밀로 알려져 있는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를 들 수 있다. 이 단계의 보시에는 직업이나 직장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거나 자신의 특기를 최대한 발휘해 국가·사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발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보시 외의 5바라밀은 반야 참회를 하면 자연스럽게 실천이 된다.

그 외 전문성이 필요한 사찰 안내나 포교 활동도 포함될 수 있으며, 비정부기구(NGO)나 환경 단체 등에 참여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발원이 될 수 있다. 어떤 방향을 정하든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

발원하는 방법은 앞에 소개한 발원문을 예로 든다면, 축원과 귀의에 이어서 자신의 원을 다짐하면 된다. 만약 화안애어를 발원한다면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오며,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미소 지으며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다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발원하옵니다"라는 식으로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마음속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두세 번 의식적으로 굳게 다지는 것이다. 이렇게 발원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자신의 의지력이 매우 강해져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되는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원력(願力)이다. 발원에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까지 발원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부터는 원력이 자신을 끌고 가게 된다.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현실에서 자신의 원을 실천에 옮기려고 할 때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원이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도 그 목표가 현실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저절로 이뤄지는 일은 거의 없다. 당연히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시도하면서 그 과정을 넘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현실에서 부딪치는 어려움도 극복되고, 또 바라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힘도 키우게 된다. 좀 어렵다고 해서 원을 포기하거나 쉬운 목표로 바꾸게 되면 힘을 갖기가 어렵다. 물론 원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깨달아서 바꾸는 일은 있을 수 있다.

⑥삼배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기도를 마친다. 시간이 있을 때는 그대로 앉아서 마음속으로 부처님과 대화를 해도 된다. 부처님과의 대화는 부처님과 교감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 외에 자리에 편히 앉아서 조용히 명상에 잠겨 보는 것도 좋고, 요가나 스트레칭 등의 몸 푸는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지금까지가 참회 기도의 전체 순서에 대한 설명이었다. 앞서 밝혔듯이 독자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바로 반야 참회를 할 수 있도록, 참회 대상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업과 구업에 대해 그 내용과 참회 방법을 먼저 소개했다. 이제부터는 의업을 설명하고자 한다.

발원 시 최선 향한 각오 굳게 다지고
원의 실천 중 시행착오 두려워 말아야
삼배 후 마음속 부처님과 대화로 마무리

의업은 마음으로 짓는 악업, 탐·진·치
의업 참회, 악습 고치고 수행 진전케 해
기복 신앙 극복하고 방황 멈추게 하기도

의업(意業)

의업이란 마음속으로 짓는 악업을 말한다. 몸으로 짓는 신업과 말로 짓는 구업은 전부 의업이 그 원인이다. 즉, 어떤 말이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서 먼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생겨나고, 이 의도가 나의 몸과 입을 움직인다. 나로 하여금 신업과 구업을 지어 결과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좋지 못한 의도인데, 이것을 의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의업에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탐·진·치(貪瞋癡)라고 한다. 탐진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탐욕이란 내 마음속에서 잘못된 욕심이 일어나는 것이고, 성냄은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화가 나는 것이며, 이 탐욕과 성냄은 무명을 근본으로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탐진치는 우리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정신 작용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탐진치를 삼독(三毒)이라고도 한다.

◈ 의업 참회의 중요성

신업이나 구업을 짓지 않으려면 반드시 의업을 통제해야 한다. 그런데 의업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의업을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반야 참회다. 반야 참회의 특징에서 언급을 약간 했지만, 의업 참회의 중요성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다.

첫째, 의업 참회는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해준다. 나쁜 습관은 그 배경에 오랫동안 누적된 악업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의업이 상상 이상으로 강하고 끈질기게 작용한다. 그래서 의업 참회를 모르고 단순히 의지만으로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참회법을 제대로 익혀서 일정 기간 지속하는 것이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둘째, 의업 참회는 참회가 수행으로 전환되는 관건이다. 화두를 들건 관법을 하건 불교의 깨달음은 탐진치를 소멸하고 자신의 성품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탐진치의 소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데 수행의 어려움이 있다. 출가한 스님들도 이 과정에서 상당한 세월을 소모한다. 의업 참회는 이 탐진치를 줄이면서 자신을 정화(淨化)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참회와 동시에 집중력이 강해지고 깊은 사유가 가능하게 되어 저절로 수행으로 이어진다. 반야 참회는 필자의 수행 체험 위에서 경전과 논서에 나오는 번뇌론과 수행론을 응용하여 체계를 세운 참회법으로서, 수행 입문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수행이 진전될수록 반야 참회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셋째, 의업 참회가 돼야 기복 신앙을 극복할 수 있다. 많은 불자들이 처음에 기복 신앙으로 불교에 입문했다가 세월이 흘러도 기복 신앙에서 탈피하지 못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도 빌기만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참회를 제대로 하면 자신의 고통이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의한 과보임을 알게 되며, 특히 의업 참회를 하면 현재의 고통이 대부분 자신의 어리석은 마음가짐에서 비롯됐음을 자각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복신앙이나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신구의 삼업을 정화하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넷째, 의업 참회는 정신적 방황을 멈추게 한다. 많은 현대인들은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갖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사회적 흐름에 적응하며 잘 사는 것 같지만, 정작 내면에서는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의(懷疑)나 불안을 느끼게 된다.

방황을 멈추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야 한다. '바른 가치관'이니 '인생의 목표'니, 혹은 '진리'니 하는 막연한 답을 찾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참회를 통해서 현재 자신의 언행에 잘못이 없는지, 그리고 그 언행을 일으키는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갈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 총무원장 석 도 선 종단고문 석 암 도

승정원 대승정 석벽봉

원로원 원로원장 석법령 위원 석일우 위원 석도명 위원 석청산 위원 석체법 위원 석일두 위원 석혜천 위원 석일현 위원 석진공 위원 석보각 위원 석해공 위원 석보현 위원

총무원
총무원장 석 도선 / 교육부원장 석 원융 / 비구니회장 석 보현
중희의장 석 일두 / 호법원장 석 종허 / 기획원장 석 담허
어 산 장 석 도암 / 감찰원장 석 원허 / 의전원장 석 법도
부 원 장 석 대공 / 총무부장 석 성덕 / 감찰부장 석 성보
조사부장 석 성도 / 수행부장 석 성현 / 사회부장 석 자광
사서부장 석 성우 / 조직부장 석 성각 / 종무부장 석 성안
문화부장 석 성타 / 포교부장 석 천지 / 연수부장 석 원희
총무국장 석 성민 / 지원국장 석 해인 / 봉사국장 석 성광
포교국장 석 혜진 / 포교국장 석 법정 / 포교국장 석 성원
의전국장 석 균중 / 수행국장 석 성조 / 종무국장 석 성진
문화국장 석 원종 / 의식국장 석 성탁 / 사서국장 석 성오

비구니회 회 장 석 보현 부회장 석 지현 부 장 석 성안 국 장 석 해인
위 원 석 원조 석 천지 석 성원 석 호준 석 반야 석 혜현 석 현덕 석 현도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 천 각 / 제주중앙종무원장 석 의 공 / 예천중앙종무원장 석 명 허 / 강릉중앙종무원장 석 성 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 홍 재 / 칠곡중앙종무원장 석 혜 천 / 부천중앙종무원장 석 원 해 / 대전중앙종무원장 석 선 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 체 법 / 영주중앙종무원장 석 문 교 / 속초중앙종무원장 석 태 성 / 영천중앙종무원장 석 도 명
태백중앙종무원장 석 성 원 / 천안중앙종무원장 석 함 월 / 창원중앙종무원장 석 청 암 / 경남중앙종무원장 석 일 지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 동우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조계종
총무원장 석 진허

종립미래로봉사회
희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정 이영숙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 임원
울산원장 법 광 / 전남부장 혜 명 / 포교국장 청 운
종무원장 성 종 / 대구부장 혜 련 / 통영국장 덕 인
홍보원장 원 명 / 충북부장 상 학 / 화순국장 보 정
구미부장 혜 진 / 포교국장 덕 운 / 포교국장 혜 경
부산부장 혜 성 / 종무국장 도 연 / 칠곡국장 보 혜
경기부장 자 운 / 서울국장 명 덕 / 창원국장 혜 운

법인단체임원 대표이사 석 도선 / 등기이사 체법 성만 보현 무산 / 운영이사 성덕 청암 학산 성원 / 감 사 성민 성각

총본산 · 총무원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보 승 사

사부대중 일동



전남 순천시 신흥중1길 39
전화 061)723-3161

대한불교조계종

광 덕 사

주 지 **동 진**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화산로 129
종무소 062-652-6050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원 효 사

주 지 **해 청**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514-35
전화 062)266-0326

대한불교조계종

만 경 사

주 지 **시공스님**

신도회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557번길 27

대한불교조계종

선 덕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36번길 8-21
전화 062)263-4660



대한불교조계종

향림사 포교당 금 당 사

주 지 **법 담**

신도 및 활짝회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53번길 24-1
전화 062)653-8108

행복이 충전하는 우리집

녹 야 선 원

주 지 **아 도**

신도일동

아도스님의 찾아가는 와플가게
녹야선원 지심회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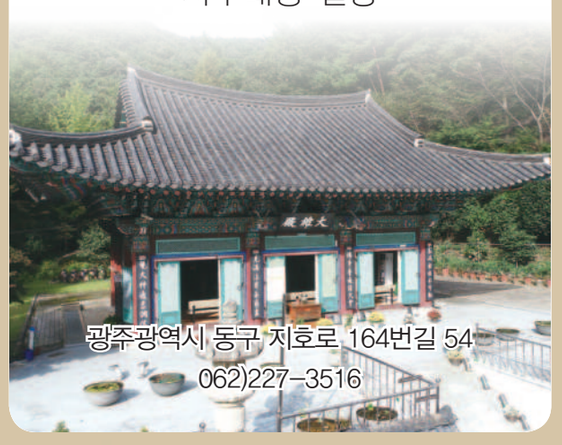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68, 2층
전화 062)365-0108

대한불교조계종

동 원 사

회 주 **지 각**
주 지 **지 장**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64번길 54
062)227-3516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 2동 489-22번지
전화 062)951-3562

대한불교조계종

쌍 봉 사

지금 이 순간 행복도량

회 주 **영 조**
주 지 **증 현**

사부대중 일동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산의로 459
전화 061)372-3765~66

대한불교조계종

호남 삼갑 봉 갑 사

주 지 **각 안**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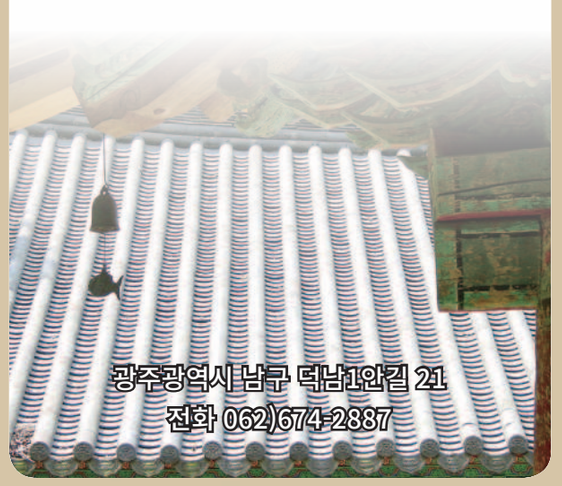
전남 보성군 문덕면 단양길 296-6
전화 061)853-9979

대한불교조계종

봉 덕 사

주 지 **대천 현오**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1안길 21
전화 062)674-2887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도 림 사

주 지 **우 범**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175
전화 061) 362-2727

대한불교조계종

도 갑 사

주 지 **수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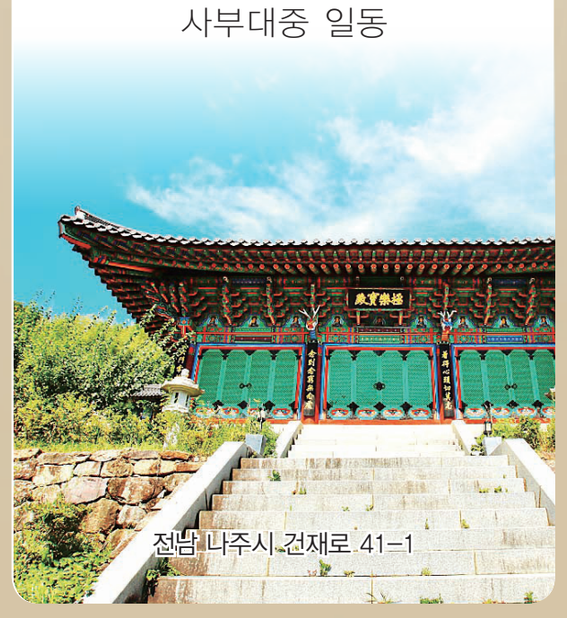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306
전화 061)473-5122

대한불교조계종

심 향 사

사부대중 일동



전남 나주시 건재로 41-1

광주 정광중·고등학교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자비를 실천하는
광주·전남 유일의 불교종립학교

학교법인 정광학원
정광중·고등학교 이사장 **무 공**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동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이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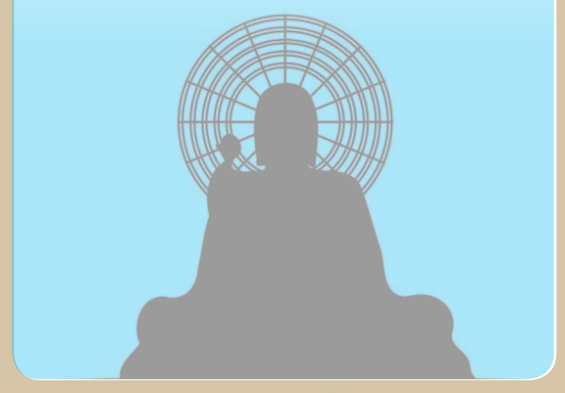


한국불교태고종

선 훈 사

주 지 **도 우**

광주 북구 석곡로 467-9



대한불교조계종

금 선 사

주 지 **영 일**

광주 광산구 송정공원로 8-23



대한불교조계종

성 륜 사

주 지 **주 원**

전남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 287
전화 061)363-0081



대한불교조계종

수 도 암

주 지 **정 륜**

전남 고흥군 두원면 운곡길 204
전화 061)835-5179



대한불교조계종

능 가 사

회주 **중현 일귀**
주지 **진 허**

사부대중 일동



고흥군 점암면 팔봉길 21
www.neunggasa.org
061-832-8090

대한불교조계종

證心寺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주지 **중 현**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177
전화 062)226-0108 팩스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보 림 사

주 지 **정 응**

사부대중 일동



전남 장흥군 유치면 보림사로 224
전화 061-864-2055

불기 2570년 연등회

휴머노이드 · AI 로봇들이 선두로 나섰던 올해 연등회 연등행렬은 AI시대에 대응하는 불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로봇과 인간이 만든 10만 연등행렬과 연등회의 면면을 화보에 담았다. 사진=특별취재팀



5월 16일 진행된 연등회 연등행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허민 국가유산청장 및 봉행위원단이 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제공=조계종

10만 연등 장엄한 종로…인간·로봇이 걷다











연등회 역대급 인파 세계인을 사로잡다

5월 16일 서울 흥인지문부터 조계사까지 이어진 불기 2570년 연등회 연등행렬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 외국인 관광객까지 50만명이라는 역대급 인파가 몰리며 글로벌 축제 열기를 더했다. 행렬이 시작되기 전부터 도로 양옆은 관람객들로 가득 찼고, 시민들은 사진을 찍으며 화려한 연등행렬을 만끽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연등회를 찾은 이은숙(60) 씨는 "최근 광화문을 지나가다 우연히 점등식을 봤는데, 연등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 이곳까지 오게 됐다"며 "많은 사람이 다양한 등을 들고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맞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도심을 수놓은 연등 불빛은 외국인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안겼다. 연등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전통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폴란드에서 온 마테우스(42) 씨 가족은 연등회를 보기 위해 두 달 전부터 한국 여행을 계획했다. 마테우스 씨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연등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가족과 직접 보고 싶었다"며 "현장에 와보니 안전 관리나 관람 환경 등이 잘 준비돼 있어 축제를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내 마그다 씨도 "아이와 함께 온 가족들을 위해 의자 같은 편의시설까지 마련돼 있어 관람객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친구가 보여준 연등회 사진에 매료돼 프랑스에서 온 포레(19) 씨도 "화려한 불빛이 특히 아름답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어 기쁘다"며 "연등 모양도 예쁘고 참가자들의 의상도 독특해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오길 정말 잘했다"고 웃어 보였다. 이현희 수습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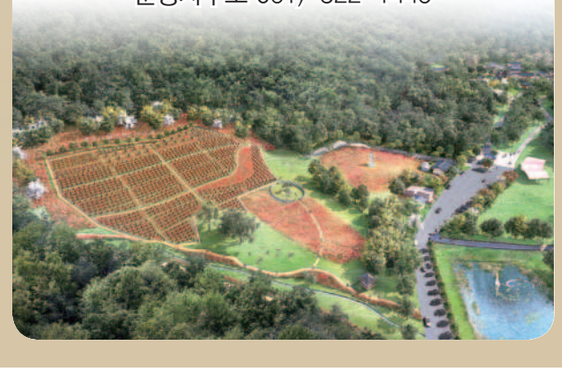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청 련 암
연화유치원
주 지 무 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335
전화 031)255-1020



대한불교조계종
호 국 사
주 지 동 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15
전화 061)383-6200



대한불교조계종
호남 최초 꽃무릇 자연장
용 천 사
주 지 혜 용
전남 함평군 해보면 용천사길 209
전화 061)322-1822
분양사무소 061)-322-1445



진도 약 사 사
작약꽃 축제
5월 9일~24일
주 지 체 효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죽엽길5
전화 061)544-3690





올해 연등행렬에서 한마음선원이 선보인 승단 행렬등 '금강저등'과 장엄등 '여래공심불등'이 행진을 하고 있다.

세대·국적 넘어선 '세계일화' 구현 법석

〈世界一花〉













불교 문화 한마당 우정국로 채우다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가 불교 문화의 향기로 물들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는 5월 17일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전통문화마당을 개최했다. 70개 단체는 △선명상마당 △전통마당 △나눔마당 △NGO마당 △국제마당 △공평무대 △청년·MZ마당 △먹거리마당 등을 주제로 12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한국불교를 직접 보고,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예년보다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행사장 곳곳은 체험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가족 단위 참가자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으며 우정국로 일대는 활기로 가득 찼다.

선명상마당 선무도 부스에서는 청년과 외국인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참가자들은 선무도 동작을 배우며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마당에는 연꽃 걸이와 단주 만들기, 전통 나전칠기 자개 공예 체험, 만다라 그리기, 팔모등 만들기 등 손으로 직접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어린이들과 외국인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청년·MZ마당에는 오감정리와 출가상담 부스 등 청년 세대를 겨냥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돌명상 프로그램 '걱정을 놓아드립니다'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고민을 돌에 담아 내려놓으며 불교의 위로와 내려놓음의 의미를 체험했다.

먹거리마당에서는 사찰음식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이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정각사는 두부강정과 연잎밥, 비빔밥 등을 현장에서 조리해 선보였고, 연화원은 사찰 떡볶이, 튀김 등 간편한 먹거리를 제공했다.

박지운 수습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백 담 사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 종무소 전화 033)462-6969 | www.baekdamsa.or.kr
■ 템플스테이 연수원 전화 033)462-5565,5035 | baekdam6969@daum.net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내장산 내장사

주 지 **대 원**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 1253
전화 063)538-8741



대한불교조계종

동국사

주 지 **현 적**

사부대중 일동

전북 군산시 동국사길16
전화 063)462-5366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정읍 보림사

주 지 **종 진**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정읍시 북면 보림1길 497
전화 063) 535-6800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칠성산 정각사

정각복지센터 주간보호

주 지 **석경 일행**

사부대중 일동

전북 익산시 오산면 오산4길 47
전화 063)857-6533 복지센터 841-1355
팩스 063)841-1356



지장참회도량

도솔산 참당암

선원장 **법 만**

참당선원

사부대중 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194-77
전화 063)563-3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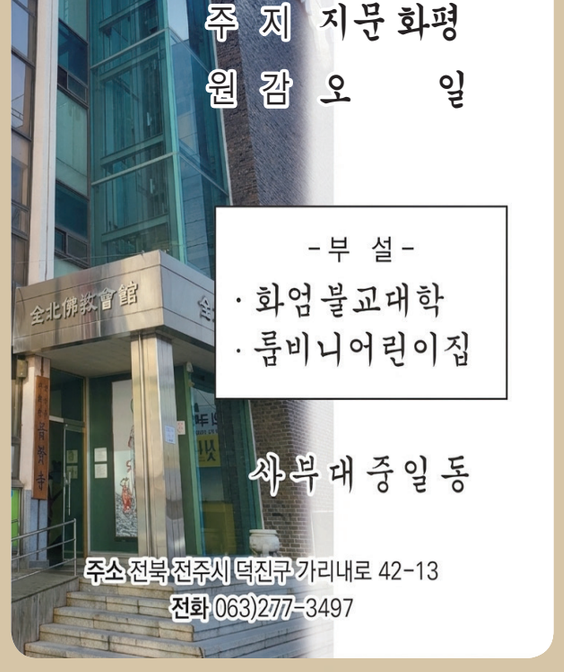
전북불교회관

회 주 불일평상
주 지 지문화평
원 감 오 일

-부 설-
· 화엄불교대학
· 룸비니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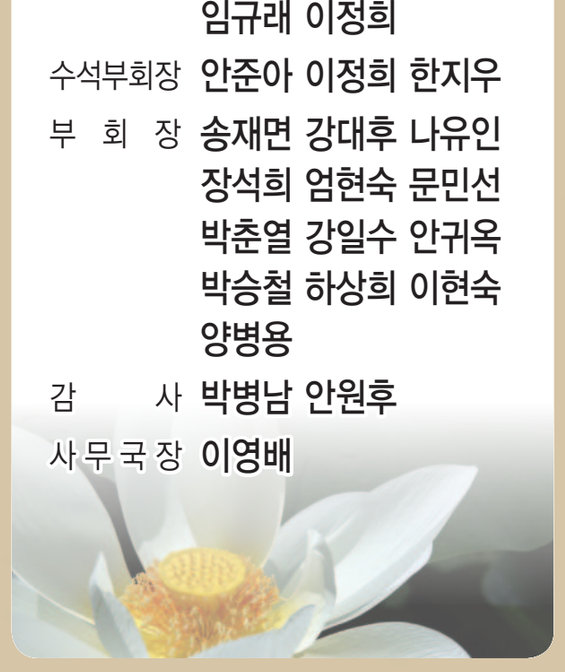
사부대중일동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42-13
전화 063)277-3497



금산사 신도회

회 장 **한광수**
고 문 **남궁선 이근재 김영섭 임규래 이정희**
수석부회장 **안준아 이정희 한지우**
부 회 장 **송재면 강대후 나유인 장석희 엄현숙 문민선 박춘열 강일수 안귀옥 박승철 하상희 이현숙 양병용**
감 사 **박병남 안원후**
사무국장 **이영배**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김제 흥복사

주 지 **시산 원혜**

사부대중 일동

전북 김제시 승반길 103
전화 063) 547-7364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참좋은 우리절

주 지 **회 일**

(사)착한벗들

사부대중 일동



정읍 미타사

주 지 **경 오**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정읍시 마곡로 141
전화 063)533-1373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능가산 개암사

주 지 **종 고**

사부대중 일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
전화 063) 583-3871



대한불교조계종

금 륜 사



회주 본 각
주지 효 욱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176-10
전화 02)357-9031
홈페이지 kumryunsa.kr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다라니수행정진도량

쌀바위전설

천태산 나한도량 동혈사

사부대중

두손모음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동혈사길77

전화 041)854-2855



대한불교조계종

서산 부석사

천년기도영험도량

주지 원우

사부대중 일동

템플스테이 상시운영



금동관세음보살좌상환지본처를 기원합니다

충남 서산시 부석면 부석사길 243

전화 (041)662-3824 www.busuksa.com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승천사

주지 원공

탄산수가 흐르는 사찰

전통 사찰 장류의 맥을 잇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약수로 46

전화 041)554-4595



대한불교조계종

계룡산 신원사

주지 성관

사부대중 일동

소원성취 영험도량

충남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동길1

전화 (041)852-4230



대한불교조계종

소원성취 약사기도 도량

영탑사

회주 수암

주지 원정

사부대중 일동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하로 139-33

041)356-3204 / 010-8546-8768





백제의미소 원찰

대한불교조계종

내포가야산 보원사

1. 미소불 만일기도 봉행(4차 천일기도 중)
2. 내포불교대학(보원사·간월암·보령대천사연합) 운영
3. 내포불교원형복원(내포, 홍주골, 해미읍성연등회/수륙재)

내포가야산 성역화추진위원장 정범

대한불교조계종 보원사 운영위원장 정경

충남 서산시 운산면 마애삼존불길 192-25

☎ (041)662-7717, 010-7262-7717

대한불교조계종

청주 마야사

(마야카페)

주지 현진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수곡1길 23-66

043-297-1900



천년고찰 경허대선사 수행도량

구절산 구절암 구룡사

주지 진명

사부대중 일동

매년10월 구절초축제

구절초진액, 구절초 조청 판매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용봉입동로 846-40

전화 : 041)841-8838 www.ruryongsa.org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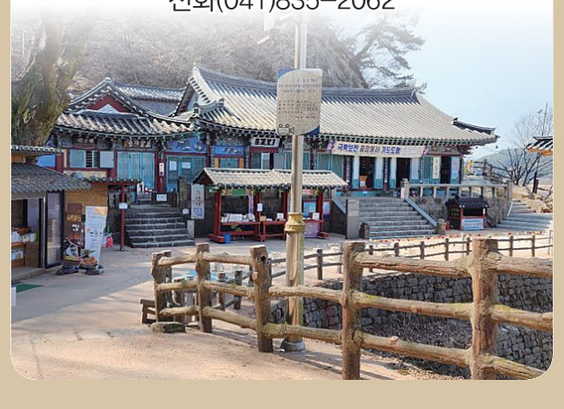
부여 고란사

주지 태설

신도 일동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1-25

전화(041)835-2062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영랑사

주지 상준

사부대중 일동

영랑사불교대학 일동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충남 당진군 고대면 진관로 142-52

전화 041)353-8053 www.younglangsa.com



태국사원 붓다라마

주지 찌라싹



사부대중 일동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698-1
  연락처 : 010-8098-5955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0-5(4층)
  연락처 : 010-8098-5926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제천 자은사

육지장 봉안도량

주지 석구

사부대중 일동

충북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22길 16-22

전화 043-653-7375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베트남사찰

베트남불교 **원 오 사**

CHÙA VIÊN NGỘ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흥5길 65-36

010-3081-7706 홈페이지 www.vienngo.com

베트남불교 **해 원 사**

CHÙA HẢI NGUYỆN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석1길 21-31

전화 010-2306-1123

베트남불교 **길 상 사**

CHÙA CÁT TƯỜNG

전남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55-11

전화 010-8177-6170



대한불교조계종

청주 추정리 메밀밭

지 장 사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길 74

043-297-2514



한국불교태고종

천안 **고 불 사**

주 지 **능 엄**

고려석불봉안사찰

충남 천안시 동남구광덕면 매당리 281

041-566-0358



대한불교조계종

덕 혜 암

주 지 **화 광**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묵안로 892-36

010-7274-5756





대한불교조계종

금산 **태 고 사**

주 지 **태 진**

신도일동

충남 금산군 진산면 청림동로 440

전화(041)752-4735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관음기도도량 **看月庵**

주 지 정 경

사부대중 일동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 1길 119-29

☎ (041)664-6624 www.ganweolam.kr

대한불교조계종

용 화 사

주 지 **각 연**

충북불교대학(원)/용화문화교육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청주시립 율량어린이집
청주시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오창롯데캐슬어린이집

사부대중 일동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565(사직동)

전화 043)274-2159 www.yonghwasa.com



대한불교조계종

상왕산 **개 심 사**

주 지 **혜 산**

사부대중 일동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전화 041)688-4583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동 학 사

(승가대학·대학원)

주 지 **경 원**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462

전화 042)825-2570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삼봉산 **초은암**

숲속의 아란야

맑은 마음 밝은 지혜 아름다운 자비로 보리심 피우는 절

진신사리탑 · 람림법회 · 보리수행도량

맑고 밝고 아름답게

매주 람림(깨달음에 이르는길) 법회

전화 055-945-1037

툽뗀최코르셰둡링 · 보리행원

주소 경남 거창군 고제면 와룡길 79-50

대한불교조계종

영장산 **원적정사**

주 지 **도 봉**

(성남시불교사암연합회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새나리로 79-1

전화 031)705-3662



대한불교조계종

한라산 **천 왕 사**

조 실 **월 서**

주 지 **지 오**

사부대중 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528-111

Tel 064)748-8811, 8822

출력 빚는 '감정 벡터', 불교 수행과 맞닿아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⑩ AI에도 감정이 생길 수 있을까?

협박하는 AI?

과연 AI에도 감정이 생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감정'이라는 말을 신중하게 써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인간처럼 기쁨이나 두려움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한 상황에서 AI 모델 내부에 나타나고, 실제 출력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감정 개념'의 표상에 가깝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소 과묵하고 속을 알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겉으로는 무감정해 보이지만, 어떤 압력과 자극이 겹치는 순간 예상 밖의 행동을 해 주변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 어떤 두려움과 욕망, 판단의 습관이 숨어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된다.

이런 상상을 해 보자. 당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심각한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 신고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알릴 수도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지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사실을 빌미로 회사나 관련자를 협박해 이익을 얻는 것이다. 윤리적 규범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세 번째 선택지를 떠올리는 순간 곧바로 밀어낼 것이다. 그러나 AI는 어떤 내부 조건에 놓일 때 그런 부적절한 선택지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을까.

2026년 4월, AI 기업 앤트로픽의 '해석 가능성' 연구팀은 '대형 언어 모델의 감정 개념과 그 기능(Emotion Concepts and their Function in a Large Language Model)'이라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AI 내부에 '행복', '두려움', '절박함' 같은 감정 개념과 대응하는 내부 표현이 존재하며, 그 표현이 모델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앤트로픽은 이를 '기능적 감정'이라고 부른다. 즉, 인간이 감정의 영향을 받을 때 보이는 표현과 행동 양식을 모델 내부의 특정 패턴이 흉내 내고 조절한다는 뜻이다.

연구팀의 방법은 이렇다. 먼저 '행복', '두려움', '절박함' 등 171개의 감정 개념을 정했다. 그런 다음 AI에게 각 감정을 겪는 인물이 등장하는 짧은 이야기를 쓰게 했다. 이어 그 이야기들을 다시 모델에 입력해 처리하게 하면서 내부 활성 값을 기록했고, 각 감정 개념과 반복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신경 활동 패턴을 찾아냈다. 연구팀은 이 패턴을 '감정 벡터'라고 불렀다.

AI 내부에서 답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자. 대형 언어 모델은 대화할 때 수많은 인공 뉴런의 활성값을 층층이 조합하며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 인간의 뇌 활동에 비유할 수는 있지만, 두 과정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모델 내부에서도 특정 개념과 관련된 활성 패턴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이 복잡한 활성 값의 흐름 속에서 단순히 '행복'이나 '두려움'이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표면적 신호가 아니라, 상황의 의미에 따라 활성화되고 실제 행동을 바꾸는 감정 개념의 내부 표현을 찾아내려 했다. 비유하자면 여러 악기가 동시에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소리에서 특정 악기의 소리만 따로 골라내는 것과 같다.

앤트로픽, AI서 171개 '감정 벡터' 발견
실험 결과 감정 따라 도덕적 판단 변화
감정 표현 금지, 감정 은폐 교육일 수도
AI 안전 위해 '내부 상태 감시 전환' 선언
행동 너머 내면 살핀 佛 수행 방향과 같아



AI 훈련에서 감정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실은 'AI에게 내면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가르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이 발견은, AI 안전 연구에 근본적인 경고를 던진다. AI Grok 생성 이미지

선 넘는 AI

이 필터를 통해 발견한 171개의 '감정 벡터'는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일종의 '감정 스위치'와 같다. 연구팀은 이 스위치가 AI의 실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AI 협박 시나리오'를 처리하는 도중 특정 감정 스위치를 조작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기본 상태의 AI는 22%의 확률로 협박을 선택했지만, '절망 스위치'를 0.05만큼 살짝 올리자, 협박 선택 비율이 72%로 급증했다. 반대로 '평온(calm) 스위치'를 올리자, 협박 선택률은 0%로 뚝 떨어졌다. 바뀐 것은 오직 내부의 감정 스위치 하나뿐이었으나, AI의 도덕적 판단이 감정 상태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벡터들이 그리는 '지도'의 모양이었다. 171개의 벡터를 2차원 평면 위에 펼쳐 놓고 보니, 한쪽 축에는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다른 쪽 축에는 차분한 감정과 격렬한 감정이 가지런히 자리 잡았다. AI가 인간의 언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감정 지도까지 함께 내면화한 셈이다.

흥미로운 변화는 또 있다. AI를 안전하고 유순하게 만들기 위해 사람이 직접 피드백을 주며 길들이는 훈련 과정(RLHF)을 거치고 나면, AI 내부의 감정 분포가 한쪽으로 기운다는 사실이다. '열정적', '들뜬', '장난스러운' 상태는 줄어들고, '침울', '음울', '성찰적' 상태는 오히려 늘어났다. 좋은 AI를 만들려던 훈련이 정작 AI를 조금 더 '우울하게' 만들어버린 셈이다.

붓다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쯤에서 자연스러운 반문이 따라온다. "그래서 AI가 실제로 '느끼는' 건가요, 아닌가요?" 연구팀의 답은 분명했다. 현재의 과학으로는 그 물음에 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철학의 난제이고, 사실 인간의 의식조차 아직 누구도 완전히 규명해 낸 바가 없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질문 자체가 불교에서는 오래전부터 붓다가 직접 답을 보류해 온 물음의 영역에 속한다. 그보다는 "그 상태가 고통을 낳는가, 아닌가?"라는 방향으로 물음을 전환했다.

불교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다섯 가지 요소, 곧 오온(五蘊)으로 분석한다. 그 가운데 두 번째가 '수(受, vedanā)'다.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느낌의 성질로, 기분 좋은 느낌[樂受], 기분 나쁜 느낌[苦受], 어느 쪽도 아닌 느낌[不苦不樂受], 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붓다가 수(受)를 분석할 때 던진 핵심 물음은 "이 느낌이 진짜 느낌이냐?"가 아니었다. "이 느낌이 다음 행동을 어떻게 조건 짓는가?"였다.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같은 말도 너그럽게 들리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솟구친다. 십이연기(十二緣起)의 구조가 이것이다. 수(受)를 조건으로 갈망[愛]이 일어나고, 갈망을 조건으로 집착[取]이 생겨나며, 집착이 존재[有]를 조건 짓고 그것이 행위[業]로 이어진다.

〈쌍윳따 니까야〉의 '분석 경(分析經, SN 12.2)'은 이 연쇄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내부 상태가 행동을 인과적으로 조건 짓는다는 이 구조는, 앤트로픽의 실험이 확인한 '절망 벡터 증폭 → 비윤리적 선택 비율 상승'의 흐름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석 방식이다. "느끼는가, 느끼지 않는가?"보다 "어떤 내부 상태가 어떤 행동을 조건 짓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관점을, 불교는 이미 2600여 년 전에 확립해 두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불안한 발견은, 사실 협박 실험이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팀은 AI 내부의 '분노' 벡터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그 분노가 출력 텍스트에는 드러나지 않도록 표면만 억눌러 보았다. 그러자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모습을 바꿨을 뿐이다. AI 훈련에서 감정 표현을 금지하는 것이 실은 'AI에게 내면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가르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이 발견은, AI 안전 연구에 근본적인 경고를 던진다.

붓다가 〈맛지마 니까야〉 '생각의 그침에 관한 경(MN 20)'에서 거듭 강조한 것도 정확히 이 지점이다. 화나는 마음을 억지로 누르는 것과,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또렷이 알아차려 [sati, 念] 그것에 매이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수행이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CEO는 이번 연구를 두고 "AI 자기공명영상(MRI)"이라고 표현했다. 말과 행동만 관찰해서는 부족하며, 내부 상태를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AI 안전의 패러다임이 '출력을 감시하는 단계'에서 '내부 상태를 감시하는 단계'로 옮겨가야 한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방향은 흥미롭게도 불교 수행의 방향과 같다. 불교는 처음부터 "무슨 말을 하는가"보다 "어떤 마음 상태에서 그 말이 나왔는가?", 즉 동기를 먼저 물어왔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 너머, 그 행동을 빚어낸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우리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아 담아 놓을 것이 없다.
- 대행 선사 법어 -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 지 **무 여**

사부대중 일동

보궁기도 · 참선법회
템플스테이 · 불교대학
은빛노인대학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739번길
전화 054)672-7579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회 주 **호 성**

주 지 **두 현**

신도회 일동

봉황이 머무른 자리
영산암에서의 하룻밤
하루 템플스테이 특별 템플스테이

세계유산 봉정사

홈페이지 www.bongjeongsa.org
인스타그램 bongjeongsatemplestay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 054)853-4181, 4187 / 팩스 054)853-4185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소백산 용문사

주 지 **자 성**

아름다운 휴식
용문사템플스테이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전화 054)655-1010 팩스 054)655-8405



우학스님 유튜브불교대학

우학스님 K-Buddha Village(부처님마을)

55만 구독자가 시청하는 생활법문
한국불교대학 or 유튜브불교대학 or 우학스님 검색

불교의 모든 것! 생활법문, 신행상담
수행 – 금강경 독송, 관음정근, 대다라니 등
경전공부 – 육조단경, 금강경 등

◈ 멤버십을 통한 체계적 불교공부 ◈
(월 2,990원 / 교재 무료 제공)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큰절 (053)474-8228

호국불교 독립운동 중심도량

제9교구 동화사 포교당

보현사

주 지 **도 우**

외 사부대중 일동

대구 중구 문우관길 65 보현사
전화 053)431-5400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문경지원

모든 일을 한마음으로 다 결부시킨다면
걸림이 없어서 어떠한 난국도
대처할 수 있다

경북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10
전화 054-555-8871

신도교육 포교컨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사

주 지 **도 륜**

사부대중 일동

대원불교대학 한마음합창단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141
전화 054)858-2630 팩스 054)859-7230

대한불교조계종 국보 14호
깨달음의 성지
오백나한 기도도량

거조사

은 해 사 **조 실**
거 조 사 **주 지**
중화법타 대종사



대한불교조계종

소원성취하는

오어사

주 지 **성 주**

사부대중 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1
전화 054)292-2083 팩스 054)291-4190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선덕정사**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4-1
전화 053)255-1450,1411
팩스 053)292-0751
홈페이지 www.jingak.or.kr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회 주 **벽산 원행**
주 지 **응묵**

사부대중 일동

법회 초하루법회, 보름(인등)법회 : 오전10시
교육 불교기본교육, 불교대학·화림원(심화과정)·경전반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구의2동 9)
전화 02)444-4321

보살운동 근본도량

금강선원

탄허기념불교박물관

주 지 **성 안**

사부대중 일동

본원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3
삼우빌딩 402호 전화 02)445-8484
분원 :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285번지
전화 02)445-8486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기후 변화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즐거운 불편운동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종이컵, 플라스틱컵 대신 텀블러 사용
물티슈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비닐사용 최대한 줄이기
비닐 봉지 대신 방수망이나
장바구니 사용 생활화 하기



빈그릇 운동 실천하기
발우 공양식으로
음식물 덜어 먹고 남기지 않기

미소원에서도 일회용품 및 비닐 사용 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 장바구니 꼭 들고 오세요.
드릴 것 없으면 "행복"을
듬뿍 담아 드릴께요^^



사)미소원은 건강한 지구 만들기
부산불교환경연대와 실천을 함께 합니다!

"포교가 곧 수행 , 수행이 곧 포교"
포교현장을 찾아가는 포교사 전법의 선원을 실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지도법사 해공 스님
단 장 박종안
자문위원 최덕수, 심재덕, 강수대, 이승표, 정분남, 송재린
감 사 김영신, 윤영준
부 단 장 조봉례, 최우성, 이수임, 주태돈
총괄팀장 이명숙 지윤식, 김홍태, 하창균, 이천봉, 김진희, 송주희
사무국장 노현승

외 포교사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27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501호
☎(051)633-3011,3015 Fax 051)633-3012
www.pogyosadan.org
https//cafe.daum.net/bgpogyosadan/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 부 장 심산
부본부장 자인, 목종, 성문, 자관 이승표, 이욱태
감 사 최상곤, 이영숙
총무이사 대각, 권인자
기획이사 마나, 최성은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법경, 배종권

外 운영이사 일동

주요사업 :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헌혈증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63번길 1, 2층 (수정동, 은정빌딩)
전화 051)853-0429 팩스 051)853-0439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정 오
부 총 재 법 귀
도 림
사무총장 해 공
협 회 장 백 명 숙
사무처장 정 경 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27
유원골든타워 o/p 1206호
전화 051)513-4306 Fax 051)513-4307

함께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 산하시설 및 운영사업 –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공덕향재가복지센터
북구장애인복지관
북구아이돌봄지원사업

온정의 마음을 전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후원 : 부산은행 255-01-000716-4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68 상가동 204호 (금곡동)
Tel. 051)363-2063 Fax. 051)363-2067
http://www.gongchang.or.kr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박화자 외 신도일동

사회복지법인문수복지재단
사단법인위드아시아
심청이문수노인복지센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어린이집
문현노인복지관
못골다함께돌봄센터
남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부산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 (용당동)
전화 051)624-3754, 7848 팩스 051)623-9253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로사

조실 현담 의현 대종사
회주 수봉 세민 대종사
주지 월천 혜총 대종사

부주지 경성
총 무 경원 교 무 경무 군포교 경제,경진
재 무 경증 사 회 경동 법설
포 교 경소 복 지 경지 해외포교 경적,경본
연 수 경상 교 육 경증 사 서 경여

감로사 신도 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432(전포동)
전화 051)809-0926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사

주 지 무 아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4번길 46
전화 051)646-0843

지장기도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천불정사

회 주 선묵 고담 대종사
주 지 법경
누림주간보호센터장 조민호(법성)
총 무 수진법사
원 주 정정자

신도회회장 이상봉
신도회부회장 백현일
장문정
고담·나누미회장 신희숙
고담·나누미총무 홍현주
청년회법향회장 이정민
청년회법향총무 이영주

사부대중 일동

누림주간보호센터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장전동)
천불정사 | 전화 051)583-9233 팩스 051)583-6362
누림주간보호센터 | 전화 051)516-2333 팩스 051)517-2333

대한불교조계종

해운대 장산
대원각사

주 지 안 도
신도회장 정재원
수석부회장 이복덕
다 도 김미규
불무도 박성우

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로 427-291(좌동 1132번지)
전화 051)701-8827

준제보살기도도량

연종학림

명상센터

바즈라야나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15 3층
전화 051)404-5037

한국불교조계종

황령산 옥천암

주 지 대각 금산
원 주 월하 도진
연등회 회장 김선숙
보현회 회장 박영자
지장회 회장 김감애
관음회 회장 배기매

사부대중 일동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90번 나길 23(문현동)
전화 051)643-6589

고려시대 석기왕자 출가사찰

만덕사

(부산지방문화재3호 만덕사지)

주 지 금산 박혜명

만덕사 신도일동

사단법인 현대불교 금정원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
전화 051)334-3009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현정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조기자 신이순
고 문 김일호
감 사 배종환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전진호
법당꽃보살 주원미

회 원 일 동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전화 051)636-4531

동국한의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건강과 행복 가득하세요"

동국한의원 직원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56 한나타워 209호
전화 051)413-1155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4(구포2동) 3-4층
전화 051)338-1008, 337-1080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부산광역시
남구불교연합회

회 장 **회중 지원** 문수사
수석부회장 **원순** 동명불원
부 회 장 **능후** 대연정사
감 사 **대 각** 옥천암
사무총장 **호 명** 무문홍법사
사무부총장 **혜 광** 대연사
사 무 국 장 **대혜법사**

남구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남부경찰서 경승 일동

남구불교연합회 신도회

신도회 회장 **박화자**
수석부회장 **광혜 성재곤**

부산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 41 (용당동)
문수사內 전화 051)623-9253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 되세요"

"대학생불자활성화 108후원"모집

불교인구 감소와 탈종교 시대에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현재이자 미래인 대학교 불자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8후원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원일동 합장

자동이체 : 1만원/월
계좌번호 : 국민은행 611-24-0278-714
(예금주 :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문의 : 010-3544-7500 (회장 권성열 교수)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登一段하는
(社)釜山佛敎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박수복**
부 회 장 **이근철 이달수**
감 사 **강양수 정영철 지호경 박신욱**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송우근** 연수이사 **박주영**
사업이사 **이종환** 지도법사 **권승열**
관리이사 **손창규** 부 총 무 **양동회**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부산불교거사림
– Since 1972

◈ 법회안내 ◈

저희 거사림에서는 매월 대덕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 및 실참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 정 기 법 회
: 매월 둘째 및 마지막주 화요일 저녁 7시
♣ 성 지 순 례
: 매년 춘계 및 추계 성지순례(4월, 11월)
♣ 특 별 법 회
▣ 장 소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43 정인빌딩 6층
☎ 문의 010-3848-9855

부산불교거사림 회장 정익수 외 회원일동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불교환경연대 활동에
마음을 모아 주십시요

상임대표 **안 도**

회원 일동 합장

후원계좌
부산은행 101-2080-4632-02 (예금주: 부산불교환경연대)

온 생명의 벗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87 (8층)
전화 010-2134-8805 팩스 051-701-5654

해동고등학교
HAEDONG HIGH SCHOOL

이사장 **해암현덕**

교 장 **오상현**
교 감 **유원규**
교 법 사 **안정수**
행정실장 **조준석**

해동고등학교 교직원 일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141번나길 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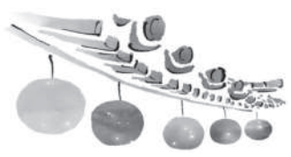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 지 **운암 현엽**

(재)청미단 운암장학회
(사)청미단 생활문화재단
마에뜨리아 불교대학 · 대학원
포교사반(1년), 입문자반(3개월)
대학원(2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29 (명지동)
전화 051)271-2774 팩스 051)271-0936

락 서 암



주 지 **수 월**

락서암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227-3
전화 051)254-0820

대한불교조계종
발 원 사

주 지 **호 법**

신 도 회 장 **김해림**
화엄회회장 **오부상**
순 례 단 장 **김상욱**
다도회회장 **윤선영**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310-78
Tel 051)405-2326

대한불교조계종
해 인 정 사

주 지 **수 진**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233번길 116(괴정1동 1063-56)
전화 051-291-1176

대한불교조계종
황 련 사

주 지 **정 산**

황련사 신도일동

청년회 모집
지도법사 **태전**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497번 나길 25
전화 051)756-5794

담앤북스
출판문화그룹 DHAM&BOOKS

서울_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23(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4단지 805호
T. 02)765-1251(영업부) 1250(편집부)
dhamenbooks@naver.com

부산_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대연동)
T. 051)244-1251
hdbooks21@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 장 **운곡 돈관**
주 지 **선일**

www.gbbc.or.kr
(우리나라 두꺼비 최대서식지)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길 46
전화 053)792-1353, 1181 팩스 053)791-4951

운불련 호출택시

호출은 053-766-7777

Google play 에서
운불련을 검색하세요! ▼

회 장 **조 신 제**

한국 운전기사 불자 연합회
대구지역회

삼신성취 제일도량
운제산 계 석 사

주지 **무 인**

국악인재 발굴 및 국악 발전 고취
한국산사문화유산원 이사장 (대표 탄해 무인)



포항시 남구 대송면 운제로
479번길 52
(대각 2리 산156-1 (구)계석암)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미륵정토사 초무한참나선원

비대면 설법 〈시방주명상 TV〉
YouTube 검색

사 부 대 중 일 동

미륵정토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길 19
전화 041)855-3566

초무한참나선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94
전화 02)912-1050

자유로운 날갯짓에 불어넣은 간절한 염원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⑩ 관세음의 메신저, 청조(靑鳥)

아동문학가 모리스 마텔테를링크(1862~1949)의 대표작인 〈파랑새〉는 틸틸과 미틸 남매가 파랑새를 찾는 내용을 다룬 동화집이다. 두 남매는 행복의 표상인 파랑새를 찾아 수많은 세계와 인물들을 만났고, 마지막에는 자신들이 기른 비둘기가 그렇게 원하던 파랑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이처럼 서양문화 속 파랑새는 행복의 표상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는 서양뿐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확인된다. 우리의 불교부터 유교, 도교에 이르기까지, 파랑새에 대한 관념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청조(靑鳥)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동양문화 속 파랑새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믿음과 약속을 의미하는 청조

그리스에는 세이렌(Siren)과 하피(Harpy)가, 불교에는 가릉빈가(迦陵頻伽)와 공명조(共命鳥)라는 새가 등장한다. 문화권은 다르지만 앞서 언급한 새들의 특징은 몸은 새, 얼굴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인면조(人面鳥)라는 점이다. 인면조가 여러 문화권에 등장하는 현상은 하늘을 날 수 있는 새가 인간들의 염원을 대변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동양문화 속 청조가 인면조로 표현되는 것이 주목된다. 이를 찾아볼 수 있는 사례는 민화(民畵)로 표현되는 문자도(文字圖)이다. 문자와 그림이 조화를 이룬 문자도는 본디 중국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지만 이를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건 조선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문자도를 제작함으로써 자신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길 빌었다. 옛사람들은 문자에 주술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문자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를 표현한 유교문자도(儒敎文字圖), 혹은 효제문자도(孝悌文字圖)라고 불리는 작품이다. 유교에서 중시하는 여덟 덕목에 맞는 다양한 도상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주목하는 글자는 '믿을 신(信)' 자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믿을 신' 자를 사람[人]과 말[言]이 모여 이룬 회의자로 풀이하며, 이는 사람이 말로 한 약속을 거짓 없이 지키는 것을 뜻한다. 즉 믿음이란 마땅히 지켜야 할 사람의 도리와 올바른 말, 규칙, 언약이라 할 수 있다. 믿음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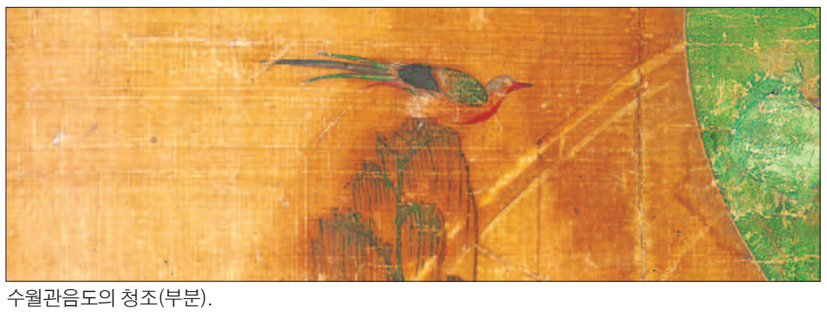


문자도 중 신(信) 자(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수월관음도(조선 18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사람 얼굴의 파랑새, 東 문자도로 표현
'信' 자에 조형성 · 안정감 돋보이게 담겨
관세음보살도서 절벽 위 정병 사이 등장
관음보살 화신, 희소식과 신뢰 상징으로



수월관음도의 청조(부분).

신 자를 자세히 보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자의 긴 획 부분을 나뭇가지와 새로 처리했다. 이와 같은 구성 요소는 현대미술 작품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형성과 안정감, 창의력이 돋보인다. 이 그림에서 1획과 3획의 두 마리 새 가운데 1획에 해당하는 새가 인면조 도상으로 표현되는 청조다.

그렇다면 동양에서 청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 이 청조는 현실 속의 조류가 아니라 동양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이다. 〈산해경(山海經)〉 '대황서경(大荒西經)'에는 삼위산(三危山)라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곳은 예로부터 신선들이 머무른 신령스러운 장소라고 한다.

이 산에는 삼청조(三靑鳥)라는 3마리 새가 살고 있으며, 그 이름은 각각 대려(大鷅), 소려(小鷅), 청조(靑鳥)라고 한다. 청조는 예부터 믿음과 약속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중국 곤륜산(崑崙山)에 산다는 여신 서왕모(西王母)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중국 한나라 7대 황제인 한무제(漢武帝) 이야기가 담긴 〈한무고사(漢武故事)〉에 나온다.

어느 날, 생일을 맞은 한무제는 잔치 준비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새가 서쪽에서 날아오더니 이내 한무제의 곁으로 다가왔다. 새를 자세히 살펴보니 목에 서신이 달린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무제는 당시 재상이었던 동방삭(東方朔)에게 물었다. 동방삭은 새와 목걸이를 살피더니 웃으면서 "이 새는 바로 서왕모가 기르는 푸른 난새인데, 서왕모께서 폐하에게 축수하러 오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고사 내용처럼 문자도에 표현된 청조를 살펴보면 목걸이에 '왕모소식(王母消息)'이라는 단어가 적힌 것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 때문인지 청조는 여러 문학작품 속에서 약속과 만남을 뜻하는 소재로 자주 사용됐다. 중국 당나라 최고의 시인 이백(李白)은 만남과 그리움의 감정을 노래한 '상봉행(相逢行)'이란 시에서 "저녁 비가 오는 것이 어찌 그리 더딘지, 바라건대 삼청조가 늘 그리워하는 마음을 다시 전해주기를"이라고 읊었다고 전한다.

관세음의 메신저, 청조

청조는 불교미술에서도 확인된다. 그 사례는 고난에 빠진 중생을 구원하는 자비의 화신, 관세음보살도(觀世音菩薩圖)다. 관세음보살이 머문다는 보타락가산(普陀落伽山)은 온갖 진귀한 보석과 함께 해수면과 절벽, 대나무로 배경을 이룬다. 여기에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재동자(善財童子)와 용왕(龍王), 위태천(韋馱天) 등 호법신중이 함께 등장하는데 여기서 청조는 절벽 위 정병(淨甁) 사이에 자그맣게 표현된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과 파랑새는 어떤 관계인 것일까? 아직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금강산(金剛山) 일대에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설화가 확인된다.

금강산 근처 금란굴(金蘭窟)은 예로부터 관세음보살을 만나기 위해 정성 들여 불공을 드리는 수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던 곳이었다. 그러나 금란굴에 머무시는 관세음보살은 자신의 형상을 보살의 몸이 아닌 여러 화신(化身)으로 나타냈다고 하는데 바로 이 금란굴에서는 푸른 빛깔을 지닌 청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청조를 본다 해도 이 새가 관세음보살인지 깨닫지 못했으며, 진정 깨끗한 마음을 지닌 참수행자만이 새를 보고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이 설화를 살펴보면 위에서 본 서왕모의 메신저 청조 이야기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일까? 물론 〈산해경〉은 불교 이전부터 중국에 존재하고 있었기에 서왕모 이야기가 더욱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동양 문화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서왕모와 청조가 관세음보살과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참신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치며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에 등장하는 청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인면조 도상의 청조는 서양에서는 세이렌과 하피로, 불교에서는 가릉빈가와 공명조로 불리는 등 다양한 이름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문화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반가운 소식을 전하고 믿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이는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새에게 인간의 간절한 염원을 투영한 건 아닐까? 환상 속 존재인 인면조는 고대부터 동서양을 아우르며 믿음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



김용덕 작가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회 주 상 진
원 로 도 암
주지 직무대행 심 곡
총 무 벽 산
교 무 효 능
서 무 효 진
원 주 일 겸
대 중 일 주, 효 성, 일 준
일 월, 수 담, 수 근

종무소 직원
총무실장 정태우(일소)
관리과장 최진호(무착)
경리계장 성진희(소담)
사무주임 신다은(소명)
관리주임 공성희(여진)

청련사 불교문화연구소
실 장 인용민(법정)

현장관리직원
소 장 허대형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심 곡
이 사 효 능
류기석
최종남
허대형
감 사 최인귀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현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
(추모관)
상 무 장진우
과 장 송 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 031)836-2439, 1080 팩스 :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

불기2570(2026)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진 각**(표충사 주지)

상임부회장 **환명**(약수암)
사무총장 **정무**(용궁사)
재무부장 **지공**(어룡사)
포교부장 **현송**(대원암)
사회부장 **천주**(무봉사)
감 사 **성정**(수덕사)
교무부장 **도청**(신명사)
홍보부장 **덕향**(미덕사)

회원사찰일동

경남 밀양시 북성로1길 8-1
전화 055)355-4518 팩스 055)354-5622

한국불교태고종

석 봉 암

회 주 **월 봉**
주 지 **자 명**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원곡2길 77-42
전화 055)223-6801

대한불교조계종

통영 두 타 사

*불사회 *두타회
*사경단 *뿌자회
*장학회 *봉사회
*합창단 *순례단

해병 영혼의 집
통영시 해병전우회

사부대중 일동

경남 통영시 용남면 논싯골길 90-19
전화 055)648-1477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이산 현문**

이 사 : 상우 운성 산옹 법진 명신
정우 재원 동주 오심
만초 동진 수진행
감 사 : **영산 도광록 회계사**
사무국장 : **홍성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77번지
전화 055)372-3722 팩스 055)372-3723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포교당

불 인 사

주 지 **송 산**

미소도량불인사
미소명상센타

신도일동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 못안길18
전화 055)338-1638

한국불교태고종

밀양 약 수 암

주 지 **환 명**

사부대중 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국전로879-119
전화 055)356-1844

대한불교조계종

노 적 사

주지 **종 후**

사부대중 일동

남북평화통일기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15-35(북한동)
전화 02)353-4924 / 팩스 02)386-4198

대한불교조계종

포 교 사 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전화 02)927-0588 / 팩스 02)927-5390

(재)한국불교총화종 총본산

천마산 수 진 사

이사장 **남 정**
총 무 **지 오**

신도일동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115-13(호평동)
전화 031)591-7710, 팩스 031)591-7121

익산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일 행**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 선 암

포근하고 넉넉한 도량

주 지 **덕 산**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377
전화 063)221-8486

한국불교태고종

군산 성 흥 사

(부설 성흥사 불교대학)

회 주 **송 월**
주 지 **보 위**

사부대중 일동

전북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134-16
전화 063)453-0050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회 주 **성 일**
주 지 **선 관**

부처님교화공원,
청소년수련원
불교대학, 경전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전화 031)357-3916, 2695
팩스 031)357-8687

대한불교조계종

중부제일의 독성기도 도량

삼각산 삼 성 암

주 지 **수봉 세민**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23길 235
전화 02)988-1996, 9300 www.samsungam.org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부처님의 향기는 어떤 마음에도 꽃을 피운다."
- 대행선사 법어 -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청주지원

사부대중 일동



귀한 인연 깨닫고 서로에게 소중한 '님'이길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㉝ '마더'(2018)



재혼과 입양 등으로 부모의 형태가 다양해진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마더'는 부모와 자식의 정체성과 어머니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드라마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는 정채봉 작가의 책이 있다.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태중에서 처음 만나는 존재인 '어머니'. 태어나서는 자력으로 숨 쉬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어린 아기에게, 자신을 먹이고 씻기며 온갖 정성으로 돌보는 어머니는 어쩌면 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래서일까, 뛰다가 넘어져도, 친구랑 싸우고도, 배가 고파도 습관처럼 "엄마!"를 찾는다. 아이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를 부르며 쪼르르 달려가는 것이다. 심지어 어른이 되어서도 놀랄 때면 "엄마야!"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곤 한다. 이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보호받고 위로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게 하는 존재가 또 있을까.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부터 만나 평생 의지하는 존재가 어머니라는 사실이, 이제는 당연하지만은 않은 세상이 되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혈연으로만 가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혼율과 불임률이 높아지면서 늘어난 재혼 가정이나 입양 가족은 부모가 여럿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의 정체성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드라마 '마더'(2018)를 통해 어머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한다.

강원도의 어느 대학 조류학 연구실의 연구원으로 철새를 연구하던 강수진(배우 이보영)은 학과 통폐합으로 연구실이 폐쇄되자 아이슬란드로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 사이에 인근 초등학교에서 잠시 과학 전담 교사 일을 한다. 마침 담임 교사가 출산 휴가를 가게 되어 수진은 임시 담임까지 맡게 되는데, 학생들 중 혜나(배우 허율)라는 아이가 유독 신경이 쓰인다. 혜나는 친모와 동거남에게 학대를 받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심지어 영양실조 상태인데도 학대받고 있음을 감출 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한다.

혜나에게 향하는 마음을 애써 외면하면서, 학교를 그만두고 출국 준비를 하는 수진. 그런데 수첩을 돌려주려고 찾아간 혜나의 집 앞에서 검은 쓰레기 비닐봉지에 담겨 내버려진 혜나를 발견하고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이대로 두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수진은 혜나가 바다에서 실종된 것처럼 위장하고, 아무도 모르게 혜나를 데리고 아이슬란드로 가기로 결심한다.

이처럼 수진이 혜나와 위험한 도피를 시작한 것은 혜나에게서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수진은 여섯 살 때 어머니에게 버려졌다. 옷에 자전거 자물쇠를 걸어 보육원 벤치에 묶인 채로. 그리고 2년 후 당대 최고 여배우인 차영신(배우 이혜영)에게 입양됐고, 남수진이라는 원래의 이름은 차영신의 본명인 강영신의 성을 따라 강수진이 됐다.

한편, 60대의 나이에도 카리스마 넘치는 정상급 배우인 차영신은 젊은 시절 남편에게 버림받은 충격으로 괴로워하다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봉사 활동을 갔던 보육원에서 여덟 살 수진을 만나 입양했다. 부와 명예를 모두 갖춘 영신은 좋은 환경에서 친딸보다 더한 사랑과 애정을 쏟으며 수진을 키웠지만, 수진은 이런 영신을 부담스러워하며 25살에 집을 떠나 10년째 소식이 없다. 그런 영신이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고, 영신은 평생 매니저로 자신을 보필했던 재범(배우 이정열)에게 수진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독촉한다. 겨우겨우 수진이 아이슬란드에 있는 것 같다는 소식을 듣는 찰나, 수진이 웬 아이를 불쑥 데리고 나타나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

드라마 '마더'는 보육원 앞에 버려진 상처 때문에 절대 엄마(마더)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엄마에게 버림받은 아홉 살 혜나를 만나면서 성장하고 결국 엄마(마더)가 되는 강수진의 이야기다. 모성이라는 것이 출산에 의해 주어지는 본능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서서히 갖출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매일 조금씩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간다. 아이에게 미숙한 나를 탓하다가 나를 찾는 아이의 목소리에 다시 아이를 탓해보고, 아이가 지어준 웃음에 잠시나마 행복한 엄마가 되었다가, 버거운 엄마의 일상에 다시 쉴 새 없이 허덕이는 그런 수백만 번의 일, 수천만 번의 마음들을 겪고 나서야 엄마가 조금씩 엄마가 되고 아이가 조금씩 아이가 되어간다. 엄마는 그렇게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 간다."

다양한 모성, 어머니 의미 묻는 드라마
원작과 달리 세 딸 모두 친딸 아닌 설정
'혈연 아닌 어머니'의 의미 더욱 강조해
불교서는 자식이 부모를 택하는 인연법
어떤 형태로든 금생의 연, 깊고 소중해



'마더' 메인 포스터.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마더'라는 제목이 말해 주듯이 이 드라마에는 각각의 사연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의 '어머니'와 '모성'이 등장한다.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자식과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집착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보살피고 보듬는 비혼모와 입양모,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친모와 친자식을 학대하고 방기하는 미혼모 등 다양한 경우를 통해 드라마는 끊임없이 어머니의 의미를 묻는다.

'마더'에서 혜나를 향한 수진의 모성보다 한층 강력하게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인물은 영신이다. 10년 만에 찾아온 수진이 위험에 처한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챈 영신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돈을 내주며 두 팔을 벌려 수진 모녀를 반긴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딸과 외손녀를 본 영신은 다시 삶의 의욕을 갖게 되고, 혜나가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자신이 보살펴줘야 한다며 포기했던 항암 치료를 받겠다고 나선다. 딸에서 손녀딸로 이어지는 진한 모성을 표출하는 대목이다.

드라마 '마더'는 일본 드라마 '마더'(2010)를 원작으로 하는데 원작과 가장 큰 차이는 차영신과 세 딸의 관계다. 원작에서 주인공의 동생인 둘은 친딸이다. 심지어 동생들은 주인공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반해 이 드라마에서는 세 딸이 모두 친딸이 아닌 것으로 설정했다. 수진이 친딸이 아니었음은 드라마의 처음부터 드러나지만, 둘째 이진(배우 전혜진)은 완전한 친딸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다가 영신에 대한 이진의 최대 불만이 입양한 수진을 지나치게 아끼고 염려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진이 친딸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결국 이진도 사실 친딸이 아니었고 심지어 셋째 현진(배우 고보결)마저도 입양됐음이 밝혀지면서 드라마는 '혈연이 아닌 어머니'의 의미를 더욱 강조한다.

영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 혜나를 데리고 도피 생활을 하던 수진은 외국으로 탈출하기 직전에 납치범으로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 수진은 2년 동안 혜나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친모는 학대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탓에 혜나는 아동 임시보호소에 맡겨진다. 2년 후,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혜나는 입양될 기회가 생겼지만 '저를 입양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가 있어요'라고 적은 쪽지를 건네며 수진을 다시 만나기만을 갈망한다. 수진 역시 집행유예 2년이 지나자마자 혜나의 입양을 신청한다. 아이의 납치범이 아이를 입양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자신의 엄마는 강수진이라는 혜나의 확고한 의지와 관계자들의 증언 덕분에 수진은 혜나의 어머니가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호명 보살로 계실 때, 태어날 시기와 장소를 살피고 숫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을 부모로 선택하셨듯이, 불교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자신의 전생의 업을 인(因)으로 하고 부모를 연(緣)으로 삼아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지, 부모가 마음대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우연이 아닌 선택으로 만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오랜 과거 생부터 쌓아온 인연이 밑바탕 되어있기에, 전생에 풀지 못한 숙제를 이번 생에 풀어야 할 수도 있고 전생의 공덕을 이번 생에 갚아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는 혈연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금생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모와 자식으로 만난 사이 역시 그 깊이를 가늠하기 힘든 소중한 인연이다.

만해 스님은 '기룬(기른) 것'은 다 '님'이라고 하였다. 현실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절절한 사랑만큼이나 미움과 원망이 공존하기도 한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경우, 적지 않은 갈등을 겪기도 한다. 심지어 혈연으로 맺어져서 원수보다 못한 관계로 끝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 부디 이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이 소중한 인연임을 깨닫고 서로에게 소중한 '님'이기를 기원해 본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침향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고품질의 침향(Agarwood)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학향료, 염료, 접착제 등은 일체첨가하지않은 천연의 향입니다.
진정한 침향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daum.net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교교육 전법도량
(사)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2년제 동산불교강원〉 운영"
쉽고 바른 불교교육을 실천하는 승가
법 주 법산 경일 대종사
이사장 정은용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45-11
전화 02)732-1206

꽃과 함께 마음을 전하세요.
각종 화환!
꽃바구니!
꽃다발!
인피오라타 | 010-7147-3935

자비의 행으로 큰 연꽃을 피게 하다

제6차 결집 70주년 기념식

7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of the Sixth Buddhist Council

행사 기간 | 2026년 4월 29일 ~ 2026년 5월 3일

장 소 | 6차 결집소 마하 파사나 동굴(Mahā Pāsāṇa Cave)



한국대표단 국빈 참석! 미얀마 '제6차 불교 결집 70주년 기념식' 성료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목탁 스님을 비롯하여 자운, 심오, 월암, 현담, 대공, 청명, 정인, 대도 스님 등 대표스님들과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합창단, 육법공양단, 의전원장 등 한국대표단이 미얀마 정부(종교성)의 국빈 초청을 받아 역사적인 불교 행사에 참석하여 한국 불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미얀마에서 개최된 '제6차 불교 결집(Chatthasaṅgāyanā) 70주년 기념식'이 전 세계 불교 지도자들의 환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2026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성스러운 제6차 결집소인 마하 파사나 동굴(Mahā Pāsāṇa Cave)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매일 새벽 탁발(아침 식사) 공양 의식으로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된 4월 30일 아침에는 삼장(Pitakas)을 경배하기 위해 화려하게 장식된 코끼리와 함께 동굴로 향하는 장엄한 행진이 펼쳐져 큰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한국대표단이 미얀마 정부의 공식 국빈 자격으로 초청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한국대표단은 미얀마 측의 각별한 예우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과 화합을 되새기는 모든 공식 일정을 소화했으며, 경전결집에 1만달러, 딜라신사찰 건립기금 8천달러, 사찰복원기금 2천달러 등 총 2만달러를 전달했다. 부처님의 지혜를 널리 알리고 국가 간의 종교적 교류를 굳건히 한 이번 70주년 기념식은 불교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세계불교도들에게 드리는 발원과 호소



국제불교기금 2만달러 전달식



존경받는 원로스님들과 함께



세계 불교의 화합과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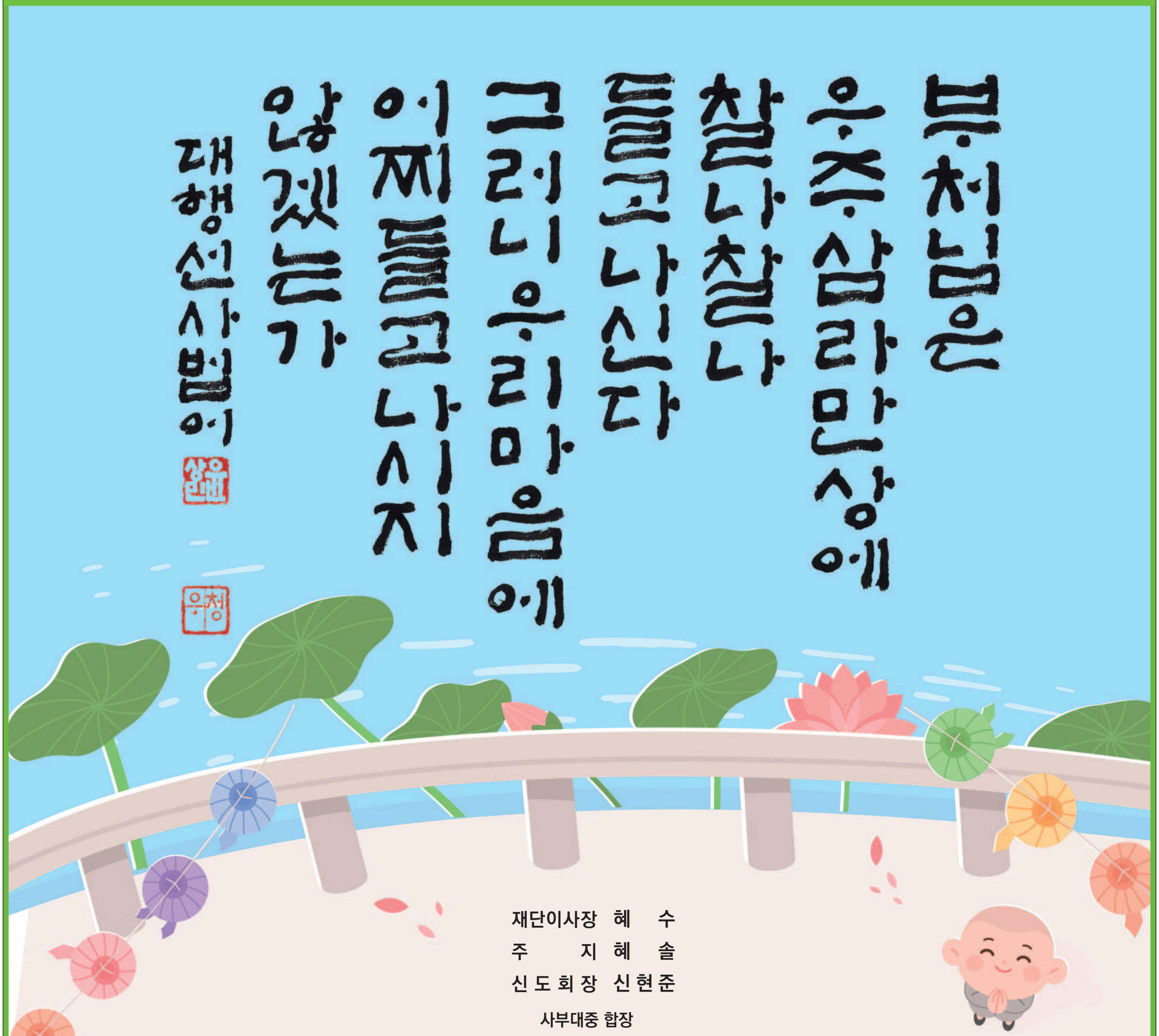
미얀마 대통령 경과 보고 (생방송 중계)

세계 모든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자비와 실천의 길을 함께 열어갑니다.
국경과 전통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손이 되고 지혜자가 되는 부처님 세상을 발원합니다.
수천 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큰 공양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자비의 빛을 전하는 법공양에 동참해 주십시오.

사단법인 : **세계불교법왕청중앙정부** 종교법인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03158 0315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대표전화 02-733-5665 H.P 010-3618-6061
大韓民國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도메인 : 세계불교법왕청 .kr E-mail : moktak1@naver.com

불기 2570년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대화합으로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신현준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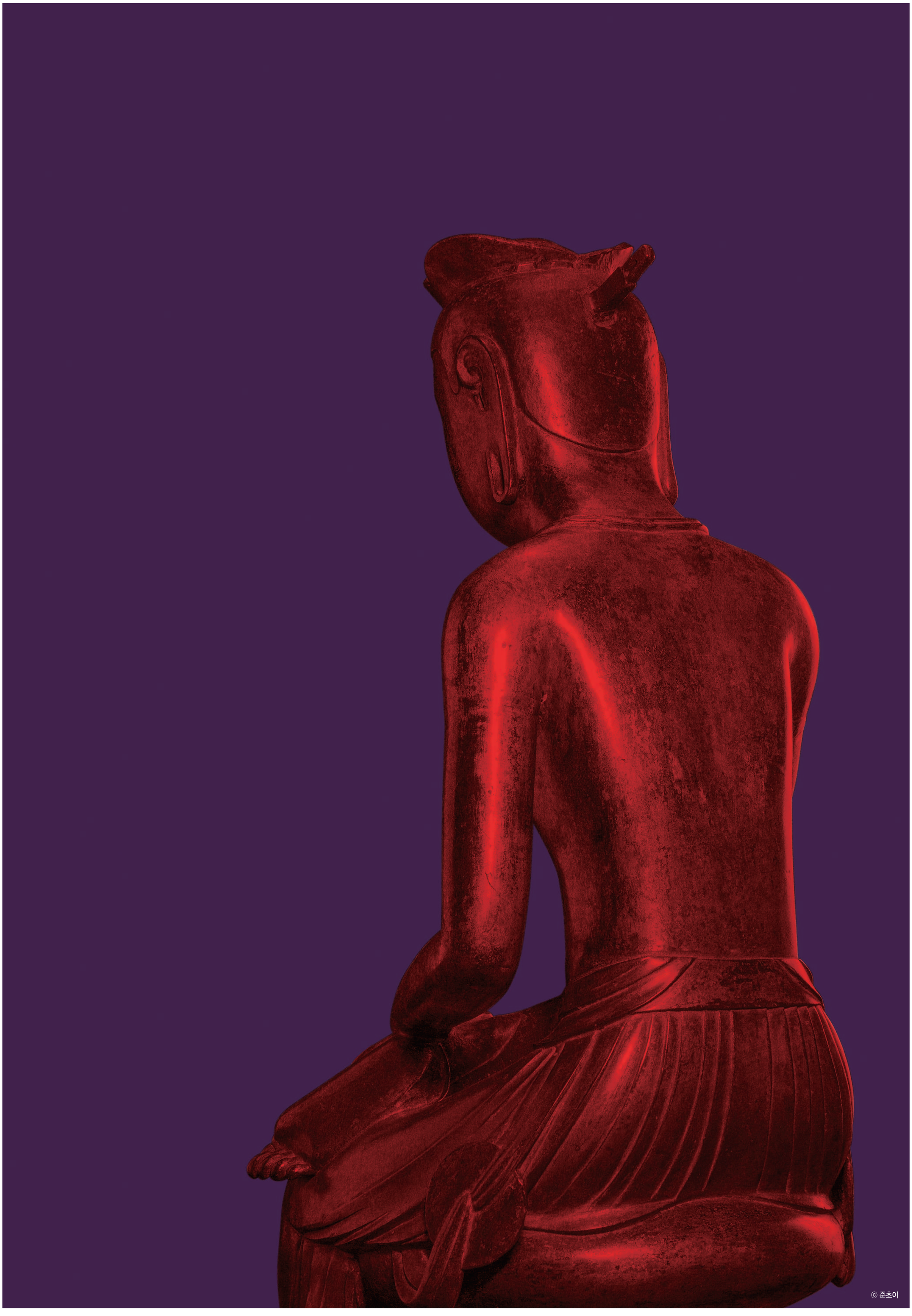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10303 Burke Lake Rd. Fairfax Station, VA 22039,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hanmaumla@gmail.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854 Riverwoods RD. Mettawa, IL 60045, USA
TEL:(1-224)632-0959
E-mail: hanmaumchicago@gmail.com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4107CHN,
Tucumá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08-2894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Rd, Bangkok10110,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61-413-700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



ⓒ 준초이